

2016년도 졸업논문 소개

석사학위 논문

해방기 연극의 정치적 대중성 연구

강 병 철

2016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본고는 해방기 연극이 지닌 정치적 요소들이 관객들의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켜 대중성 확보에 기여하는 양상을 밝힘으로써, 기존에 수동적 관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파간다 연극으로 주로 이해됐던 해방기 연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탐색하고자 했다.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몸소 겪은 대중들에게 연극은 식민지 조선에서 금지되었던 정치적 욕망을 집단적 형태로 자유롭게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는 장이었다. 일제의 패망에 기뻐하고 나름의 역사적 표상을 형성하는 일을 가능케 했던 행위 형식이 정치의 장에서는 집회였다면 예술의 장에서는 바로 연극이었던 것이다.

본고는 해방기 대중이 지닌 문화 소비 주체로서의 능동성과 비균질적 정치성에 주목하여 이 시기 작품들이 이 같은 대중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상을 공연미학적 측면에서 살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외면했던 상업극계 작품들까지 연구대상으로 대거 포함시켰다.

2장에서는 민족사를 무대화하고 여기에 감상적 해석과 비평을 가함으로써 관객들이 ‘조선 민족’을 마음껏 상상하고 나름의 역사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들을 다뤘다. 이런 작품들은 민족에 대한 관객의 감각을 일깨우고 관객들이 민족사에 대한 대중지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중의 정치적 욕망을 적절히 충족시켜 주었다. 〈대원군〉과 〈녹두장군〉은 망국사의 전사(前史)를 단순화된 인과관계 중심으로 다뤄 망국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 욕구를 충족시킨다. 〈안중근 사기〉와 〈기미년 3월 1일〉은 시·청각적 기호를 적극 활용해 ‘말할 수 없는 역사’였던 독립운동을 재현하는 동시에, 부자연스럽게 짧은 질의응답과 다양한 논쟁의 무대화를 통해 관객들의 역사의식을 자극한다.

3장에서는 민족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정치 담론의 문제를 가정과 같은 일상적 경험 및 윤리의 차원과 결부시킨 작품들을 분석했다. 이들 작품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인정극의 윤리를 변용하여 대중지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정치적 욕망을 효과적으로 수용한다. 〈미륵왕자〉와 〈무지개〉는 해방기에 정치적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받게 된 여성을 주도적 인물로 다루며 국가 건설 국면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객 인식을 확장시킨다. 〈두뇌수술〉, 〈신념〉, 〈그림자〉는 가정의 위기와 재건 과정을 환상과 괴이의 코드를 통해 비논리적 방식으로 그려, 이를 통해 관객들이 정서적 차원에서 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4장에서는 관객들이 친일 청산이나 민족 공동체 형성 같은 현실적 과제를 극장공간에서 연극적 형태로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그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작품을 살폈다. 〈황혼〉은 빠라라는 해방기 현실을 반영하는 오브제를 활용해 사회적 요구로서 친일 청산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는 정치적 죽음 끝에 자살을 결행하는 친일 모리배 이중생의 장례식을 관객들이 함께 친일 청산의 순간을 공유하는 민족적 기념제의의 장으로 만들어낸다. 〈머느리〉와 〈고목〉은 드라마공간에 해방기 거리의 풍경을 집회 소음과 같은 청각 기호를 활용해 담는다. 이를 통해 관객들을 민족공동체 건설의 주체로 호명해내고 거리와 대비되는 극장 공간에서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나름의 수행성을 지니도록 유도한다.

이상 논의에 따라 해방기 연극은 단순히 이데올로기 과잉의 연극이 아니라,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시 대중의 정치적 욕망을 충실히 충족시켜 주려한 대중적 연극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능동적인 문화 소비의 주체이자 정치의 주체인 이 시기 대중들에게 해방기 연극이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프로파간다만으로는 매력을 갖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에 해방기 연극은 관객들의 역사의식을 일깨우고 현실 문제에 대한 대중지성을 확장시키는 한

편, 관객들이 민족공동체의 과제를 연극적으로 수행하는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정치적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체제의 선택과 정치적 대립이 불가피하던 시대에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자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중의 욕망과도 관련이 있다. 이 같은 해방기 연극의 특성은 연극이 이 시기에 여전히 대중적 예술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비결이었다. 그러나 1950년 전쟁이 발발하고 반공주의가 득세하면서 연극은 대중의 정치적 욕망 대신 국가의 욕망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에 한국 현대 연극의 정치적 대중성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다양한 방식으로 극장공간에 재등장하게 된다.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

와다 고토하

2016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를 대상으로 음운적, 형태적, 의미적 측면에서 단어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단어 형성과 관련된 파생어, 합성어에 관한 고찰도 본고의 논의 구성에 포함시킨다. 또한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뜻풀이나 예문들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였다.

본고에서는 ‘말소리를 청각을 통해 한국어의 언어음으로 인식한 것’을 의성어라고 정의하고 ‘움직임과 상태를 시각적으로 인식한 것’을 의태어라고 정의하고 연구하겠다.

서론에서는 본고의 연구목적을 밝히고 기존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연구는 대부분 파생접미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단어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장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내적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형태’, ‘동사, 형용사 어간과 어근 형성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 ‘동사, 형용사 어간과 영접사가 결합한 형태’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파생접미사의 결합을 통해 형성하는 파생어와 합성어 형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때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형성하는 파생어와 합성어의 특성을 더 자세하게 밝히기 위해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를 일부 참고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파생어 형성 시에 ‘엿치락뒤치락을 계속했다.’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한편 명사 파생어의 경우, 동물의 울음소리가 파생접미사와 결합하여 명사를 형성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에서 형성되는 합성어는 일본어와 달리 특정한 단어와만 합성어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중 87.9%가 특정 서술어 혹은 특정 의미 부류의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내적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고 3장에서는 의성어, 의태어 단어 형성에 대한 논의에 반드시 필요한 파생어와 합성어 형성, 그리고 그 특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의미적 특성을 살펴본다. 3장과 4장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와 관련지어서 일부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가 참고되는데 이는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참고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일부 소개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최인호 문학에 나타난 개인의 의미 연구

김 지 윤

2016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손유경

이 논문은 최인호 문학 세계의 전반을 관류하는 의식이 거대담론과 권력이 맹위를 떨친 사회에서의 개인의 역할 탐색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가 작품을 통해 형상화하고자 한 이상적 개인의 면모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문단에서 최인호 문학이 보여주는 개인의식은 소극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것으로서 중국에는 극복 내지 초월되어야 할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면모를 추적해 보면, 작가가 그리고자 한 개인은 기존의 평가와는 달리 개인을 둘러싼 일상의 문화 체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갱신해 나가고자 한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인호가 형상화한 개인의 모습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고는 ‘문화 정체성’ 개념을 원용하여 그의 1960년대 소설부터 1980년대 작품까지를 두루 살핀다. ‘문화 정체성’이란 인간이 각기 다른 언어나 문화에 귀속되면서 비롯되는 정체성의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당면해 있는 문화적 재현 체계에 따라 그의 정체성이 가변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최인호는 사회의 지배 집단이 개인에게 수여하는 선험적이고 고정된 정체성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적 담론에 함몰되지 않는 개인상을 주조하고자 한다. 이 지점에서 문화 정체성 개념은 그의 문학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참조점이 된다. 또한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

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문화는 사회의 거대담론으로부터 개인이 형해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상과 같이 나타나는 최인호 문학 속 개인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본고의 2장에서는 먼저 작가가 개인을 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최인호는 ‘해방둥이’라는 표상을 통해 1960년대 말 이후 새롭게 한국 사회에 부상한 신세대의 등장을 가시화한다. 그는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단절적으로 파악하며, 신세대의 정체성 형성 기준을 기성세대의 역사적 경험이 아닌 작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의 외부에 두고자 한다. 상이한 문화 체계와의 상호 참조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의미화 하고자 한 작가의 기획은 그의 1960-70년대 소설 및 여행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더하여, 최인호는 문학 언어 또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감각을 통한 표현이 요구된다고 인식한다. 그는 문학이란 현대 일상인의 삶을 그대로 형상화함으로써 이를 읽는 독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당대 일상적으로 소비되던 문화적 기호들을 그대로 소설에 삽입해 반영하는 서술 상의 특징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3장에서는 개인들 간의 차이를 무화시키고자 하는 정치경제적 집단화 논리에 대응하는 개인의 의식을 분석한다. 1970년대 이후 이전 세대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 가능성을 목도한 한국 사회의 새 세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위치해 있는 현실이 이러한 차이를 무화시키고자 하는 위기의 시대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1970년대의 강권적 정부와 이에 대항하는 집단은 모두 공동체의 윤리를 강요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발화를 막고 감정까지 통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비판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급속히 추진된 경제 개발의 흐름에서 개인은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되는 존재가 된다. 최인호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제 개발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불안감과 공포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을 폭력적으로 해소하는 집단의 모습 과,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소수 개인의 문제를 소설로 형상화한다.

4장에서는 개인에게 닥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최인호가 시도한 문학적

작업을 살펴본다. 최인호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직접 사회적 기호들을 재현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개인의 모습을 구상한다. 그는 먼저 ‘더블 이미지’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단일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억압적인 사회 체제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을 서사화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후 1) ‘청년’이라는 기호를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정의하는 작업과 2) 국가가 국가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했던 ‘전진’이라는 표상을 ‘질주’ 표상으로 전복시키는 유희적인 작업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고는 최인호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이상적 개인이란 다음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집단과 대별되며 개체 간의 차이를 보존할 수 있는 개인,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무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개인, 더 나아가 자신의 내부에서 복수의/가변적인 정체성을 지니며 사회의 규범적 질서와 불화할 수 있는 욕망을 내재한 개인의 모습이다. 이러한 본고의 시도를 통해 그동안 단지 폐쇄적인 개인의 내면만을 그린 것으로 평가받아 왔던 최인호의 개인의식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석사학위 논문

손장순 문학 연구

이 지 현

2016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본고는 1960~1970년대 손장순의 작품을 통해 당대 한국 사회의 속물성과 서구적 교양의 관계를 젠더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작가의 개인적인 이력과 작품 속 여성인물의 유사성에 주로 착목하여 손장순을 ‘여류작가군’으로 분류하여 그의 작품세계가 지닌 면모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손장순은 여성이면서 작가인 동시에 지식인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가 지닌 지적 자원의 토양과 작가적 시각에 대해서는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손장순이 대학에서 불문학을 통해 습득한 서구 문화에 대한 지식, 취향, 기준 전반을 ‘교양’으로 규정한다. 이때 교양은 한국 사회에서 우월한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아비투스인 동시에 만연한 속물성에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자원이었다. 서구발 교양은 손장순이 급격한 변화와 발전 중에 있던 당대 한국사회를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하였다.

2장에서는 1950년대 후반 손장순의 초기 작품을 통해 서구적 교양에 기반한 새로운 여성 주체의 기획과 실패를 논하고자 한다. 초기 작품에서는 한국의 전후를 배경으로 직업을 가진 지적인 여성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반도호텔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과 사랑에 전념하였다. 당대 전후 사회에서는 이들 새로운 여성을 ‘아프레 걸’로 통칭하며 가부장적인 시선에서 비판하였다. 하지만 손장순은 작품 속 여성 인물을 통해 사회의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새로운 여성 주체를 기획하였다.

창작의 침묵을 거쳐 1965년에 발표된 일군의 단편을 통해, 손장순은 출세를 목적으로 삼으나 실패하는 속물적인 인간을 주인공으로 채택한다. 이 인물들은 교양이 없거나 교양의 겉모습만을 모방하는 공통점이 있다. 속물성의 발현은 교양의 원산지인 미국 출신의 인물도 예외일 수 없다. 이는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국적 자체가 교양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손장순의 1960년대 중후반 작품을 대상으로 당대 한국 사회의 속물성을 젠더적 관점에서 논한다. 「한국인」은 1960년대 초 급격히 변화한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젠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유학생의 표상이다. 유학생들은 ‘교양’이라 할 지성을 갖추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이하거나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불문과를 졸업한 주인공 희연은 가정에 헌신하길 바라는 미국 유학생 출신의 문휘와 갈등을 빚는데, 이는 실용적인 교양(Culture)이 한국에서 변질된 것을 전통적 교양(Bildung)의 시각에서 비판한 것이다. 손장순의 다른 작품에서는 선진국에서 생활한 후 귀국하여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인물은 겉으로는 서구적 교양을 추구하지만 그 자신이 가진 속물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

「공지」와 「세화의 성」에서는 서구 ‘교양’이 예술적 소양으로 구체화된다. 한 인물의 음악이나 미술에 대한 조예는 곧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이는 심미적인 가치의 추구로서 미적 모더니티라는 대안을 기획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양’을 갖춘 여성인물은 이러한 기획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감각을 지닌 상대에게 끌려, 결국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파국을 맞이한다.

4장에서는 손장순의 1974년 프랑스 유학 체험 후 집필된 기행문과 「우울한 빠리」를 통해 작가가 내적으로 도달한 탈식민주의적인 시각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처음 한국을 떠난 세계여행에서 작가는 제1세계에 대한 찬양

과 제3세계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의 편견을 드러낸다. 유학체험 후 집필된 「우울한 빠리」에서는 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던 한국인 여성 유학생 묘선이 프랑스, 알제리, 튀니지인과의 각기 다른 교류를 통해 자기 안에 내재한 식민성을 자각한다.

1970년대 후반의 작품들은 작가가 ‘이상향’으로 간주한 1세계를 대신할 새로운 ‘지향’을 탐색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타산」과 「골동품」에서는 금전으로 살 수 없는 무형의 가치를 간절히 추구하지만 그것의 획득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집필된 산악소설에서 작가는 사회로부터 거리를 확보한 자연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탐색하였다. 당대의 등반활동으로부터 취재한 산악소설에 등장하는 ‘히말라야’는 아직 인간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거대한 실체 그 자체로 형상화된다.

손장순은 ‘미적 모더니티’의 기획을 통해 교양 있는 여성 인물을 형상화함으로써 1960~70년대에 급격한 변동을 이룬 한국사회의 속물성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의 문학은 교양과 젠더의 관점에서 당대의 가부장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그의 교양은 제1세계 서구를 원산지로 삼는 것이었기에 필연적으로 서구중심적인 ‘식민성’을 내포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스노비즘’을 자각하지 못한 교양인이라는 표상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유학을 통해 손장순은 서구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교양이 가진 모순을 발견하였다. 이후 손장순의 문학은 산악소설을 통해 삶과 죽음의 존재론적 고민으로 옮겨가며 한국 사회의 속물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해방 후 최재서 문학비평 연구

노 민 혜

2016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성창

본고는 최재서가 문학의 보편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방 전후 그의 문학 활동에서 나타나는 연속과 단절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비평가로서 최재서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최재서는 문학이론서를 저술하고 셰익스피어를 번역 수용함으로써 한국문학에서 아카데미즘의 기반을 확립한다. 이러한 해방 후 최재서의 문학 활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고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최재서가 당대 한국문학장과 관련되는 양상을 다각도로 살핀다. 기존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해방 후 최재서의 문학 활동을 재구성하는 문학 적 전기의 방식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2장에서는 해방 후 변화된 한국문학장에서 최재서가 1930년대 문단에 배출하였던 전통론과 교양론을 다시 전개하게 된 계기와 그 의의를 고찰한다. 해방 후 대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그 이전 시기에는 주로 저널리즘의 영역에서만 논의되던 현대문학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다. 백철이 수용한 뉴크리티시즘은 분과 학문으로서 문학의 과학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문학이론의 수립에 대한 최재서의 의지는 한국문학에 전통이 부재하다는 그의 당대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문학사는 식민지시기를 기점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엇이 규정한바 지금까지 창작된 작품들이 형성하는 질서라는 의미에서의 전통으로부터 작가가 역사적 의식을 채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구의 교양을 도입하는 것은 전통의 부재를 돌파

해 나갈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재서는 서구 문학의 고전들로부터 문학의 이념형을 추출함으로써 부재하는 전통을 대신하고자 하였다. 교양은 잡다한 요소가 상호 조정되어 도달한 조화의 상태로, 최재서의 교양론은 당대 영국 사회의 속물주의에 대항하여 고대 그리스 정신의 고취를 강조한 아놀드의 교양론에 입각하여 혁슬리의 『연애대위법』을 교양인의 형상화로 재해석한다. 최재서는 조화와 완성을 목표로 삼는 휴머니즘의 정신이 현대에 요구되며, 이러한 휴머니즘에 근거하여 문학은 실재(reality)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함을 주장한다.

3장에서는 문학이 인생의 부분적인 진실이 아닌 전체적인 진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최재서의 리얼리즘을 염두에 두고 『문학원론』과 『셰익스피어 예술론』의 관계와 그 의미를 분석한다. 『문학원론』에서 최재서는 상상력을 중심으로 보편성의 의미망을 구축한다. 상상력은 자아를 객체로 인식함으로써 주체와 객체를 변증법적으로 합일시키는 정신 능력으로, 최재서는 이러한 상상력에서 시인의 개성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시인에게 내재하는 개성은 외재하는 매체인 언어와 투쟁을 벌인 결과 작품을 탄생시키는데, 문학은 언어의 배치를 통해서 통일성 속의 다양성이라는 미의 이념을 구현하고 이는 곧 진리의 현현으로 이어진다. 비극은 카타르시스라는 단일한 효과에 도달하는 완전한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와 진리를 표현하는 데에 적절한 장르이다. 1930년대 후반 문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편소설에 주목하였던 최재서는 해방 이후에 비극을 중요하게 논의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은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지성인 햄릿을 통해서 고귀한 인간성이 파멸하는 과정을 그린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성의 다양한 면모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진실을 다루며, 이로 인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읽힐 수 있는 보편성을 획득한다.

해방 후 최재서 문학비평은 ‘개성과 보편성의 조화’라는 문제의식에 꾸준히 천착했던 그의 문학적 행보를 보여준다.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으로서 현장 비평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해방 이전과 달리, 해방 후의 최재서는 대학의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시대 문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

있다. 그러나 최재서는 상상력과 언어를 중심으로 한 낭만주의 영문학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체계를 갖는 문학론을 구축하여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문학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던 1950년대 문학장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길항 관계 속에 한국문학이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최재서에게 있어서 문학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 당대에 대한 진단으로서의 비평, 서구문학을 발 빠르게 흡수 섭취하기 위한 번역이라는 세 가지 층위는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해방 후 최재서 문학비평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본고의 시도는 비평가이자 문학연구자이자 번역가였던 최재서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만들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오영진 시나리오의 재현 양식 연구

이 준 희

2016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본 연구는 오영진(1916~1974)의 시나리오에 나타나는 재현 양식의 특징과 그 변모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시나리오 창작 활동이 1950년대 이래 초기 한국영화계에 미친 영향과 그 선구성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 중후반 한국영화계는 유래 없는 영화 제작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나 외형적인 성장세와 달리 노골적인 상업화 경향 속에서 질적으로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흥행을 원하는 영화 제작자들의 압력 속에서 ‘스토리 위주의 시나리오’들이 양산되어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오영진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영화 예술의 다양한 재현 양식에 바탕을 둔 시나리오를 창작함으로써 한국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오영진은 전후 1950년대 한국영화계를 낙후된 기술력과 불충분한 설비 등으로 인해 해방기 이래 한국 영화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미국영화와 경쟁할 수 없는 불모지의 상태로 인식하면서, 시나리오의 질적 향상만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그는 동시기 세계 영화의 표준으로 여겨지던 고전적 할리우드 양식을 시나리오 창작에 도입한다. 해방 이전 발표했던 일본어 시나리오 〈ベベソイの巫祭〉와 〈孟進仕郎の慶事〉는 1950년대 중반 한국어 시나리오 〈배뱅이굿〉과 〈맹진사댁경사〉로 개작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장면들이 추가, 삭제 및 변형된다. 장면 구성이 바뀌고 분절된 장면들을 이음매 없이 연결하기 위해 외화면 음향, 팬(PAN), 크로스

커팅 등의 영화 기법들이 사용되면서 사건의 인과적 개연성 및 연속성이 강화된다.

오영진의 희곡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를 개작한 시나리오 〈인생차압〉 역시 고전적 할리우드 양식의 영화문법을 충실하게 따른다. 희곡에서 고정 무대로 제시되었던 이중생의 가옥은 시나리오에서 세부적인 공간으로 분할 되는데, 이때 각 공간에 대응하는 장면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화 기법들이 사용된다. 한옥이라는 반(半)개방, 반(半)폐쇄의 특수한 공간 구조는 소리나 인물의 시선을 매개로 장면과 장면이 연결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작품 결말부에서 사용되는 시점 쇼트와 반응 쇼트의 반복적인 병치는 관객들이 등장인물의 감정에 동일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영화 기법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극중 사건의 전개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오영진은 고전적 할리우드 양식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하에 시나리오를 개작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에서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시나리오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여겨져 왔던 인과성 없는 이야기 구조, 동기가 결여된 반전 등 스토리 위주의 시나리오가 갖는 형식적인 미숙함을 극복한다. 하지만 오영진은 형식과 기술의 측면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장점은 배우되, 상업주의에 경도된 미국식 영화 제작 관행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

전후 한국 사회에서는 미소 대립으로 상징되는 냉전체제의 긴장감 아래 실업과 빈곤, 가치관의 혼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파생된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한국영화계는 이러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멜로드라마 또는 희극 영화들이 주류를 이룬다. 오영진은 한국영화계의 현실도피적인 경향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당대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코리안 리얼리즘’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 작품 테마의 변화는 다큐멘터리 양식에 기초한 다양한 영화 기법들이 시나리오 창작에 도입되는 결과를 낳는다. 오영진은 〈종이 울리는 새벽〉에서 자막, 실사의 기록영상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던 실제의 역사적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또, 그는 시나리오

〈하늘은 나의 지붕〉에서 전쟁고아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재현하기 위해 설정하는 전후 1950년대 서울 도심의 거리와 뒷골목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다. 특히 지문묘사에 사용된 스크린 이미지를 고려한 룻쉴, 장면 깊이, 룻테이크 등의 촬영 지시는 행위의 시공간적 통합성을 존중하는 유성영화의 편집 방식인 테쿠파주의 기법들로, 관객들의 능동적인 인지적 참여를 이끌어낸다. 이와 같은 오영진의 시도는 1950년대 중후반 한국영화비평계의 ‘코리언 리얼리즘’ 담론과 같이 네오리얼리즘의 미학을 관념론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고전적 할리우드 양식의 전형성에서 벗어난 대안적 영화 양식을 모색하고자 했던 오영진의 시도는 1960년대 한국영화인들의 미적 근대화에 대한 욕망과 맞물려 있다. 오영진은 시나리오 〈꿈〉에서 충돌 몽타주, 내레이션과 시각적 이미지의 병치 등을 통해 등장인물의 내면심리를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모색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식적 실험은 리얼리즘 영화의 제작조차 도전적인 시도로 여겨지던 1950년대 후반 한국영화계의 현실에서 다소 실험적인 것이었기에, 시나리오 〈꿈〉은 1967년이 되어야 비로소 영화화된다. 1960년대 중후반 무렵에 이르면 소위 ‘문예영화’로 지칭되는 예술영화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제작된 문예영화 작품들은 유럽 모더니즘 영화의 기법을 모방하며 형식적 미숙함을 보이거나 형식 실험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한계를 보인다. 오영진은 시나리오 〈한네의 승천〉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한다. 그는 이 작품에서 부락제, 탈춤 등 한국의 전통적 소재와 함께 한국적인 미의식인 한(恨)과 불교적 윤회의 세계관을 현대적인 영화 양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회상장면의 삽입, 극중 현재와 극중 과거 시간의 중첩, 원환적(圓環的) 순환 구조 등 전위적 시간 구성 방식을 통해 고전적 내러티브 구조를 해체하고자 한 시도는 1960년대 중후반 문예영화의 미학적 한계를 극복한 현대적인 영화의 실험이었다. 특히 극중 과거의 사건이 극중 현재의 사건 안으로 투입해 들어오는 ‘시간의 혼성’이라는 감각적 불일치의 경험은 관객들로 하여금 드라마의 충위를 이중으로 보게 함으로써 재현된 대상과 거리를 두고 예민한 미적 통찰을 하게

만든다.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시간성의 모호함과 불확실함은 인지적 혼란을 불러오지만, 역설적으로 이를 통해 관객들은 극중 사건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오영진은 다양한 재현 양식의 시나리오 창작을 통해 산업적·기술적으로 열악했던 초기 한국영화계의 제작 환경을 극복하고 한국영화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했다. 그가 초기 시나리오 작품들의 개작 과정에서 고전적 할리우드 양식의 영화문법을 도입한 것은 일제시대 이래로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스토리 위주의 시나리오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다큐멘터리적 수법을 사용한 리얼리즘 양식, 한국적인 소재와 전위적인 형식 실험을 결합하고자 한 모더니즘 양식의 시나리오 창작은 고전적 할리우드 양식의 전형성에서 벗어난 현대적인 한국영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와 같이 영화예술의 다양한 재현 양식에 기초하여 한국 시나리오 예술의 전범(典範)을 제시하고자 했던 오영진의 창작 여정은 외형적인 성장에 머물러 있던 초기 한국영화계의 진정한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망부석 전설 연구

양 이 문

2016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현설

본고는 망부석 전설 전승을 유형별로 고찰하고 그를 바탕으로 ‘치술령 유형’에 나타난 박제상 아내의 신격화 양상과 신화적 담론 형성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망부석 전설이 지닌 문학사적 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망부석 전설의 구비전승 자료를 정리하였다. 기존에 채록된 자료 20편 이외에 직접 현지답사를 통해 채록한 자료 6편을 추가하여 총 26편의 망부석 전설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 26편을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II장에서는 자료를 개관하고 유형을 분석하였다. 1절에서는 본고의 직접적인 연구대상인 26편의 자료뿐만 아니라 이 전설과 연관된 문헌 자료 5편을 바탕으로 구비전승과 문헌전승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박제상에 관한 이야기는 문헌주도형에 해당되고, 박제상 아내에 관한 이야기는 구비주도형에 해당된다. 아울러 문헌전승의 외부에서 구비전승의 영향력에 의해 또 다른 형상이 구축되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2절에서는 5편의 문헌기록 자료와 중국 무창(武昌) 망부석 관련 문헌 자료의 창작시기, 시대적 배경,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박제상이 등장하지 않는 망부석 전설이 원형이고, 박제상이 등장하는 망부석 전설이 그 변이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전승 지역, 전승력, 본고의 연구 초점 등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전자를 ‘비치술령(非鵲鵲嶺) 유형’으로, 후자를 ‘치술령(鵲鵲嶺) 유형’으로 명명하는

한편 망부석 전설의 유형 화소를 별부(別婦), 망부(望夫), 변형(變形)의 세 가지로 정리하여 치술령 유형은 비치술령 유형에서부터 화소에 대한 수용과 변용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변이되었다고 보았다. 이어서 유형별로 서사 단락, 증거물, 화소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망부석 전설의 전승 양상을 밝히기 위해 유형별 화소의 전승 양상과 의미를 ‘별부(別婦)’, ‘망부(望夫)’, ‘변형(變形)’의 순서로 분석했다. 치술령 유형과 비치술령 유형의 공통점은 ‘망부(望夫)’와 ‘화석(化石)’ 화소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화석’은 돌의 생식력, 신성성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돌과 여성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별부(別婦)의 이유와 변형(變形)의 결과에 있어서는 두 유형간 차이가 있다. 남편이 박제상이라는 역사적 인물인가의 여부에 따라 별부의 이유가 국사 수행과 생계 도모로 다르게 나타난다. 아울러 변형 화소와 관련해서는 비치술령 유형의 경우 새 변형이 등장하지 않는 반면, 치술령 유형에서는 새 변형이 심지어 돌 변형보다도 더 많이 등장한다. 따라서 치술령 유형에서 새 변형이 등장하게 된 이유, 새 변형에 나타난 두 번의 변이 과정, 그리고 새 변형 자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치술령 유형의 결말 부분에서 여성 주인공이 신모로 추앙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망부석 전설이 본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전승되다가 치술령 지역에서 역사인물 박제상 일가의 행적과 결부되어 새로운 유형을 파생시켰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치술령 유형은 비록 변이형에 해당되지만 원형보다 이야기가 풍부하고, 전승력이 강하며, 무엇보다 주인공이 신앙의 대상으로 승격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망부석 전설 유형이라 할 수 있다.

Ⅳ장 1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치술령 유형에 나타난 ‘박제상 아내의 신격화’ 과정을 ‘국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박제상 아내가 치술신모로(鵲鵲神母) 신격화 된 것은 우선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박제상 아내의 열녀 형상이 유교 이념에 부합함에 따라 지배층의 환영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 볼 때 박제상 아내의 신격화는 그녀의 한(恨)

에 대한 민간의 공감과 각종 관련 전설, 민간 신앙 특히 바위 신앙, 산신 신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2절에서는 치술령 유형에 나타난 신화적 담론의 형성을 ‘신성성의 획득’과 ‘신화적 세계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박제상 아내는 신성한 돌새로의 변형과 신모로의 신격화를 통해 신성성을 획득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박제상 아내가 죽은 후 신모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면 그는 세계의 횡포에 좌절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초월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본고의 연구를 통해 망부석 전설이 전설의 장르를 누리면서도 신화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석사학위 논문

「오누이 힘내기」 설화 연구:

담론 층위를 중심으로

김 준 희

2016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현설

본 논문에서는 「오누이 힘내기」 설화를 공모형과 희생형으로 나누어 화자들의 실제 담론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의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서사 내용보다는 실제 담론 층위를 주목하여 설화가 전승 주체인 화자들에 의해 어떻게 표현되고, 전승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II장에서는 자료를 개관하고 유형을 설정하였다. 「오누이 힘내기」는 어머니와 누이라는 두 ‘여성’을 주체로 삼으면 공모형과 희생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어머니가 누이를 방해하는 유형이고 후자는 누이가 스스로 희생하는 유형으로, 두 여성의 공모와 희생이 누이를 제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 공모와 희생은 서사상으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만 연행상으로도 화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사건이다. 공모형과 희생형은 주요 전승 지역, 전승 형태, 전승 집단의 성별 구성 등에 있어서도 대조를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인물’, ‘증거물’, ‘후일담 혹은 관련 삽화’의 분석 준거를 통해 공모형과 희생형의 형상화 방식을 논의하였다.

먼저 공모형의 인물 구성과 관련하여, 화자에 의해 인물의 행위가 동기화되고 어머니와 누이의 대립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한편 내면 심리가 제시되는 등 인물과 사건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양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때 어머니의 행위가 동기화되고 내기의 배경이 제시되면서 외부 환경과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또한 공모형에는 비교적 다양한 증거물들이 분산적으로 제시된다. 공모형은 각종 성·탐·다리를 기본 증거물로 하여 전승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누이의 죽음과 관련된 무덤, 바위 등의 추가 증거물이 나타난다. 한편 이몽학, 임연 등의 역사인물이 오라비로 등장하면서 ‘인물 증거물’이 되기도 하지만 인물의 역사적 사실과 함내기 이야기의 관련성은 비교적 약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공모형은 내기 이야기 뒤에 후일담이 붙어 각편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 공모형의 후일담들은 누이의 억울한 죽음, 어머니와 오라비의 비극적 최후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대부분 본담에 계기를 두며 추가 증거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라비의 역적담은 오히려 ‘어머니-오라비(아들)’ 모자지간 혹은 ‘오누이 가족-국가’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다.

반면 회생형의 경우, 먼저 인물 구성을 살펴보면 모든 각편에서 오누이가 ‘누나와 남동생’으로 나타나는데 두 사람은 주로 ‘힘과 지혜가 우월한 누나-오만하고 폭력적인 남동생’이라는 대조적 모습을 보인다. 이때 화자들의 관심은 주로 누나에 있으며 누나의 눈과 목소리를 통해 작중 상황이 묘사전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남동생을 위해 스스로 패배를 선택한 누나의 선택과 그의 퇴장 또한 당연시된다. 각편에 따라서는 누나의 죽음이 생략되거나 화자의 개인 해석에 따라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회생형의 증거물은 인물 증거물에 대하여 구심적으로 제시된다. 회생형은 주로 김덕령·이방실·임경업·정여립·송팔영 등의 남성 역사 인물들을 중심 증거물로 하여 전승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본담에서 ‘작중 인물’로 형상화되는 남동생과 인물 증거물로서 형상화되는 역사인물의 이미지가 균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화자들은 ‘남동생’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면서도 ‘김덕령’에 대해서는 연민과 존경의 태도를 보인다. 회생형에도 추가 증거물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역사인물을 보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누나와 관련된 추가 증거물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 회생형에서는 주로 남동생 인물과 관련된 삽화가 본담의 앞뒤에 결합하여 각편을 확장시키는 양상이 관찰된다. 삽화들은 인물을 재해석하기보다는 인물의 고정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충실하다. 삽화들은 본담과의 인과 관계 혹은 계기성보다는 인물이야기 전체의 구성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남동생 인물 중심의 전승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Ⅲ장의 형상화 방식 논의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유형별 전승 의미와 유형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공모형과 관련하여 우선 어머니와 지배 질서를 통해 누이 제거가 정당화되지만 동시에 그에 반발하는 균열적 지향이 함께 발견된다. 대리인 어머니 그리고 남성 지배(가부장제) 질서와 국가 권력에 의해 누이의 제거는 효과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누이의 죽음을 석연치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를 연민하는 화자들의 인식이 분명히 확인된다. 이는 남성 지배 질서와 국가 권력에 대한 반향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며, 누이에 대한 연민과 근친 살해에 대한 금기 의식 등이 표출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균열’의 징후는 구체적으로 어머니 및 누이에 대한 여성 화자의 연민, 실패한 오라비 장수에 대한 반감 표출, 모성의 이상성 파괴 등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균열적 지향이 완전한 ‘탈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누이에 대한 화자들의 연민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누이 제거를 정당화하는 지배 질서의 완전한 전복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또한 누이 제거의 근본적 배후가 되는 남성 지배 질서는 국가 권력에 비해 보다 ‘자연적’인 질서로 표현되며, 여성 화자들의 연민 및 공감에는 가부장제 내 어머니와 누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 수행이 착종되어 있다.

다음으로 희생형과 관련해서는 역사인물을 통해 누나 제거가 정당화되면서도 누나에 대한 굴절된 이상화가 이루어지는 역설이 주목된다. 남동생은 본담에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됨에도 인물 증거물로서는 전승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희생형의 주요 역사인물들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실제 반역을 일으킨 것은 아니며 사후 국가로부터 ‘진정한 충신’으로 인정받은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전승담당층의 지지는 오히려 지배 체제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지에 역사인물을 ‘억울하게 죽이지 않았을’ 국가 권력에 대한 ‘환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이 희생형 누나에 적용될 경우, ‘살아서 김덕령을 도와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어 줄 수 있었지만’ ‘결코 김덕령을 이겨서는 안 되는’ 역설이 투영된 ‘이상적 여성상’을 낳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누이 힘내기」라는 하나의 설화 안에서 공모형과 희생형이 맺는 관계 및 유형의 변모에 대해 살폈다. 먼저 공모형 누이의 ‘축조’가 희생형 누나의 ‘직조’로 변한 것을 지리산 선도성모/마고할미와 무가 「성주본가」의 황우양씨 부인의 전변과 연결시켜 이해하였다. 남편과 옷의 존재가 마고할미와 황우양씨 부인의 변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점에 착안하여 누이 형상의 전변에도 역사적 남성 영웅 오라비의 존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그러나 희생형의 파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역사인물의 존재 자체보다는 애국 행위와 억울한 죽음 등을 통해 강력한 증거력을 보유하게 된 역사인물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공모’와 ‘희생’의 주체가 되는 두 여성 인물, 어머니와 누나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희생형에 이르러 여성 인물에 대한 담론이 상당 부분 단일화됨을 지적하였다. 공모형의 어머니는 누이의 간접적 살해자나 다름없지만 동시에 존재 자체가 지배 담론의 균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희생형에서는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아예 사라져 있고, 누나의 제거는 보다 무리 없이 긍정된다. 대신 희생형 누나에는 공모형 어머니의 모습이 상당 부분 흡수되어 있으며, 누나의 패배에 대한 화자들의 인식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석사학위 논문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와 죄의식 연구:

‘언캐니(uncanny)’ 개념을 중심으로

유 예 현

2016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종욱

본 연구는 최인훈 문학 세계에 산재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구명되지 않았던 공포의 감각에 주목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라는 감정이 역사·사회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미학적 감수성(aesthetic sensibility)의 형식’, 즉 미학의 토대였음을 밝히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공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의 미학과 윤리적 차원을 구명하고자 한다.

최인훈 문학에는 공포라는 감수성의 형식이 거듭 나타나고, 작가는 이를 사회적 의미 인식의 필수적인 연결고리로 삼았다. 최인훈 소설의 주체가 체험하는 감정의 주된 특징은 기시감, 반복, 죽은 자의 귀환, 분신 등과 관련된 공포이다. 이러한 요소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미학적인 범주로 구상한 ‘언캐니(uncanny)’ 개념의 주요한 속성이다. 따라서 그것은 최인훈 문학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의 소설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유효한 개념이 된다. 또한 이 개념을 통해 최인훈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환상성’, ‘반복’, ‘기억’ 등으로 분리되어 연구되었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최인훈 연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던 ‘미이라’와 ‘드라큘라’ 모티프의 의미를 고찰한다. 최인훈은 초기 단편소설에서부터 기시감이

유발하는 공포의 감각을 형상화했지만, 『구운몽』에 이르면 무한한 반복과 기괴함이 두드러진다. 최인훈은 이 작품 이후 고전 서사 양식을 차용한 글 쓰기를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당대 전통담론과 일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서구적 전통과 과거에 고착된 전통 모두를 낫설게 바라보았다. 이 작품에서 그는 매끄럽게 연속된 ‘전통’이라는 환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 역사의 특수성과 그 조건을 직시하고자 했다. 『광장』과 『구운몽』에 나타난 ‘미이라’는 역사에서 은폐되고 망각된 존재이며, 이것의 출몰은 역사의 ‘괴기함’ 자체를 마주하고, 그 조건을 탐색하도록 이끈다. 『회색의 의자』와 「귀성」은 한일회담이 제기한, 식민지 기억과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회색의 의자』에서 최인훈은 ‘드라큐라’를 ‘토착신’으로 전유하며, 여기에 당대 한국사회에서 ‘악마화’되었던 간첩의 존재를 겹쳐놓았다. 이를 통해 작가는 식민주의와 냉전체제에 의해 ‘학살’된 존재를 텍스트에 기입하며, ‘자주’보다는 경제적 ‘자립’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진정한 과거 청산을 이룩하지 못한 현실을 은밀히 폭로한다.

한국적 근대와 역사의 특수성에 대한 자각은 당대 금기와의 연관성 속에서 심화된다. 3장에서는 당대의 금기와 그것의 위반, 그리고 당대적 공포의 반복적 재현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한다. 최인훈은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에서 일상적 시간이 단절되어버린 통행금지제도에 주목한다. 소설 속 인물은 통행금지라는 금기를 위반하고 주변부 근대도시 서울을 반복적으로 산책한다. 이 소설은 이상의 「날개」를 패러디하여 그 핵심을 포착하고 계승하면서도, 산책을 통해 경성 식민지와는 또 다른 당대적 진실들을 포착한다. 「크리스마스 캐럴 5」의 「나」는 「날개」의 「나」와는 달리 4·19 혁명과 관련된 한국은행 로터리를 끊임없이 가로지른다. 또한 서술자는 ‘괴상한 의식’을 형상화함으로써 5·16이라는 또 다른 혁명을 관통하면서 배반된 4·19 혁명을 소환한다. 『총독의 소리』와 「주석의 소리」 연작의 한국을 떠도는 식민지의 망령의 소리는 재식민화의 공포와 관련된다. 최인훈은 『총독의 소리』와 「주석의 소리」 연작에서 초점화된 인물인 ‘시인’에게 유독 예민하게 듣는 행위와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불온한 것들을 상상하는 방식을 형상화하였다. 작가는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총독의 소리’와 잠음을 예민하게 듣는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당대 시점에서는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행위에 대한 은밀한 욕망을 표출한다. 아울러 고통스럽고 예민하게 잡음에 귀 기울이는 시인이라는 존재에는 예술가와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다 하고자 다짐하는 최인훈 자신의 모습이 겹쳐져 있다.

4장에서는 최인훈 문학에서 감지되는 ‘언캐니’한 공포의 기원을 탐색하고, 그것이 책임 윤리 및 죄의식과 관련되는 양상을 고찰한다. 최인훈의 초기 단편인 「우상의 집」, 「가면고」에 나타난 죽은 타자에 대한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죄의식은 『회색의 의자』와 「귀성」 등에서는 세계 내 존재로서 ‘부끄러움’을 수반한 연대 윤리에 대한 모색으로 변모된다. 또한 최인훈은 정치적 책임을 증언하고 기억하는 일이 ‘불온’으로 여겨졌던 당대 사회를 공포의 감각을 통해 포착하였다. 소설 『태풍』과 희곡 「한스아 그레텔」 창작을 통해 최인훈은 과거 청산과 증언의 윤리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나 면죄가 아니라 가해자의 얼굴에 인물을 겹쳐놓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죽은 자와 죄의식을 소환하면서 다시 쓰기를 반복했던 그의 글쓰기는 행간에 금기를 품은 증언 윤리의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인훈 소설에 나타나는 공포와 죄의식의 특징들은 한국적 근대의 주변부성과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또한 그의 문학적 도정은 그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예술가로서 증언 윤리의 실천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공포라는 미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주변부 근대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전통과의 단절, 역사에 대한 망각을 끊임없이 환기하는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했다. 따라서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공포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미학과 윤리성을 조망하려는 본고의 시도는 작가 최인훈과 그의 작품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 약어 유형에 대한 연구

임 옥 정

2016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기존 연구에서 형태론적 삭감이 적용된 약어의 하위 유형에는 줄곧 두음절어와 절단어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용례를 살펴보면 약어 중에는 두음절어와 절단어라는 개념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으므로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 온 약어의 개념뿐만 아니라 약어의 하위 유형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약어의 하위 유형의 정의 제시에서, ‘단순화’라는 개념을 따라, 즉 약어의 각 하위 유형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정의가 단순히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두 가지 이상의 경우에 동시 적용되는, 애매모호하며 복잡한 상황을 피해야만 사람들이 이 정의를 보고 약어의 어떤 하위 유형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원래 한국어 약어 관련 기존 연구에 없는 ‘축합어(縮合語)’와 ‘절취병합어(截取併合語)’라는 유형 명칭을 새로 설정하였다. 그 중 ‘축합어’라는 용어는 중국어 축약어(縮約語) 유형 중의 하나인 ‘축합식 약어’를 참고하여 한국어 실제 약어 현상에 맞춰서 설정한 것이다. 여기서 ‘축합’은 한자어 ‘縮合’을 일컫는 것으로, 그 뜻은 ‘축(줄어들)’과 ‘합(합해짐)’으로 이루어진, 즉 ‘줄어들어 합해진다’라는 것이므로 약어의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가장 중립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에서 ‘약어를 이루는 대표 음절(대표자)을 취하는 위치’에서는 늘 두음절어(acronym)와 비교를 이루지만, 공식적인 명칭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복잡한 이 약어 유형을 본고에서는 ‘축합어’라고 칭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절취’+‘병합’으로 이루어진 약어를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용어가 없으므로 역시 설명하는 데 통일되지 못한 이 약어 유형에 대해, 이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은 한국어에 적합하지 않은, 주로 영어에서 사용하는 ‘절단합성어’라는 용어를 참고하여, 한국어 실제 약어 현상에 맞춰서 ‘절취병합어’를 새로 명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설정한 이 ‘축합어’ 및 ‘절취병합어’는 기존 연구에서 서로 다르게 이루어진 약어에 대해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서 다루고 있어 온 통일되지 않으며 복잡한 현상을 밝히는 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외에, 기존 연구 중에는 약어가 약어 인접 범주에 속한 유형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약어와 비(非)약어의 유형들을 명확하게 구분한 연구의 수가 많지 않다. 이 점에서 본고는 기존 연구와 다른 약어를 구별하는 방법과 약어를 분류하는 방식을 새로 제시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김원일·이문구 소설에 나타난

고아의 형상화 연구:

민주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 소 영

2016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손유경

이 글은 산업화 시기의 소설에서 ‘고아’와 ‘소년’의 실체와 기원을 찾으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1970년대 이후 한국문학사와 ‘근대성’의 관계는 중요한 주제였다. 이때 ‘고아’와 ‘소년’은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설명하는 열쇳말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문학연구에서는 김윤식의 연구를 시작으로 형성된 ‘고아’와 ‘소년’의 계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본고는 이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문학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고아’와 ‘소년’에 대해 메타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에서는 ‘고아’와 ‘소년’을 일종의 ‘메타포(metaphor)’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상되는 ‘고아’와 ‘소년’의 의미를 근대성이라는 한 단어로 수렴하지 않고, 각 시대의 갈망을 드러내는 복수의 메타포 중 하나로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산업화 시기의 ‘고아’와 ‘소년’을 탐구함에 있어서 근대성의 맥락을 한 편에 접어두는 대신 1960~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었던 ‘민주주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아’는 보통의 아이들과 달리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초적인 자유의 의지를 침해받지 않은 존재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적 인간의 표

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기 민주주의와 ‘고아-소년’의 상관관계를 보다 실증적으로 재구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념을 연결고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때 ‘시민’은 4.19에 연원한 개념이었다. 4.19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의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채워야 할 역사적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박정희 정권에서는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를 창안하였다. 그러나 ‘민주시민’은 반공주의와 가족주의에 근거한 개념이었다는 점에서 ‘소시민’의 의미에 가까웠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시민’ 개념에서 ‘고아-소년’을 배제하였다. 이 사실은 고아입양특례법의 제정과 가족법과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서 증명된다. ‘고아-소년’이 ‘시민’ 개념에서 제외되고 있던 현상은 당대 문학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19세대에게 ‘고아’란 교양을 갖춘 개인이자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을 드러내는 표상일 뿐, 그들은 역사에 실재하는 타자로서 ‘고아’를 사유하지 않았다. 이때 1966년에 등단한 김원일과 이문구는 당대 사회에서 ‘고아-소년’이 핵가족 담론과 시민 담론에서 배제되고 은폐된 사실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4.19세대의 고아의식 과도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이들의 소설은 ‘고아-소년’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원일과 이문구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들은 공산주의와 관계한 아버지의 이력 때문에 반공주의와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권의 ‘한국적 민주주의’에서 소외되어 있는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소외된 존재를 재현하기 위해 ‘고아’를 활용하였으며, ‘고아’를 통해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김원일과 이문구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아’와 ‘민주주의’에 대해 탐구하려는 본고의 작업은 ‘고아’의 의미를 식민지 근대성으로 환원하는 기존 연구 시각과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1960~1970년대의 민주주의를 오염된 민주주의로 단정하는 관점과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사에서 ‘고아’와 ‘민주주의’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고의 2장에서는 김원일과 이문구의 소설에서 나타난 ‘고아’의 형상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실재하는 타자’로서의 고아를 밝힌다. 구체적으로는 1960~1970년대 언론과 대중문화에

서 재현된 ‘고아’의 모습과 ‘소시민’ 혹은 ‘시민’의 당대적 의미를 논하였다. ‘고아-소년’은 당대 언론에서 주로 범죄와 연관되면서 공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나, 대중문화에서는 ‘소년 가장의 신화’를 보여주는 소재로 활용됨으로써 연민을 자아내는 존재였다. 한편 ‘시민’ 또는 ‘소시민’은 시민 아파트로 표상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건강하고 명량한 소시민적 가정을 환기하는 용어들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대중은 ‘시민’ 또는 ‘소시민’이 되기를 욕망하고 있었다. 이때 김원일과 이문구의 소설에 표상된 ‘고아-소년’은 4.19 혁명 당시 폭력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의 ‘(소)시민’ 되기라는 과업에서 배제된 존재들이었다.

이러한 차원을 염두에 두면서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김원일과 이문구의 소설에서 ‘고아’와 ‘소시민’ 혹은 ‘시민’의 재현 양상을 통해 ‘민주주의’의 문제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김원일의 소설을 중심으로 ‘고아’가 핵가족 담론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비판을 제기하였는지를 살폈다. 이는 가상의 ‘가족’을 상상하며 허구의 서사를 만들거나 ‘고아의 폭력’이라는 형태를 통해 제시되었다. 아울러 재현될 수 없는 존재인 ‘고아’를 형상화하기 위해 김원일이 시도하였던 미학적 실험들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김원일은 고아의 육체를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신체의 일부인 ‘손’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작품과 확연히 구별되는 이채로운 글쓰기를 선보였다. 이를 종합했을 때, 김원일에게 ‘고아’는 어떠한 공동체에도 귀속되지 못하는 단독자이자, 완전한 육체를 구성할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고아’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 기입되기 위해서는 집단성을 획득해야만 했다. 그러나 김원일은 고아를 집단성에 쉽게 포섭하지 않으며, 고아와 집단성 사이에 긴장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의 역사소설에서 ‘고아’는 보수성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4장에서는 이문구의 소설을 중심으로 표상될 수 없는 존재인 ‘고아’를 재현 체계에 옮기려는 이문구의 미학적인 기도를 탐구한다. 이는 ‘고아의 죽음’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아’가 시민 되기에 실패한 자로서 박정희 정권의 상징 질서에서 죽어 있는 존재였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문구 소설에서 ‘고아’는 ‘죽음’을 벗어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다. 이문구는

‘고아의 죽음’을 형상화하는 데에서 머무르지 않고, ‘시민’되기의 실패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이어 나간다. 이문구는 4.19혁명 당시 잠시나마 찾았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였다. 그의 치열한 사색은 개념 자체에 대한 재사유를 촉진하였는데, 이를 ‘4.19적 사고’로 개념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문구는 당대 비평장에서 4.19의 정신을 계승할 혁명 주체로 지목된 ‘소시민’과 ‘민중’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보통사람’이라는 용어를 통해 ‘소시민’과 ‘민중’의 관념성을 폭로하였다. 나아가 그는 ‘고아’가 혁명 주체가 될 가능성을 따져 보았다. 이때 ‘고아’는 단지 폭력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매듭짓는 존재이다. 이 점은 죽음 앞에서 개인의 평등을 민주주의의 대전제로 사유했던 이문구의 시선이 반영된 것이다.

본고는 박정희 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와 4.19세대의 ‘민중적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산업화 시기의 민주주의를 정리하는 단선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이 격돌하던 시기로 1960-1970년대를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때 ‘고아’와 ‘부성(父性)’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사유하였을 때, 박정희 정권과 4.19세대는 스스로를 고아로 인식하면서 부성이 되기를 꿈꿨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김원일과 이문구는 부성이 부재한 상태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들은 부성이 없는 민주주의를 꿈꾸는 고아들이었다. 김원일과 이문구는 어떠한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 진정한 개별자들이 모인 아나키즘적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栗谷全書』에서 배제된 李珥 한시 연구

이 한 석

2016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종묵

본고는 『栗谷全書』에서 배제된 栗谷 李珥(1536~1584)의 한시에 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李珥 한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栗谷全書』에서 배제된 작품이 그에 수록된 작품과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립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고는 적지 않은 李珥 한시가 『栗谷全書』에 수록될 수 없었던 원인으로서는 조선후기의 정치적 갈등을 살펴보고, 『栗谷全書』로부터 배제된 한시의 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제II장에서는 李珥의 여러 문집들이 편찬된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았다. 『栗谷全書』 이전에 간행된 문집들에 수록된 자료들이 『栗谷全書』에 흡수되는 비율을 따져본 결과, 朴世采가 편찬한 李珥 문집들에 수록되었던 자료들의 일부만이 『栗谷全書』에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栗谷全書』를 편찬할 때에 편찬자인 李縉가 李珥에 대한 宋時烈的 입장을 이어받아 朴世采의 인식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III장에서는 정치적 맥락에서 『栗谷全書』 편찬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제1절에서는 우선 李珥를 둘러싼 西人과 南人の 정치적 갈등을 살펴보았다. 南人으로부터 李珥를 옹호하기 위해 宋時烈을 비롯한 西人은 李珥의 학문적·정치적 공효를 강조하고 李珥로부터 禪學의 혐의를 벗겨내려고 노력하였다. 18세기의 李縉 역시 宋時烈의 인식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栗谷全書』

가 南人의 비판으로부터 李珣을 옹호하는 문집임을 알 수 있었다.

제2절에서는 西人 내부의 정치적 맥락에서 『栗谷全書』의 편찬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朴世采는 宋時烈의 인식이 가지는 약점을 노출했으나, 西人의 집권을 배경으로 宋時烈의 인식은 定論으로 공인되었다. 그 이후에 편찬된 『栗谷全書』는 朴世采의 異見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배제함으로써 宋時烈의 인식을 西人 내부의 定論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栗谷全書』로부터 배제된 李珣 한시의 모습은 제IV장에서 살펴보았다. 『栗谷全書』에 수록되지 못한 작품들 중에서도 제1절에서는 『栗谷全書』 편찬 이전에 이미 李珣 문집에서 배제된 작품을, 제2절에서는 『栗谷全書』 편찬 과정에서 李緯에 의해 배제된 작품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栗谷全書』의 편찬 이전에 배제된 한시는 확인되는 수가 적지만, 승려 경험 및 여성을 대하는 문제적인 태도 등 당대 규범을 벗어난 일탈의 행적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南人의 비판에 취약한 李珣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 때문에 일찍부터 문집에서 배제되었다.

다음으로 『栗谷全書』 이전에 편찬된 李珣 문집들에는 수록되어 있었음에도 『栗谷全書』에서 배제된 작품들로부터는 放達의 미학을 읽어내었다. 『栗谷全書』에 수록된 작품과 달리 그로부터 배제된 작품들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산수에 숨겨져 있는 탈속의 세계를 지향하는 방식, 질탕한 음주의 장면을 통해 탈속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방식 등으로 放達의 미학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미학은 대체로 李珣가 젊었을 적에 창작한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가 관직에 나아가게 된 이후로는 차츰 약해지는 면모를 보였다. 放達의 미학을 보여주는 작품은 異端과의 절연 및 학자로서의 차분한 모습 등 宋時烈이 내세운 李珣의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栗谷全書』로부터 배제되었다.

석사학위 논문

‘自+X’와 ‘本+X’의 문법에 대한 연구

吳 昊(오호)

2016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본고는 현대 한국어에서 한자어 ‘자(自)’와 ‘본(本)’으로 시작하는 2자 한자어 ‘自+X’와 ‘本+X’의 문법을 살펴본다. ‘自+X’, ‘本+X’의 어원, 내부 문법과 외부 문법의 분석을 하고 ‘自’, ‘本’과 관련되는 재귀성, 지시성 등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에서 쓰이는 대부분 ‘自+X’의 어원은 고전 중국어이다. ‘자국(自國)’, ‘자당(自黨)’, ‘자사(自社)’처럼 ‘自’와 명사적 어근의 결합은 대개 일본어에서 유래한다. 한문 문법의 층위에서 보면 많은 ‘自+X’의 X가 동사인 것이 ‘自+X’의 특징이다. X가 동사인 경우에 ‘自+X’의 내적 구성은 목술구성(예: 자살(自殺))과 부술구성(예: 자각(自覺))이 있고 X가 동사 아닌 경우에 ‘自+X’의 내부 구성은 병렬구성(예: 자아(自我)), 어근접미사구성(예: 자연(自然))과 형명구성(예: 자가(自家))이 있다. ‘自+X’의 외부 문법을 분석해 보면 ‘自+X’는 강한 조어력을 가진다. 또한 ‘自+X’의 재귀성은 ‘自+X’의 X가 동사인 경우와 명사인 경우에 각각 재귀적 행위를 표상하는 동기와 3인칭 대명사가 지니는 중의성을 해소하는 동기로부터 생겨난다.

대부분 ‘本+X’의 내부 구성은 형명구성으로, 이 구성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가(本家)’류의 ‘本’은 ‘근본이 되는’, ‘본래의’의 뜻이고 ‘본고(本稿)’류의 ‘本’은 말하는 이의 편에서 ‘이’의 뜻으로 쓰여 관형적 성격을 지닌 어근으로 볼 수 있다. ‘本+X’의 외부 문법을 분석해 보면 한자 1자 ‘本’은 ‘自’와 달리 독립적인 단어이고 명사나 관형사로 쓰일 수

있다. 또한 ‘本’은 접두사이고 한자어, 고유어나 외래어 어근과 다 결합할 수 있다. ‘본 연구’처럼 관형사로 쓰인 ‘本’은 한자어 지시관형사이다. ‘本+NP’는 주로 공식적인 문어체에 쓰인다. ‘本+X’는 화자와 관련되는 것만 지시할 수 있다. ‘본인(本人)’이나 ‘본격(本格)’ 등 ‘本+X’는 채귀성을 지닌다.

‘自’와 ‘本’을 비교하면 둘 다 원사(元辭)나 차사(次辭)로 쓰이는데 ‘自’는 의존형태소로서만 존재하는 반면 ‘本’은 자립형태소일 수 있다. ‘自’는 사전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고 ‘本’은 표제어로 등재된다. ‘自’는 한자어 형태소와만 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데에 비해 ‘本’은 고유어나 외래어 형태소와도 결합할 수 있다. 또한 ‘自’는 동사나 명사와 결합해서 단어를 형성하는 반면 ‘本’은 주로 명사와 결합한다.

‘自+X’와 ‘本+X’는 모두 차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自+X’의 조어력이 ‘本+X’보다 훨씬 더 강하다. 또한 ‘自+X’와 ‘本+X’는 다 지시성이 있지만 ‘自+X’는 주어를 지시하고 ‘本+X’는 화자를 지시한다.

석사학위 논문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가면 쓰기’의 서사 전략 연구

김 희 경

2016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종욱

이 글은 일제강점기 행위 주체의 문제와 탈식민 담론의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목표 아래, 1920년대 중반~1930년대 초반 염상섭 소설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시기 염상섭 문학에서 나타나는 ‘가면 쓰기’의 모티프에 주목하여 작가의 저항의식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동화(同化)정책의 측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제의 통치 전략 아래,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식민지 조선의 “혼종화(hybridization)” 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나타난다. 식민지배체제의 ‘결과’로서 혼종화가 점차 고착화됨에 따라 식민지 내부에 회색지대가 형성되며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무화(無化)시키는 새로운 역학관계가 발생한다. 이는 ‘조선인 가면’을 쓰는 일본인, ‘일본인 가면’을 쓰는 조선인의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호 모방과 가면 쓰기의 문제이다. 이는 일제의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의 발생이지만, 이를 통해 ‘자발적(의식적) 모방’이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식민지 내부로부터 발견된다.

염상섭은 식민지 조선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소설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몰두한다. 이때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의 ‘가면 쓰기’ 행위는 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식민지적 혼종화로부터 야기된 삶의 양태임을 밝히며, 무엇보다 식민지배체

제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서사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반식민 저항 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작가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염상섭의 자의식은 채도일의 경험에서부터 본격화된다. 이는 식민지 행위 주체의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그의 동경행은 식민 제국 일본을 새롭게 전유하는 계기가 되며 자기 인식이 심화되는 측면으로 확대된다. 그는 ‘식민지배자’ 표상 그 자체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인)을 타자화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채도일 이전의 작품들에서도 발견되고 있던 염상섭의 반식민 사상은 이 시기에 이르러 사회주의(자)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된다. 생경한 구호와 사상으로서가 아니라 소설 쓰기를 통해 형상화되어야 한다는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강조되는 모습이다.

일본 체류의 기간 동안 염상섭은 주로 단편소설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배체제에 의해 산출된 식민지 혼종화의 문제를 혼혈(인) 표상과 이중언어 사용 양상이란 측면에서 형상화시키고자 한다. 그는 ‘불분명한 정체성’을 띠고 있는 인물이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게서 의심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장면에 주목한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정체성 유보의 포즈나 수동적 자기 확인의 모습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혼종화의 문제를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계 짓기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작가의 본래적 의도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염상섭은 귀국하여 장편 소설 집필에 매진하며 인물들의 가면 쓰기의 서사를 적극적으로 다룬다. 이 시기 염상섭의 소설 쓰기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노블(Novel) 양식의 확립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동경에서의 작품 창작 기간 중에 시도되었던 노블 양식의 모색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염상섭은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스스로’ 서로를 닮으려는 모습과 이로부터 산출되고 있는 양자 사이의 ‘접촉(contact)’ 양상의 문제에 주목한다. 『사랑과 죄』는 식민지 행위 주체들의 가면 쓰기가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위장’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다. 『이심』과 『광분』은 외견상 통속애정서사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식민지 혼종화의 문제가 여성의 육체(성)와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통해 서사화된다.

중요한 것은 이들 작품에서 발견되는 위장의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쪽에게도 완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의 가면은 그들과 상호 경합하는 식민지 행위 주체들에 의해 벗겨지며 그 위장의 서사는 최종적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끄러짐’과 ‘파열’의 모습은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자의 정체성을 폭로하는 서사적 전략으로 기능한다.

1930년에 이르러 염상섭의 문제의식은 피식민자 조선인의 층위에서 심화되는 가면 쓰기의 문제에 집중된다. 「추락」에서 염상섭은 위장된 주의자들의 반체제적 저항 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적 시도는 현재성이 소거된 것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한다. 가면 쓰기의 행위와 반식민 저항담론의 모색이란 서사 전략은 『삼대』에서 꽃 피운다. 『삼대』 속 인물들 사이에는 다층적인 층위에서의 위장술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심퍼사이저 인물형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표정 없는 가면’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 ‘표정 없는’ 가면은 식민 질서에서의 순응이라는 위장술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이념·생활이 결합된 공동체가 식민지의 새로운 저항 담론이 구축될 수 있는 영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작가의식의 소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삼대』 이후의 작품들에서 점차 그 추동력을 상실해나간다. 1930년대 들어 심화되는 식민지배의 영향 아래, 행위 주체들이 선택하고 있는 가면 쓰기의 전략은 피식민자로서의 정체성을 잠식한다. 특히나 식민 지배질서에서의 순응이라는 가면은 점차 행위 주체의 맨 얼굴과 가면 사이의 거리를 소거한다. 행위 주체가 가면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의식적 감각의 문제는 점차 희미해지는 것이다. 그 결과 가면의 존재는 더 이상 탈착의 대상으로서 인지되지 않는다. 무의식의 차원에서 유착(癒着)된 가면은 식민지의 일상 담론 속에서 더 이상 문제적인 전략으로 감각될 수 없다. 이러한 양상은 1930년대 중반 염상섭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서사적 긴장의 약화 혹은 반식민 저항 담론의 모색 불가능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의 창작 활동의 밑바탕에는 ‘지금-여기’의 문제로 그가 마주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수렴시키려는 작가적 자의식이 놓여있다. 이는 소설 쓰기의

층위에서 반식민 저항 담론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식민 담론에 내포된 모순과 그 균열 지점을 부각시키고자 선택되고 있는 가면 쓰기의 서사 전략이다. 그것이 비록 실패에 돌아갔지만 염상섭이 시도하고자 했던 이러한 소설 쓰기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식민지 작가 염상섭의 문학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각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한국적 탈식민 담론이 산출될 수 있는 유의미한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석사학위 논문

오규원 시 연구:

언어와 실재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 지 은

2016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유중

오규원의 시는 ‘실재를 추구하는 것’과 그 실재를 시에 드러내기 위한 ‘언어’를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두 축 위에서 전개된다. 문학사적인 흐름에서, ‘시적 언어’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4·19세대 문학인들은 ‘언어의 자율성’의 문제에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오규원 또한 자신을 4·19세대라고 규정하며, ‘시적 언어란 무엇인가’의 문제로부터 자신의 문학 활동을 전개한다. 그가 시작(詩作) 활동을 시작한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군부독재에 의한 억압이 있던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는 고도로 산업화되고 자본화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가 부품으로 전락하는 시기였다. 그는 획일화되고 제도화된 시대상으로 인해 ‘언어’ 또한 타락하고 획일화되었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 타락한 언어, 추상화된 언어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시세계를 전개해 나간다.

오규원이 생각하는 예술, 그리고 시는 ‘현존하는 가치 또는 가치 체계 이상의 것을 현시’하는 것이다. ‘현존하지 않는 것’을 시의 언어로써 표상하기 위한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그의 자세는 시기별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1970년대)에는 ‘실재’를 형상화하고자 할 때, ‘상징 질서’가 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드러낸다. 나아가 중기(1980년대)에는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상징 질서를 부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후기(1990년대 이후)에는 ‘실재’를 시에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관을 모색하는데, 그것이 ‘날이미지시론’으

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모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어로 실재를 구현하고자 했던 시도’는 그의 전 시기 시편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다.

오규원의 1970년대 시에는 언어로 실재를 현시하려 하지만 상징계의 벽에 부딪치고 좌절하는 시적 주체의 모습이 드러난다. 시인은 먼저 사물과 언어로부터 소외된 주체를 시에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타자(대상)와 주체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의 시에서는 상징계와 실재 사이의 간극을 그 자체로 인식하고, 그 간극에서 오는 갈등이 드러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80년대 시편에서는 거대한 상징 질서를 부수기 위한 시도가 드러난다. 시인은 먼저 거대한 상징 질서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것은 먼저 기존의 질서와 규범을 의심하는 ‘아이의 시선’을 통해 드러난다. 점차 획일화되고 파편화되는 시대에 ‘해체’의 방법론으로써 대응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오규원의 개성을 드러내는 여러 형식 실험시들(광고시, 패러디시, 메타시)이 탄생한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상징 질서와 기존의 문법을 ‘해체’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가 진정으로 목표하는 바는 해체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조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 공간에 대한 강조는 그의 시에서 ‘통로’, ‘빈 공간’, ‘낮은 곳’ 등의 모티프를 통해 드러난다.

1990년대 이후의 시편들에서 그의 언어관은 이 시기에 이르러 또 한 번의 큰 변모를 보인다. 이 시기에는 ‘실재’를 언어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것이 바로 ‘날이미지시론’이다. 그가 자신의 시로써 구현하고자 했던 ‘실재’는 바로 ‘모든 존재의 현상’이다. 그는 ‘존재’ 그 자체를 탐색하기 위해 ‘언어’를 ‘비우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 전략이 시에서는 ‘허공’, ‘구멍’, ‘사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없음’(허공, ‘구멍’)을 통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실재’를 시로써 드러내는 작업이다.

오규원은 40년이 넘는 시작 활동 기간 동안 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양한 시세계를 구축했다. 그는 ‘시적 언어란 무엇인가’의 문제에서

시작(詩作) 활동을 시작하여, 평생 그 고민에 답을 내리고자 했다. 시인이라면 언어의 문제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시작 활동 내내 ‘시적 언어’에 대한 고민을 중심축으로 하여 시를 쓴 시인은 문학사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실재를 구현하기 위한 ‘시적 언어’에 대한 치열한 모색의 과정은 한국 현대시를 탐구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위치를 점할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여와전』 연구:

여성 ‘비평주체’를 중심으로

전 기 화

2016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병설

본고는 소설 독자의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인 『여와전』에 대한 연구이다. 『여와전』에는 『유씨삼대록』·『소문록』·『사씨남정기』 등 총 14종 이상의 고전소설 속 여성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여와전』의 초점은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를 계승한 인물인 문창성에게 맞추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인물들은 문창성에 의해 비평되는 대상으로서 등장할 뿐이다. 이에 본고는 문창성에 대한 인물 분석을 『여와전』 연구의 축으로 삼고, 이 인물을 창조한 『여와전』의 작가와 이 인물에 주목한 『여와전』의 당대 독자들에게 대한 분석으로 나아감으로써 고전소설 독자에 다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우선 II장에서는 『여와전』에 대한 서사적 분석을 통해 『여와전』의 서사 내적 필연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여와전』 내에서 문창성이 ‘비평주체’로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한 위에서, 문창성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몽유록계 작품 속 비평주체들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문창성의 비평 행위가 서사의 추진력을 마련한다는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여와전』이 문창성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설임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와전』에 진양공주-문창성의 전생담 단락이 삽입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문창성의 우월성 강조’, 『유씨삼대록』과의 연관성 강화, 『여와전』의 설득력 제고’ 등으로 제시하고, 이를 『여와전』 독자들의 문창성 중심의 수용 방식

과 결부하여 논의하였다.

『여와전』에 대한 서사적 분석을 토대로, III장에서는 『여와전』의 문창성과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창성에 관한 단계적인 인물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고는 『여와전』의 작가가 여타 고전소설 속 여성 인물들과 차별화되는 진양공주의 특수한 성격, 예컨대 공적 정체성 등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진양공주의 사후 서사를 표방한 『여와전』을 창작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어 『여와전』의 문창성과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 사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된 『여와전』의 서사적 설정을 ‘천상계 설정의 도입’, ‘선가적 색채의 계승’, ‘주성 설정의 계승’ 등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여와전』의 문창성이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의 성격을 계승하고 변용한 지점을 ‘문제 해결자의 역할’, ‘비평의 기준’, ‘인정의 획득’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IV장에서는 여성 비평주체라는 인물형을 창조한 『여와전』의 작가와 이 인물형에 주목한 『여와전』의 독자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본고는 문창성의 인물 창조에 반영된 『여와전』 작가의 욕망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여와전』의 문창성이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에 대한 분명한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창조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지점에 주목하였다. 문창성은 첫째, 진양공주에 비해 여성적 정체성은 약하고 공적 정체성은 강하며, 둘째, 진양공주와 달리 문필 능력을 공공연하게 발휘하여 불교를 제압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본고는 진양공주와 문창성 사이의 연속성과 간극 모두를 밝힘으로써, 『여와전』의 작가가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가 지닌 ‘부덕(婦德)으로 환원되지 않는 특질들’에 주목하여 이를 문창성을 창조하는 데 반영하였음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독자들이 문창성을 중심으로 『여와전』을 향유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문창성 되기’의 수용 방식으로 제시한 위에서 해당 향유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와전』 내에서 문창성은 수행해야 할 규범으로 부과된 부덕의 조목을 비평의 기준으로 전유하면서 상승을 거듭해나가며 마침내 유교 질서를 대표하는 인물로까지 승격된다. 본고는 『여와전』의 독자들이 문창성에게 주목했던 까닭은 비평의 기준에 있다기보다는 비평 행위 자체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인정에 있음을 제시하며, 『여와전』 속 여성 비평주체의 형상에 담긴 고전소설 독자들의 욕망을 읽어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 부사 ‘이미’류와 ‘아직’류의 의미 연구

박 혜 승

2016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전영철

본고는 한국어 부사 ‘이미’와 ‘아직’의 의미를 밝히고, 더불어 ‘이미’와 유의관계에 있는 ‘벌써’, ‘진작’, 그리고 ‘아직’과 유의관계에 있는 ‘여전히’, ‘여태’의 의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언어학에서 ‘시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시제와 상 범주라는 두 의미 범주 체계 안에서 이루어졌다. 시간 부사에 관한 연구 또한 시제 관련 시간 부사와 상 관련 시간 부사의 범주에서 논의된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어 시간 부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별 시간 부사의 의미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유의관계에 있는 시간 부사들의 체계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이미’와 유의관계에 있는 부사들을 ‘이미’류, ‘아직’과 유의관계에 있는 부사들을 ‘아직’류로 범주화하여 이들의 의미가 문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의미와 기능적 측면에서 ‘이미’류는 ‘완료’라는 상적 속성을 가진 시간 부사로 알려져 왔다. 반면에 ‘아직’류는 ‘미완료’라는 상적 속성을 가진 부사로 정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각 부사들의 의미 차이를 기술함에 있어서 이들이 가진 상적 속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본고에서는 ‘이미’류와 ‘아직’류가 상적 속성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속성인 ‘감정 양태’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류와 ‘아직’류의 감정 양태적 속성으로 설정하고 각 부사들의 의미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았다.

‘이미’류 시간 부사에서 ‘이미’는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하여 중립적 판단과 단정이라는 감정 양태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달리 ‘벌써’는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의외와 놀라움을, ‘진작’은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라는 감정 양태적 속성을 나타냈다.

한편 ‘아직’류 시간 부사에서 ‘아직’과 ‘여전히’는 각각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립적 판단과 단정, 긍정적 기대와 소망을 드러냈다. 반면에 ‘여태’는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원망이라는 감정 양태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부사의 의미는 다양하며 그 의미는 변화한다. 상의 범주에서만 논의 되었던 ‘이미’류와 ‘아직’류는 앞으로 상적 속성뿐만 아니라 감정 양태적 속성의 차원에서 좀 더 정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華夷譯語의 寫音字 비교 연구:

朝鮮館譯語의 음가 추정을 중심으로

김 지 은

2016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성규

본고는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朝鮮館譯語에 담긴 15세기 국어의 음가를 추정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韃靼館譯語, 畏兀兒館譯語, 回回館譯語, 占城館譯語, 滿刺加館譯語, 安南館譯語, 日本館譯語, 西番館譯語 등 8개 譯語만을 朝鮮館譯語와의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어 음운학의 주요 개념과 15세기 한어의 음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朝鮮館譯語의 음가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음계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확정하였다.

확정된 음계를 토대로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음성전사가 되었으면서도 일관된 표기를 보이는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성격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會同館系 華夷譯語에는 음절 구조와 관련된 사음 원칙과 음성 실현과 관련된 사음 원칙이 있음을 향찰의 ‘첨기’ 개념을 차용하여 밝혔다. 마지막으로,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구체적인 사음자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음계가 지니고 있던 사음 범위를 밝히고, 첨기의 양상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사음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朝鮮館譯語에 담긴 15세기 국어의 음가를 추정하였다. 초성 중 ‘ㅁ’의 음가는 재확인하고, ‘ㄷ’, ‘ㅇ’, 자음군의 음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종성 중 ‘ㅂ’, ‘ㄷ’의 음가는 재확인하고, ‘ㄹ’과 자음군의 음가는 재고의 여

지가 있음을 보이고, ‘빙’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밝혔다. 중성은 종합적으로
모음 음가 추정도를 그려 보았는데, ‘ㅏ’, ‘ㅑ’, ‘ㅓ’의 음가는 확정짓지 못하
고 영역으로 나타내었다.

석사학위 논문

부산 지역어의 성조형과 성조 변화

김 고 은

2016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승철

본 연구는 경남의 부산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성조소 및 복합조 목록과 성조형을 공식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이 지역의 노년층과 청년층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조상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대상을 밝혔으며 조사 및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을 설명하고 경남 방언의 성조형 및 세대 간 성조 변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부산 지역어의 성조소 및 복합조의 목록을 확인하였다. 이 지역어는 ‘고조(H)’와 ‘저조(L)’의 두 가지 성조소 및 ‘고저복합조(H·L)’, ‘저고복합조(L·H)’의 두 가지 복합조를 가지고 있다.

3장에서는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을 기술하였다. 여기서의 성조형이란 체언과 용언의 어간이 각각 곡용·활용할 때 보이는 성조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그 어간들을 분류한 것이다. 이 지역어의 성조형은 하나의 곡용형·활용형이 몇 개의 고조를 허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성조형에 따라 한 곡용형·활용형 내에 오로지 한 개의 고조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고조가 연속해서 두 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연속된 두 개의 고조가 제1·2음절에 나타나느냐, 제2·3음절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성조형이 다시 세분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확인한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 성조 변화를 검토하였다. 부산 지역어의 체

안·용언에서는 공통적으로 어간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곡용형·활용형이 HL...로 실현되는 성조형은 변화를 입기 쉬우며 변화의 결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곡용형·활용형이 LH...로 실현되는 성조형은 변화를 쉽게 입지 않으며 변화의 결과로서 빈번히 나타난다. 또한 3음절 어간의 LHH형과 LLH형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가운데, LLH형이 LHH형에 유사하게 실현되고 있다. 그 외에도 체언에서는 규칙적 H(H)형의 비율이 낮아지고, 변칙적 H(H)형의 비율이 높아진다. 용언에서는 LH형에 속하면서 모음 혹은 유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어미 ‘-(으)니까’와 결합하였을 때 그 성조가 LHLL~LLHL로 수의적 교체를 보인다.

5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와 남은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의 구어 문말 형식 ‘-긴’에 대한 연구

包 娟(포 연)

2016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진호

본고는 구어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문말 형식 ‘-긴’의 문법·의미·화용적 특성을 귀납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말 형식 ‘-긴’은 ‘부정/반박’ 기능의 ‘-긴1’, ‘평가’ 기능의 ‘-긴2’, ‘선행 발화 내용을 수용/긍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유보하는’ 기능의 양태부사 ‘하긴’으로 나뉜다. ‘부정/반박’의 ‘-긴1’은 선행 발화의 명제 내용에 대한 부정인지,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부정인지에 따라 ‘명제 부정’의 ‘-긴1-1’과 ‘상위언어적 부정’의 ‘-긴1-2’로 나뉘며, ‘평가’의 ‘-긴2’는 화자 평가 시의 태도에 따라 ‘부정적 평가’ 기능의 ‘-긴2-1’과 ‘긍정적 평가’ 기능의 ‘-긴2-2’로 나뉜다. 문말 형식 ‘-긴(기느)’은 기존 연구에서 ‘반박’과 ‘평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논의되어 왔지만, ‘선행 발화에 대한 반박’과 ‘부정적 평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본고는 기존 논의에서 다루어져 왔던 ‘선행 발화에 대한 반박’을 ‘명제 부정’으로 보고, ‘명제 부정’과 ‘부정적 평가’ 외에 ‘상위언어적 부정’과 ‘긍정적 평가’ 두 가지 세부 용법을 새롭게 밝혔다.

문말 형식 ‘-긴’은 한국어 사전에서는 종결어미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적 구성에서 문종결 형식이 발달하면서 주절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탈종속화(insubordination)의 일례로 다룰 만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긴1’은 ‘부정/반박’의 담화 기능으로서, 선행 발화에 대한 언급이 있고, 혼잣말보다 상대에게 하는 말에 더 많이 쓰이며, ‘개뿔’류 비속어 표현이 불

는 경향이 있다. ‘-긴1’은 후행 요소가 복원 가능하며 그 후행 요소가 ‘의문사 VP-?’와 같은 수사의문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긴1’은 선행 용언으로 동사, 형용사, ‘아’와 두루 결합할 수 있으며 별다른 제약이 없다. ‘요’도 붙을 수 있다.

특히, ‘-긴1’은 뒤에 복원 가능한 후보로 수사의문문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장유형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과 ‘부정/반박’ 기능으로서 특정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것, ‘-았’이 없이 과거 사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탈중속화의 특징임을 살펴보았다. ‘-긴1’은 탈중속화 절이 형성되는 역사적 궤적 중의 세 번째 단계, 즉 ‘관습화된 생략’ 단계에 있으며, 경제성과 공손성을 위해서 탈중속화가 일어났음을 검토하였다.

‘-긴1-1’과 ‘-긴1-2’는 ‘명제 부정’과 ‘상위언어적 부정’의 기능적 차이를 보이며, ‘-긴1-1’보다 ‘-긴1-2’에 ‘개뿔’류 비속어 표현이 붙는 일이 적다. ‘-긴1-2’의 경우, 의문사가 포함된 동사구가 선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며, 이는 ‘-긴1-1’과 구별된다. 한편, ‘-았’은 ‘-긴1-1’과는 결합할 수 없으나, ‘-긴1-2’와는 통합이 가능하다. 주체가 화자일 때, ‘-사’의 통합은 ‘-긴1-1’은 불가능하나 ‘-긴1-2’에는 허용된다.

‘-긴2’는 ‘평가’의 담화 기능으로서, 선행 발화에 대한 언급이 없고, 혼잣말의 성격이 강하며, ‘개뿔’류 비속어 표현이 잘 결합하지 않는다. ‘-긴2’는 복원할 만한 후행 요소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굳이 그 의미를 복원한다면 ‘왜 (이렇게) VP-?’와 같은 수사의문문 혹은 ‘(사람 참) 정말 VP-.’와 같은 평서문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긴2’는 선행 용언 제약이 있으며, 형용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동사도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사’는 통합 가능하지만 ‘요’는 통합될 수 없다. ‘-았’도 통합되지 않는다.

‘-긴2-1’과 ‘-긴2-2’는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의 기능적 차이를 보인다. ‘-긴2-1’은 앞/뒤에 ‘씨발’류 비속어가 올 수 있는 반면 ‘-긴2-2’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또한 ‘-긴2-1’에 ‘-사’가 결합되는 경우는 다시 尊待와 非尊待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非尊待로 쓰인 ‘-사’는 비꼼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단이다.

특히, ‘-긴2’의 후행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원래 종속절에서 발달한 문 종결 형식이라는 점은 분명함을 살펴보았다. ‘-긴2’는 ‘평가’ 기능으로서 특징적인 의미·기능을 가진다는 것과, ‘-었-’, ‘요’와 통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종속화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긴2’는 탈종속화 절이 형성되는 역사적 궤적 중 세 번째 단계(‘관습화된 생략’)에서 네 번째 단계(‘주절 구조로의 재분석’)로 넘어가고 있으며, 경제성 차원에서 탈종속화가 일어났음을 논의하였다.

양태부사 ‘하긴’은 ‘하기는’의 준말이며, ‘하기는’은 ‘그러하기는’에서 ‘그러’를 생략시킨 형태로 부사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긴’은 ‘선행 발화를 수용/긍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유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혼잣말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요’가 통합되는 일이 흔치 않으며, 비속어 표현이 잘 붙지 않는다.

박사학위 논문

심의린의 동화 운동 연구:

옛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조선어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김 경 희

2016년 2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현설

지금까지 심의린(沈宜麟: 1894~1951)은 『조선동화대집』(1926)의 편찬자로 동화에 관심을 가진 국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새로운 자료로 조망한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치열하게 조선어와 동화에 매진한 동화 운동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의린의 주요 활동은 조선어 교육과 동화 운동이다. 1914년 재동공립보통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으로 1950년까지 줄곧 학교 교육에 몸담았다. 한일합방 이후 조선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존망이 달린 민족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조선어와 동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1923년 10월 취미와 실익을 목적으로 각 보통학교 선생의 집필로 탄생한 『신소년』에 1923년 12월 「눈보라의 노래」를 시작으로 1924년 1월 「새해노래」라는 동시를 발표했다. 1924년 3월 전설 「완고양반」 이후 1924년 8월 동화 「유복자의 효성」을 게재했다. 어린이 잡지에 동시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그의 아동문학 활동은 전설과 동화로 옮겨갔고 이후 본격적인 동화운동으로 이어졌다.

심의린은 『신소년』에 전설과 동화를 발표하던 즈음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동화집』(1925)이 발간되는 것을 보고, 조선인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담은 『조선동화대집』을 출판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동화집과 조선 아동 문학가들의 외국명작동화집 발간이 주류를 이루는 출판시장에 큰 파문

을 일으켰다. 당시에 나온 조선동화집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내용을 확보하고, ‘실제 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기를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통하여 조선의 어린이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심의린이 외국의 이야기가 아닌 조선의 옛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동화집으로 편찬한 것은 조선어 교육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과 관계가 깊다. 조선어 수업시간이 줄어들고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면서 조선의 어린이에게 조선의 사상과 감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조선인의 삶이 녹아있는 옛이야기를 즐기는 것이었다.

심의린의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정신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연동화』(1928)로 이어졌다. 1920년대부터 ‘동화회’는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방정환과 많은 아동 문학가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번창했다. 심의린은 ‘조선어 화방 시간’, ‘학예회’, ‘동화회’에서 실제로 실연된 작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을 뽑아서 『실연동화』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취미생활로 동화 구연을 즐겼지만 작품 선정과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실제 실연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감동을 주는 작품을 선별할 수 있는 교재를 편찬하였다.

심의린은 말하기 재료의 출판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등장한 근대 미디어인 라디오와 유성기에 눈을 돌렸다. 심의린은 1927년 2월 16일 개국된 경성 방송국을 통해서 12월부터 라디오 동화 방송에 참여하였다. 그가 지속적으로 라디오에서 동화를 구연한 것은 이야기의 생생함을 소리로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출이었다.

심의린의 실천적 교육 방안은 조선어 교육 레코드인 『조선어독본』 제1번 트랙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에서 드러난다. 조선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의사소통의 편리함을 위해 표준어 습득을 독려하였다. 유성기 음반은 실제 언어의 어조와 억양, 발음, 장단, 고저 등 문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어린이의 음성으로 들려주어, 실제적 조선어 교육을 실천하였다. 라디오나 유성기가 고가의 제품이라서 당대 조선 어린이들이 근대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 어린이들은 학교,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와 청취회라는 공개적 모임을 통하여 이를 향유할 수 있었다.

심의린이 동화의 출판에 머물지 않고 라디오와 유성기까지 매체를 확장한 것은 당대 조선 어린이의 취미와 흥미 욕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발견과 활용은 옛이야기의 변용을 가져왔다.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에서 기존의 동화집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바보와 완고한 인물에 대한 옛이야기를 당대 가치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가난과 탐욕의 문제를 톺아내어 표현하기 위해서 고유어와 상징어, 관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갈등 양상 전개를 통하여 어린이는 동화를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상과 감정을 획득할 수 있었다.

『실연동화』는 조선의 이야기 문화와 일본 실연동화집 편찬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조선 내부의 동화화와 말하기 수업, 학예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화 실연을 위해서는 청중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동화 선택이 필수적이다. 1920년대부터 일본은 동화협회를 중심으로 유명 구연가의 작품을 실연동화집에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였다. 심의린은 조선 어린이 문화와 일본의 영향으로 야심차게 『실연동화』를 출판하고 연속 간행을 목표로 하였지만 2집의 존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 개인의 노력으로 실연에 필요한 흥미로운 재료들을 선별하고 실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당대 구연문화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 유일하게 공통된 작품인 「멸치의 꿈」은 헛된 꿈으로 점철되어 있는 멸치를 통해서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상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멸치의 꿈」은 심의린이 재구성한 옛이야기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작품으로 현대 출판되는 전래동화전집과 교과서에 수록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심의린은 조선의 옛이야기를 주로 다루었지만, 간혹 외국동화의 서사를 적극적으로 개작하여 조선적인 이야기만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주제의식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조선동화대집』에서는 그림형제의 「개구리 신선」, 「사냥꾼의 소원」, 「똑같은 재주」를 「개구리 왕자」, 「어부와 그의 아내」, 「재주가 좋은 네 형제」로 개작하였다. 『실연동화』은 그림형제의 「황금거위」와 「괴물 그리핀」을 재구성하여 「삼남의 비행선」으로 승화시켜 조선 어린이의 친취적인 양상을 장편으로 보여주었다. 라디오에서는 안데르센의 명작 「부

잇짓 통」을 2회 방송하여 불품없는 주인공이 세상과 맞서 대결해 승리하는 과정을 들려주었다.

심의린은 옛이야기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동화 운동가였다. 그는 학교 교육 안에서 어린이들을 대하며 몸소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을 조용하면서도 힘 있게 펼쳐나갔다. 심의린은 살아있는 조선의 옛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만을 고집하는 완고한 인물의 허상을 꼬집고,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어 고난과 맞서 싸우며, 더 넓은 세상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었다.

일제강점기 소년운동 중심의 아동 문학가들이 외국동화집 출판에 주력할 때, 심의린은 조선의 옛이야기를 어린이의 흥미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또한, 구연에 있어서 청중의 시선을 오래 지속하기 위한 발성, 동작, 이야기 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한국아동문학사 뿐만 아니라 한국 국어교육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자못 크다. 한국 국어 교육사에서 일제강점기는 단절기, 암흑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심의린이 문법 교육에 속담, 시조, 사자성어를 자주 사용하고, 동화 안에 속담이나 사자성어, 관용어 등을 많이 활용한 것은 조선어와 동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연계되면서 일관된 교육적 효과를 지향한 부분이다. 이는 동화가 조선어 교육을 위한 최고의 자료라고 하는 그의 믿음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대를 앞선 안목을 바탕으로 조선어와 동화의 통합 교육을 다각적으로 실행한 선구적 교육자가 바로 심의린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박사학위 논문

월남작가 소설 연구: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 세 립

2016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전후 한국문학사에서 월남작가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들의 성격은 오랜 기간 동안 전후 문학사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되었고 월남작가들의 작품과 ‘월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월남작가들을 반공 이데올로기에 영합하며 전쟁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월남작가들의 작품은 전후 한국문학사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의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의 문학적 특성과 성취를 정의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월남 체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작품의 내적 계기를 면밀히 분석해 보려는 시도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월남작가들의 소설을 중심으로 그들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문학사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월남작가들의 공통적 체험의 기반이 되는 ‘고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향 상실 의식이 주요한 창작동기로 기능하는 월남작가들의 소설을 분석하였다. 이는 월남작가들의 출발 지점인 상실 의식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를 살펴 궁극적으로 이들 작업의 의의와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한국전쟁 전후의 한반도 내에서의 이주의 역사는 ‘분단 디아스포라’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발생시켰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온 월남작가들에게, 변질된 장소로서의 고향에 대한 담론은 전후 한

국사회의 의식적 기반이 되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내재화되어 왔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월남작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반공이라는 기치 아래 놓여있는 듯하면서도 각자 다른 감응 방식을 보였다. 상실과 적응이라는 현실적 태도뿐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는 또다른 정치 감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고향 상실과 디아스포라, 노스텔지어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보편적 고향 담론 안에서의 월남작가들의 고향 의식 논의를 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는 월남작가들의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고향’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경계인’으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월남작가들의 소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전후 한국문학사에서 이들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분단 현실에서 이들의 문학 활동이 지니는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황순원, 이범선, 신우휘, 이호철, 장용학, 최인훈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그들의 작품에서 ‘고향’이라는 핵심어를 관통하며 드러나는 정신사적 탐색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해당 작가들은 전전세대와 전후세대, 서북지역 출신과 관북지역 출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당대 월남작가들의 대표성을 가지며, 월남을 전후하여 각각의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적 방향성을 포착했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다.

II장에서는 공동체 윤리가 ‘황순원’과 ‘이범선’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밝히고, 고향 상실 의식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평안남도 대동 출신의 황순원과 평안북도 안주 출신의 이범선은 둘 다 월남민의 한 전형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서북 출신 기독교도이자 대지주 집안 출신이었다. 이 두 작가들에게 고향은 단순한 출신지가 아니라 실향민으로서의 삶과 문학의 탄생 기반인 동시에 지향점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이념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관찰하였고, 고향 상실 의식의 생성과 심화의 지점을 반복적으로 묘사하였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평화를 누리는 공간이었던 고향이 월남 이후의 궁핍한 현실과 맞부딪힐 때 그들은 각자의 파열음을 표출하였다. 공동체 윤리의 훼손과 파편화된 개인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황순원은 강력한 윤리 의식에의 추구하고 근원적 인간성의 탐색으로 나아갔다. 본고에서는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나무들 비탈에 서다』 등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토지개혁이라는 급진적, 폭력적 제도의 현실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월남민 인물들의 입장이 월남 행위 자체로 연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고찰하고 그 내재된 의미를 파악해 보는 작업과 함께, 전쟁을 통해 기존의 모든 억압에서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젊은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감응해나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동체 윤리의 변모 과정에서 드러난 본질적 인간성의 파괴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윤리 감각의 표출과 관련된다. 이범선은 강렬한 고발 정신을 기반으로 사회적 현실 문제를 탐색하였다. 여기서는 체제 선택의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 「오발탄」, 「환상」 등의 단편과 『동트는 하늘 밑에서』, 『흰 까마귀의 수기』 등의 장편들을 대상으로 그의 창작이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에 놓여 있는 신념과 배반감 사이의 고통스러운 고향의 기억들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였다. 특히 황순원과 이범선의 작업은, 기존의 세계에서 담지하고 있었던 공동체 윤리 의식의 파괴와 소멸을 불러온 전쟁 전후의 상황들에 대하여 이탈자이자 축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의 의식 세계를 통해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그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월남 행위 자체의 의미와 남한 사회에서의 ‘국민 되기’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고찰하였다.

Ⅲ장에서는 변질된 장소로서의 고향 담론과,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당대의 의식적 기반에 감응하는 월남작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선우휘’와 ‘이호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 반공 작가로 꼽혀온 선우휘는 지속적인 굴절 과정을 보이며 자신의 생존 방식을 드러낸다. 이호철도 체제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변모되는 남한사회의 현실을 탐색해간다. 평안북도 정주 출신의 선우휘와 함경남도 원산 출신의 이호철은 둘 다 매우 강력한 적응 의식을 기반으로 이남 사회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으며, 선택한 월남이라는 데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그들은 남한 사회의 전형적인 월남민 인물들을 창조해냈는데, 그 전형성이 상당히 다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선우휘는 현실에 대응하며 그것의 의미를 끊임없이 재확인하면서, 남한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결과물들과 기억 속의 고향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을 묘사하였다. 본고에서는 선우휘의 「테리

리스트, 「깃발 없는 기수」, 「오리와 계급장」, 「도박」, 「싸릿골의 신화」, 「망향」, 「아아, 내 고장」 등의 작품들을 통해 선우회 소설의 변곡점들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이호철은 관찰자의 자세로서 두 체제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지식을 충동원하였다. 여기서는 이호철의 「탈향」, 「나상」, 「판문점」, 「닿아지는 살들」, 『소시민』, 『서울은 만원이다』 등의 작품들을 고찰하며 월남 이후 피난사회에서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대상으로서의 이남 사회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탐색해나가는 작업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급격한 자본주의화의 흐름 속에서 소시민적 적응의 형태로 흩어지고 흡수되는 월남민 인물들이 형상화되어 있는 이호철 소설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이들을 통하여 이데올로기와 적응이라는, 월남작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두가지 주제의식에 대한 탐구가 가능해진다.

IV장에서는 경계의 파괴와 이데올로기 초월을 통해 관념적 고향을 탐색하고 탈경계적 정치 감각을 드러내는 월남작가들로서 ‘장용학’과 ‘최인훈’을 분석하였다. 함경북도 부령 출신의 장용학과 함경북도 회령 출신의 최인훈은 보다 근원적인 지점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용학은 폭력적 억압 속에서 본원적 고향을 꿈꾸었다. 본고에서는 장용학의 「요한시집」, 「비인탄생」, 「역성서설」, 『원형의 전설』 등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가장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을 쓰고자 했던 장용학의 작품들의 의미에 대해 파악하였다. 최인훈은 세계사적 의미에서의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 고향을 재발견하였다. 여기에서는 최인훈의 『광장』, 『회색인』, 『서유기』, 「하늘의 다리」, 『화두』 등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문명론적, 세계사적 의미에서의 새로운 방법론을 끊임없이 탐색해 간 월남작가의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경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장용학과 최인훈은 오히려 경계의 무화를 추구했다. 월남민의 입장에서 그것은 매우 과감한 방향성이었다. 장용학의 작품들에서 경계는 다양한 차원으로 제시되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결국 자신만의 고향 찾기로 이어진다. 최인훈의 소설에서도 월남이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유토피아 찾기로 기능하고 있는데, 그것은 월남작가들에게 가능한 구원 탐색의 한 방법이었다.

분단 현실에서 월남작가들의 작품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남한의 문학사는 월남작가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인해 더욱 풍성해졌고, 다양한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창조적 경계인으로서 남한 문학계에 특별한 성과를 내놓은 월남작가들의 새로운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여섯 명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작품 속에 드러난 고향 및 공간 인식을 통하여 월남작가들의 의미 있는 유형화 및 범주화가 가능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면밀히 탐구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차자표기 자료의 격조사 연구: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중심으로

최 성 규

2016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이 글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차자표기 자료를 대상으로 삼아, 격조사의 쓰임새를 살펴본 논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지금까지 알려진 향찰, 이두, 구결 자료들을 두루 아울러 살펴보고, 이 시기의 국어 격조사를 종합 검토하는 것이다. 다만 구결 자료만큼은 자토석독구결로 한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당대 국어의 격 체계를 크게 주격, 대격, 속격, 여처격, 도구격, 호격까지 6격 체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동격(=동반격, 여동격)조사로 알려진 ‘果/스(과)’는 당대 국어에서 접속조사로만 쓰였으므로 격조사가 아니라고 보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알려진 ‘隱/1(은)’은 논의에 포함하여 주격조사 ‘是/ㄴ(이)’와 함께 비교·대조하여 살펴보았다.

주격조사의 경우, 조사 ‘是/ㄴ(이)’는 안긴문장의 주어에 쓰였고, 조사 ‘隱/1(은)’은 안긴문장 외(흠문장, 이어진문장 등 비내포문)의 주어에 쓰였다. 예외가 있기는 있으나, 95% 남짓한 경우가 안긴문장을 기준으로 분포가 갈린다. 덧붙여,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은’ 또한 기원상 주격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은/는’과 ‘이/가’를 [화제], [초점]으로 구분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한편 이두 자료의 조사 ‘亦’은 ‘이’도 ‘은’도 아닌 제3의 주격조사이다. 연결어미를 포함한 어떤 활용형에서 비롯된 듯하다.

대격조사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형태에도 큰 변화가 없었고, 문법 기능에도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대격조사는 다양한 조사 상당 구성을 이루었으며, 그 자체로도 다른 조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

속격조사는 크게 ‘ㅅ’ 계열과 ‘의’ 계열 둘로 나뉜다. ‘ㅅ’ 계열은 무정체언 뒤에 쓰였고, ‘의’ 계열은 유정체언 뒤에 쓰였다. 유정·무정의 구분은 뚜렷하나 존칭·평칭의 구분은 미미하여 15세기 국어와 사뭇 달랐다. 그 외에 이 글에서는 ‘느슨한(↔긴밀한) 수식 구조’라는 개념도 제시하였다. 용례를 살펴보면 주어적 속격과 대부분 겹치나, 나중에 ‘ㅅ’가 속격조사 기능을 잃고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된다.

여처격조사는 크게 ‘아’ 계열, ‘아긔’ 계열, ‘여긔/의긔’ 계열, ‘의’ 계열(특이처격)까지 넷으로 나뉜다. ‘阿/良/ㄹ(아)’ 단독형은 예가 많지 않았으며 화석화한 모습을 보인다. ‘惡中/良中/ㄹ + (아긔)’ 계열 조사는 처격 본연의 기능 위주로 쓰인다. 그 이유는 생겨난 시점이 늦다는 점과, 그 구성이 기원상 [처격+처격]이라는 점으로 보았다. ‘也中/ㅅ + (여긔)’ 및 ‘衣希/ㅅ + (의긔)’ 계열 조사는 분포 환경이 복잡하므로 여격·처격, 또는 유정·무정만으로 간편하게 설명되지는 않는다. 기원상 [비처격+처격] 구성이므로 조금 다른 기능을 맡는 편이 자연스럽다. 한편 ‘衣/矣/ㅅ(의)’ 단독형은 대체로 15세기 국어의 특이처격조사와 연결된다. 그러나 ‘中/+(긔)’ 단독형은 특이처격과 함부로 관련짓기 어렵다.

도구격조사 ‘로’의 기능은 시작점 관련 기능과 종착점 관련 기능으로 크게 나뉜다. 시작점 기능은 일찍부터 나타나는 반면 종착점 기능은 뒤늦게 나타났다. 한편 시작점과 관련된 탈격(기점) 기능은 차츰 희미해지다가 아예 사라져 버리기도 하였다. 그 밖에 시작점과 종착점 사이에 걸치거나, 어느 쪽으로도 보기 어려운 기능 등등을 살펴보았다.

호격조사는 2등급 높임법 체계로 나누어 존칭에 쓰인 ‘하’와 평칭에 쓰인 ‘아’로 나뉜다. 그 중간 등급을 지녔다고도 하는 ‘여’는 호격조사가 아니라 감탄조사로 보고 종결보조사의 일종으로 처리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 역사극의 형성과 재현의 문화정치

양 근 애

2016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본고는 한국 역사극의 발생과 장르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 일제 식민지부터 해방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역사극이 재현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역사극의 구조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대초기 민족사학의 전개와 ‘역사-이야기’의 대중화를 역사극 발생의 조건으로 삼아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고전, 전통, 민속 등을 포괄하는 한국 역사극의 독특한 형성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각 시대별로 다양하게 창작, 공연된 역사극을 망라하여 역사극이 재현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서구적 장르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조선적 역사극의 특성과 한국 역사극의 전체상이 드러나리라 판단한다.

‘문화적 기억’의 작동 방식에 주목해 볼 때, 한국 역사극의 형성은 ‘해방’이 아니라 1950년 국립극장 개관 공연까지로 시점이 확대될 수 있다. 피식민과 해방, 분단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경험은 민족과 국가의 지속과 단절에 대한 의식과 무의식을 발생시켰으며 역사극의 생산과 소비에 내재된 민족 정체성과 주체의 윤리성, 그리고 기념과 기억의 문제를 통해 역사극 재현의 문화정치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우선, 역사극 창작과 공연의 추이를 살피기에 앞서 역사극 창작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근대적 사학의 확립과 역사서의 편찬, 역사교육 등은 역사적 사건을 인과관계에 의해 파악하게 하였으며, 연호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역사가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

한 당대 대중잡지와 신문에 전개된 다양한 역사 글쓰기를 통해 역사-이야기가 대중화 되고, 야담-강연을 통해 연행의 형식으로 역사가 대중화되는 양상을 통해 역사극 생산의 권여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1930년대 초반까지의 역사극은 민족 공동체에 대한 강한 암시를 통해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기 역사극은 갑신정변이나 동학파 같은 근대초기 사건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재현하여, 피식민 사대로 인해 중단되었던 역사의 연속성에 대해 인식하고 민중의 힘을 역설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전망을 피하고 있다. 근대초기의 역사를 다룬 희곡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한 집단의 기억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3·1운동 이후의 조선인들이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 집단으로 호출되는 역사적 경험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1910년대에 막연하게나마 조선적인 것의 계승과 전통 연회의 변용으로 전개되었던 연극적 시도들에서 1920년 이후 민족성을 환기하는 역사적 사건과 그에 대한 기억을 문화적으로 재현한 역사극이 창작이 시작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고대사를 소환한 역사극들에서는 먼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현재의 비극에 대한 연원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추적하고자 하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재현의 방식 역시 역설적으로 민족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1930년대 초반에 창작된 역사극들 중에서는 역사적 시간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당대 현실을 성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주목된다.

1930년대는 고전부흥론, 민속학 연구 등과 함께 이른바 ‘조선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전통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역사극은 고전과 민속, 전통 담론 등 문화적 기억을 포괄하며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역사와 전통에 대한 연극계의 논의는 조선적인 것의 발견과 대중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역사극의 유행 현상은 서구적인 사실주의극을 전범 삼아 진행되었던 신극 운동의 실패에 대한 반대급부로 등장한 것으로 근대극을 돌파하고자 하는 ‘현대극’으로 의미화 되었다. 또한 이 시기 역사극의 재현 방식에는 ‘민속’과 ‘통속’의 작용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공연의 연행

성을 통해 확보되는 조선적인 역사극의 특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중일전쟁 이후 신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역사극의 역사 해석과 재현 역시 지배 담론을 반영한 것이면서도 조선적인 특수성이 노출되는 이중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역사극이 재현하는 역사는 일제가 완전히 장악하기 어려운 조선의 민족성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다른 연극과 구별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목하여 실패한 역사 재현의 윤리와 언어적 간극을 통해 역사극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해방 이후, 민족의 자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의 역사를 재현하게 되면서 역사극의 문화정치성이 더욱 짙게 나타난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민족을 전유하고자 했던 이념적 분화 양상이 역사극에서도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가장 먼저 소환되었던 3·1운동의 기억과 이 사건에 대한 좌우파의 다른 재현 방식이 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역사 재현의 특징들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기념과 기억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의미화 하였다. 태극기와 애국가, 만세 등의 기호는 이 시기 이후 민족을 대표하는 표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3·1운동 기념제에서 공연된 작품들뿐만 아니라 대중극으로 취급되어온 역사극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이다. 또한 해방기의 역사극에는 항쟁사를 소환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들과 함께 피식민의 경험에 대한 기억과 망각의 정치성이 드러난다. 일제 말기에 공연되었던 역사극을 해방기에 재공연한 사례들을 포함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배타적으로 동일화되는 기억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단정 수립 이후 남한 연극계의 주도권을 획득한 유치진은 극예술연구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극 수립을 표방한 극예술협회를 설립하여 역사극을 창립공연으로 올렸다. 이후 1950년 국립극장 개관 공연으로 올라간 〈원술랑〉까지의 역사극들을 통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역사 해석이 전유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사극들은 충과 의를 강조하여 피식민의 기억을 망각하는 한편 북한을 타자화 하는 방식으로 민족을 재구성하고 단일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 연속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현되었던 민족사는 이렇게 국사와 접합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일

조한다. 이후 〈원술량〉은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문화적 기억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식민지 현실의 알레고리로 자주 소환되었던 망국사로서의 신라의 이야기는 1950년에 와서 자주적 국가 건설을 위한 반성적 역사로 자리매김 된 것이다.

한국은 식민지와 전시체제 그리고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일국사로 환원되지 않는 역사 개념을 담지하게 되었으며, 역사극은 그러한 역사 개념의 유동과 함께 ‘민족’과 그 외부를 문화적으로 재현하게 된다. 여기에는 당대의 정치사회적인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역사의 현재적 의미와 문화정치성이 반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목하여 한국 역사극의 형성과 재현의 문화정치적인 국면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작업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 서술과 그 반영의 측면을 추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박사학위 논문

연변 지역어의 접미파생법 연구:

원 함북 경원 지역어를 중심으로

이 춘 영

2016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승철

본고는 연변 지역에서 쓰이는 원 함북 경원 지역어(함북 육진 방언에 속함)의 접미파생의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지역어의 접미사 목록을 작성하고 각 접미사의 형태, 분포와 의미 기능을 살핀다.

지금까지 표준어의 접미사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어느 특정 방언의 접미사에 의한 파생을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업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한국어의 단어형성에 대한 전체적인 양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정 방언의 단어형성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방언마다 단어형성 과정이나 규칙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아직 파생어 형성 연구에서는 종합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변지역의 원 함북 경원 지역어를 중심으로 파생접미사에 의한 단어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크게 8장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파생어 형성 논의를 위한 기본 전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주로 파생어 형성의 유형, 규칙과 유추, 공시성과 통시성, 생산성, 어휘화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영변화에 의한 파생은 인정하되 영접사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 규칙에 의해 이 지역어의 파생어 형성을 설명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유추에 의한 설명방법도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였

다. 또한 생산적인 규칙에 의하여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 즉 단어들의 내부 구조에 대한 화자의 공식적 직관이 개입되는 단어형성은 공식적 성격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3, 4, 5, 6, 7장에서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을 명사 파생, 동사 파생, 형용사 파생, 부사 파생, 어근 파생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는데 각 장마다 해당 접미사 목록을 작성하고 분류하여 그 접미사들의 형태론적 특징, 분포와 의미기능을 검토하였다.

명사 파생은 행위명사 파생, 사물명사 파생, 인칭명사 파생, 그 밖의 접미사에 의한 파생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행위명사 파생에는 ‘-이1’, ‘-음’, ‘-기’, ‘-질’, ‘-내기1’에 의한 파생, 사물명사 파생에는 ‘-개’, ‘-애’, ‘-대기1’, ‘-불이’에 의한 파생, 인칭명사 파생에는 ‘-재:~재:’, ‘-꾼’, ‘-보’, ‘-애:/-애:’, ‘-배:’, ‘-뚜거리’, ‘-대기2’, ‘-채:’, ‘-바리’, ‘-꾸레기’, ‘-이2’, ‘-뒤:’, ‘-돌이’, ‘-내미’, ‘-내기2’, ‘-치’에 의한 파생, 그 밖의 접미사에 의한 파생에는 ‘-백이’, ‘-들이’, ‘-잡이’, ‘-시’, ‘-에기’, ‘-아지’, ‘-악지’, ‘-이3’에 의한 파생이 있다. 그 중 인칭접미사가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로 ‘비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속성 표현 인칭 접미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 파생에는 사·피동접미사에 의한 파생, 반복접미사 ‘-거리-’, ‘-대-’, ‘-아-’에 의한 파생, 강세접미사 ‘-페리-’, ‘-치-’에 의한 파생이 있다. 이 지역어의 사·피동사 파생은 형태론적인 면에서는 표준어의 사·피동사 형성의 제약조건에서 벗어나 있고 통사론적인 면에서는 사·피동사 구문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쓰이는 사·피동사의 예들이 다수 발견되며 표준어의 사·피동사목록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형용사 파생에는 ‘-스랍’, ‘-롭-’, ‘-답-’, ‘-압/업-’, ‘-ㅁ-’과 ‘-브-’, ‘-앙/영-’, ‘-다마-’, ‘-자-’, ‘-차-’에 의한 파생이 있다.

부사 파생에는 ‘-이’, ‘-히’, ‘-우’, ‘-껏’, ‘-나/으나’, ‘-르’, ‘-대르’에 의한 파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히’에 의한 파생이 가장 생산적이며 그 외의 접미사들에 의한 파생은 생산력이 높지 않으며 그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들은 대부분 어휘화했다고 볼 수 있다.

어근 파생에는 ‘-으스르’, ‘-끄레’, ‘-으레’, ‘-스그레’, ‘-즈그레’, ‘-음’, ‘-죽’, ‘-죽’, ‘-적’, ‘-으막’, ‘-음작’, ‘-웃’, ‘-각~각’, ‘-악~악’, ‘-박’에 의한 파생이 있다.

8장은 논의를 요약하고 본고의 미진한 부분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 분화:

동화와 아동소설을 중심으로

오 현 숙

2016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본 논문은 근대학제가 도입된 1895년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 분화를 고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이 시기는 아동문학의 고유한 미적 규범을 마련하고 양식적 가치를 구성, 전개한 시기였다. 본 논문은 단순히 텍스트를 분류하고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 지니는 고유한 발생론적 배경을 규명하고, 이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 그 미학적 정체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 독자 개념을 중심으로 텍스트에 내포된 미학과 관습을 추출하고, 분류 체계의 문화적, 장르적 관습 자체를 연구함으로써 작품 구조와 함께 사회문화적 문제를 동시에 사유하고자 하였다.

근대적 문학 장르인 아동문학은 아동담론의 형성 및 자본주의의 발달, 가족, 학제 등의 근대적 제도의 성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는 장르로 인식되어 왔다. 근대에 들어 인간 삶의 특수한 국면으로 아동기가 분절되고, 새롭게 발견된 아동이 부르주아 핵가족과 학교 제도에 편입됨으로써 아동문학 형성의 물질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의 주된 경향은 아동문학의 근대적인 기원을 강조하고 순수성에 대한 메타포를 통해 아동문학의 전개 양상을 서구 낭만주의의 도식적인 구조 속에 포괄하고자 한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한국 아동문학은 서구적인 문학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근대성과 아동문학이 교차될 때 특수

한 사회적·역사적 정황에 따라 아동담론, 문학, 제도 등은 모두 각기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고유한 문학적 전통과 식민지 근대에 의한 근대 제도‘들’의 불균등한 전개 양상에 따른 한국 아동문학의 독특한 형성과 전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아동문학의 문제들은 서구를 보편적 중심으로 가정한 서구중심적인 위계담론으로, 한국 아동문학을 전통에 대한 ‘단절’과 서구에 대한 ‘모방’의 결과물로 간주함으로써, 주체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해 왔다. 따라서 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분화 과정은 전통문학과 서구문학의 다양한 문화 교섭을 포함하여 재평가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근대’ 아동문학에 대해 좁은 의미의 서구중심적인 신화를 만들어 내는 연구 경향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단선적인 문학사 인식을 지양하고 문학적 다중체계(literary polysystem)의 일환으로서 아동문학 체계를 대등하게 기술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문학의 형성과 분화는 단순히 독자적인 문학체계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전문학, 외국문학, 대중문학, 성인문학 등의 다른 문학체계와 관계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많은 아동문학 작가들은 다양한 문학적 다중체계와 관계 양상 속에서 아동문학의 독자성과 연속성을 구획해나가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 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 분화를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론은 아동독자를 중심으로 한 수용미학적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아동문학은 아동을 독자적인 수신자로 삼은 문학으로 정의된다.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기에는 조선사회의 유교 교육을 위해 쓰였던 도덕적인 텍스트들이 아동용 교과서와 독본을 통해 재생산되는 한편, 설화, 『이솝우화』, 『로빈슨크루소』, 『그림동화』 등 원래 성인용이었던 많은 서구 문학 작품들도 아동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어 차용되고 단축되어 수용되었다. 따라서 아동독자의 위치와 이에 따른 미적 규범을 근대 형성기 텍스트에 적용시킬 경우 단순히 ‘과도기적 텍스트’가 아니라 전대문학과 근대문학 그리고 성인문학과 아동문학을 준별하고 새롭게 획득된 아동문학적 특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표제장르’를 통해서 문학을 분류하는 사회·문화적 장르 관습 자체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서 장르가 텍스트의 미학을 규정하고, 문화적으

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했다. 1장에서는 이를 위해 기존의 주요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연구방법론과 시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은 조선 고전 서사와 서구 정전의 교섭과 수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번역 텍스트에 대한 실증을 통해서 전통 서사의 근대적 계승과 서구정전의 수용으로 나타나는 수용자층의 기대지평과 독법의 변화라는 두 가지 기획 속에서 아동문학이 형성되었음을 논증하였다. 새롭게 분절된 아동문학은 전통적인 서사 양식과 서구의 근대적인 서사 담론이 충돌, 결합, 혼성되면서 만들어진 중층적인 문화 교섭의 결과물이었다.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을 넘나드는 다양한 전통문학은 아동이라는 새로운 독자에게 적절한 문학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인전기나 전래동화가 새롭게 탄생했다. 아동문학은 전통문학과 자질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이중(異種) 갈래로서 형성 되었다. 전통문학과와의 관계 맺기와 단절하기는 역사나 설화가 근대적인 동화 장르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이중전략이었다. 한편, 서구정전은 독자의 기대지평에 따라 역동적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서사에 대한 독법의 전환에 따라 아동문학의 강한 교훈성, 도덕성, 정치성의 요소가 점차 탈각되고, 허구성이 동화의 주된 특징으로 새롭게 인식되었다. 2장에서는 이처럼 한국 아동문학은 근대에 의한 전대 문학과와의 단절이라는 단선적인 흐름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전통과 서구를 아우르는 다양한 관계 양상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고찰하였다.

아동문학의 전개는 앞서 아동문학 형성기 발견된 서사 담론을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변용·창작함으로써 1920년대에 구체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천도교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고유한 초월성의 철학과 미학이 발전되었다. 방정환은 멜로드라마적 양식을 통해서 동화의 숭고미를 구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적 동화의 미학으로서 숭고는 단지 천도교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방정환, 이성환 등으로 대표되는 천도교 계열 작가뿐만 아니라 권환, 박영희, 이주홍 등의 계급주의 계열의 작가들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것이었다. 한편 결핍된 근대와 이를 상징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승화의 문법은 조선 아동문학 고유의 판타지 미학의 특성으로 발전해나갔다. 3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조선적인 동화의 시학이 창출되는 양상을 논증하였다.

1930년대 규범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아동문학은 다양한 하위 장르로 분화되었다. 본 논문은 장르의 이론적 용법보다 특정한 장르 용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게 하는 문맥과 그 실제적인 적용에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들을 범주화하는 민족, 제국, 젠더 등이 매개되어 아동문학의 하위 장르의 차이들을 산출하는 것에 주목했다. 첫째, 민족주의에 의해 규범화되었던 옛이야기들은 1930년대 후반 담론의 지형과 결합되면서 특히 역사장르로 다양하게 분기되었다. 구체적으로 동양의 고유한 서사와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매개로 ‘전기’, ‘사화’, ‘소년야담’ 등으로 분화되었다. 둘째, ‘모험소설’, ‘탐정소설’ 등은 제국주의의 팽창과 긴밀하게 관련된 장르로 발생하였으나 전형적인 장르문법을 해체함으로써 지배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셋째, 젠더는 아동문학의 내포독자를 세분화하고 동화와 소설의 차이를 산출했다. 1930년대 젠더 규범에 따라 독자 대상층에 대한 인식이 세분화되었다. 아동문학에서는 젠더 규범에 따라 크게는 동화와 소설의 경계가 구분된다. ‘무성(genderless)’의 영아로부터 소년 혹은 소녀가 되는 성(性) 특징적인 전이과정은 동화와 소설을 분절하고, 소년과 소녀를 가르는 성적 구분 담론은 소설에서 ‘소년소설’과 ‘소녀소설’이라는 하위 장르의 차이를 산출하였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하위 장르로의 분화 양상을 규명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아동문학 연구의 서구 중심주의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이 1895년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 분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한국 아동문학은 고전 서사와 서구 아동 서사의 교섭을 통해 형성된 중층적인 것이라는 점, 둘째, 멜로드라마적 양식을 통한 숭고와 사회성을 내포한 환상성이라는 낭만적 미학이 확립되었다는 점, 셋째, 문학 장르의 체계를 구성하는 민족, 제국, 젠더 등의 규범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동화와 소설 등의 하위 장르가 분화되었다는 점 등이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주된 특징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 분화의 고유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최 윤 지

2016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전영철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의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를 밝히는 것이다. 정보구조란 의사소통에서 화자가 발화를 통해 전달하려는 정보가 청자에게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주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반영하는 언어적 양상을 말한다.

한국어 정보구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본고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구조에 대한 이론적·개념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정합적이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정보구조의 기본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실체의 절대적 정보구조와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구조뿐만 아니라 명제의 절대적 정보구조를 포함하는 확장된 정보구조 체계를 세워야 한다. 셋째, 형식과 의미가 맺는 상관관계를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발화가 나타나는 사용역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고, 표현론적 접근법과 해석론적 접근법을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정보구조의 하위 부분은 절대적 정보구조와 상대적 정보구조로 나뉘고, 전자는 다시 그 대상이 실체인 것과 명제인 것으로 나뉜다. 절대적 정보구조는 어떤 언어 표현이 청자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인지적 위계를 가지는지에 따른 것이며, 상대적 정보구조는 그 표현이 문장에서 다른 부분들과 맺는 정보적 관계에 따른 것이다. 절대적 정보지위는 주어집성의 정도에 따라 담화구, 담화신·청자구, 청자신 지위의 세 단계로 나뉘며 담화구 지위는 다시 활성화와 준활성화로 나뉜다. 상대적 정보지위는 주어집성의 정도

에 따라 신정보인 초점과 구정보인 전제로 나뉘는데, 전제에는 정언판단의 대상인 화제가 포함된다.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의 각 위계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언어 형식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는다. 담화-구 지위는 영형대명사, 지시대명사 및 인칭대명사, 우분리와, 담화-신·청자-구 지위는 ‘X 있잖아’ 및 ‘X 말이야’ 구성과, 청자-신 지위는 부정관형사 및 부정대명사, ‘X이라는 Y’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의 각 위계는 다음과 같은 언어 형식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는다. 담화-구 지위는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종결어미 ‘-다니까’, ‘-다고’와, 담화-신·청자-구 지위는 ‘-잖’, ‘-다며’와, 청자-신 지위는 ‘-거든’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지위의 주요 범주인 화제와 초점이 보이는 언어 형식과의 현저한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화제는 문두 ‘은/는’, 제시어, ‘이란’, ‘이야’로 표현된다. 초점은 담화에서 무표적인 경우가 많고, ‘이/가’, ‘을/를’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이는 다른 정보지위나 언어 표현들과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크게 유의미한 것이 아니다. 화제와 초점을 명시적으로 분절하여 표현하는 통사적 구조로는 ‘것은’ 분열문이 있다.

정보지위와 형식 간의 상관관계는 대화, TV 뉴스, 학술문이라는 세 가지 사용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관계의 방향에 따라서도 해석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와 표현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뉜다. 또한 정보구조의 각 하위부문들도 서로 일정한 함의관계를 가진다. 본고는 말뭉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상관관계의 실제 양상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어 관형사절 연구

박 형 진

2016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검토하고 그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뉘어 논의되었던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한국어 관형사절을 이해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고 관형사절을 분류한다. 그리고 새로운 체계 내에서 파악되는 한국어 관형사절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밝히고, 선행 연구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2장에서는 ‘X+명사’ 구성에서 X를 명사의 보충어와 부가어로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관형사절의 정의 및 범위를 논의하였다. 명사도 동사와 마찬가지로 의미론적 논항을 취할 수 있으며, ‘X+명사’ 구성에서 X가 명사의 의미론적 논항이면 보충어, 그렇지 않으면 부가어로 판단된다.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는 형태적 기준과 표제명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루는 통사적 기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적 기준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3장에서는 한국어 관형사절의 체계를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누는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어 관형사절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다.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누는 것은 영어를 중심으로 한 생성 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국어의 관형사절 중에는 관계절에도 명사구 보문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예가 존재한

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관형사절 내부에 표제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될 수 있는가에 따라 관계절과 비관계절로 나누고,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의 보충어이나 부가어이나에 따라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로 나누는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관형사절의 통사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먼저 보충어 관형사절에 대해서 보충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충어 관형사절이 표제명사와 주절에 대해서 보이는 통사적 의존성과 보충어 관형사절의 논항성 위계를 논의하였다. 부가어 관형사절에 대해서는 관계절의 관계화 제약과 관계절이 표제명사와 주절에 대해서 보이는 통사적 독립성을 논의하였다.

5장에서는 관형사절의 의미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보충어 관형사절은 표제명사의 의미론적 논항이기 때문에 의미역을 가질 수 있다. 보충어 관형사절이 가지는 의미역에는 내용역(Contents), 기준치역(Criterion), 대상역(Theme), 결과역(Result), 이유/원인역(Reason), 배경역(Background), 목적역(Purpose), 종차역(Differentia), 속성역(Property)이 있다. 그리고 관계절이 표제명사의 보충어로 해석될 수 있는 조건을 논의하였다. 한편 부가어 관형사절에 대해서는 관계절의 의미가 해석되는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6장은 결론으로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林花鄭延〉 연구

김 동 욱

2016년 2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병설

본 논문은 〈임화정연〉 연구사에서 오랜 쟁점이었던 구조적 불연속성 문제를 해결하고, 〈임화정연〉의 문학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임화정연〉의 모든 이본 및 관련 기록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72책본과 다양한 차이를 지닌 낙질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국대본이나 뿌리깊은나무본(2)는 72책본보다 더 상세한 서술을 지니고 있었으며, 유일서관본은 서두의 가문 서술 순서, 화병아의 혼사 장면 등에서 72책본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또한 관련 기록을 통해 〈임화정연〉이 19세기를 중심으로 널리 향유되었으며, 72책 이외에도 40책, 50책, 139책, 141책 등 다양한 형태의 이본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인물갈등, 이본, 관련작의 세 측면에서 〈임화정연〉의 서사구조를 분석했다. 72책본 〈임화정연〉은 주인공 임규의 두 번째 갈등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작품이 종결되는 ‘미완의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 현존하는 낙질본들을 살펴본 결과 72책본 〈임화정연〉은 ‘전반부-임규’, ‘후반부-정연경’의 ‘이원적 서사구조’로 구성되었으며, 72책본에서 미완의 상태로 남은 인물갈등은 〈쌍성봉효록〉의 전반부에서 완결된다는 점도 발견하게 되었다.

IV장에서는 〈임화정연〉의 서술의식을 살펴보았다. 〈임화정연〉은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과 비교했을 때 규범적 의식이 약화된 편이다. 〈임화정연〉은 말미에서 작품의 교훈적 가치와 사실성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잔

혹한 장면으로 묘사될 법한 부분도 가급적이면 회피하거나 축소하여 서술했다. 다음으로 〈임화정연〉에서는 부계 중심적 구성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임화정연〉은 주인공의 부계친족보다 처족이 작품의 사건 전개와 배경 설정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인공 임규는 추남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는 시가의 인물들이 군자, 처가의 인물들이 소인으로 묘사되는 풍서갈등담의 시각과 구별되는 형상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화정연〉은 인물발화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내적발화의 횟수와 분량 역시 많은 편이었다. 특히 진상문의 내적발화가 임규보다 많이 제시되는 등 주인공과 대립하는 악인의 관점에서 작품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다. 〈임화정연〉의 이러한 특징은 인간군상의 다면적이고 복잡한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서, 장편소설 장르의 정체성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움직임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V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임화정연〉 텍스트의 전승과 변천에 대해 논했다. 앞서 살펴 본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추정해 본 결과, 본 논문에서는 失傳本 〈임화정연〉이 임부의 3대 서사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72책본 〈임화정연〉은 임부의 1대와 2대, 〈쌍성봉 효록〉은 3대와 4대를 다루고 있다. 실전본 〈임화정연〉은 임부의 1대, 2대, 3대를 다루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실전본 〈임화정연〉에서 3대 부분의 서사가 분리되어 72책본이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2대의 서사만으로 이루어진 72책본의 형태가 먼저 완성된 후 3대의 내용이 첨가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72책본은 실전본에 비해 서사의 일관성과 완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승 과정에서 양적 우위를 점했다. 상업적으로 활발히 유통된 한글장편소설의 서사는 유통의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임화정연〉의 구조적 불연속성 문제 및 작품의 문학적 특징에 대해 나름의 답을 제시했다. 〈임화정연〉은 19세기 후반 무렵 한글장편소설의 대표작으로 거론될 정도의 문학적 위상을 지녔으며, 장편소설의 장르적 속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작품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장편소설사에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

철종시대 연행록(燕行錄) 연구

허 방(許放)

2016년 2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 명 호

연행록(燕行錄)은 조선후기에 청조 중국의 북경을 다녀온 사행(使行) 기록이다. 이러한 연행록은 청조사(淸朝史), 한중 관계사, 한중 문화 교류 등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본고는 철종시대, 즉 1850년(철종 1년, 淸 道光 30년)부터 1863년(철종 14년, 淸 同治 2년)까지 창작된 한문 산문 연행록을 대상으로, 해외 기행문학으로서의 문예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행록에 담긴 중국 건문의 내용과 당시 이루어진 한중 문화 교류에 관한 역사적·문화사적 고찰도 병행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18세기의 연행록에 비해, 19세기의 연행록에 대해서는 학문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시기의 연행록이 18세기 연행록의 성과를 면면히 계승하는 가운데 그 나름으로 변화를 추구한 과정을 세심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철종시대의 연행록은 내외외환에 처한 중국의 일대 격동기에 연행을 다녀온 기록들인 만큼, 시대 인식이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 네 가지 방면에서 철종시대의 연행록을 분석하였다. 첫째, 철종시대 연행록을 통해 조선 문인의 대청(對淸) 인식과 대서양(對西洋) 인식, 아울러 중국인의 대조선(對朝鮮) 인식에 일어난 변화를 탐색하는 것이다. 둘째, 양국 문인의 교류를 중심에 두고 시문 창화와 서화(書畵) 및 서적 증정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문화 교류 양상을 구명하는 것이다. 셋째, 글쓰

기 방식을 본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철종시대 연행록의 문예적 성취를 부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하일기』와 관련하여 철종시대 연행록이 전대 연행록의 전통을 계승한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본고는 철종시대의 연행록 전반(全般)을 최초로 연구하는 만큼, 사행시기 순서에 따른 통사적(通史的)인 구성과 개별 연행록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축조(築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제2장부터 제8장까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철종시대 연행록 총 13종 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7종의 연행록을 선별하여 사행시기 순서대로 차례로 고찰하였다. 즉 권시형(權時亨)의 『석단연기(石湍燕記)』, 강시영(姜時永)의 『유현삼록(輜軒三錄)』, 서경순(徐慶淳)의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 김직연(金直淵)의 『연사일록(燕槎日錄)』, 박제인(朴齊寅)의 『연사록(燕槎錄)』, 신석우(申錫愚)의 『입연기(入燕記)』, 이항익(李恒億)의 『연행일기(燕行日記)』에 대해 내용과 형식상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주요 연행록들에 대한 각론(各論)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철종시대 연행록의 전반적인 특징을 총괄하면서, 전대의 연행록들과 비교하여 그 문학사적 성과를 논하였다.

철종시대의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현실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내우(內憂)’, ‘외환(外患)’, ‘은우(隱憂)’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내우’는 태평천국의 난을 비롯해 수많은 반란에 직면한 중국의 사회적 혼란상이다. ‘외환’은 제2차 아편전쟁 시기부터 시작된 중국의 대외 관계의 변화 양상이다. ‘은우’는 북중국까지 퍼진 태평천국군의 북벌과 영불연합군의 군사 활동이 조선에 끼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주목이다. 이와 같이 조선에 대한 ‘은우’를 기초로 한, 중국의 ‘내우’와 ‘외환’에 대한 예리한 관찰은 철종시대 연행록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철종시대의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계승’과 ‘전환’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계승’은 주로 문학 교류에 해당한다. 양국 문인의 시문 창화 모임, 이른바 아회(雅會)는 19세기 전기에 이어 철종시대에도 유지되었다. 한편 ‘전환’은 주로 학술 교류에 해당한다. 19세기 전기에 금석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한중 교류는 고증학풍의 쇠퇴와 더불어 시대적 격변에 따라 정세 관찰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연행록의 체제는 각각 일기나, 시가, 잡록, 기사 등으로만 일관한 ‘단일체’와, 일기+시가, 시가+잡록, 일기+기사, 시가+일기+기사 등으로 구성된 ‘복합체’의 양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김직연의 『연사일록』과 박제인의 『연사록』은 19세기 전기 연행록의 복합체를 답습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행록은 일기체이나 복합체의 잡다한 내용을 통합하는, 일기체의 ‘변주(變奏)’를 보여주었다. 한편 신석우의 『입연기』는 ‘기(記)’를 연행록의 골간으로 삼고 왕복 서신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연행록의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였다.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 철종시대의 연행록은 장면 중심 묘사, 대화의 빈번한 구사, 복선에 의한 유기적 구성 등 소설적 수법을 즐겨 구사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고문체(古文體)와 백화체(白話體), 조선식 한문체 등 다양한 문체를 구사하고, 풍경과 문물과 인물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풍부한 해학성(諧謔性)을 추구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예적 성취를 보여주었다. 그 점에서 철종시대의 연행록은 전대의 연행록 중 특히 『열하일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박제인의 『연사록』과 신석우의 『입연기』는 중국의 선진 문물에 대한 관심과 복학사상을 계승했으며, 권시형의 『석단연기』, 서경순의 『몽경당일사』, 박제인의 『연사록』은 『열하일기』의 소설적 수법을 적극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

1920년대 초기 한국시에서의 송고시학과 생명공동체의 이념

최 호 영

2016년 2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유중

이 글의 목적은 1920년대 초기 한국시의 특수성을 ‘송고시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송고시학이 당대 조선적 현실에서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생명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해명하려는데 있다. 일찍이 ‘1920년대 초기’는 본격적인 근대문학의 전개가 가능했던 시기로서 ‘미적 근대성’이라는 개념에 의해 평가되어왔다. 거기서 나아가려한 후속연구에서는 1920년대 초기 시의 주요 주제인 ‘자연’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그리거나 도달 불가능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송고’에 대한 인식을 읽어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구 이론과 일본 담론을 근거로 접근해온 기존의 연구에서는 ‘미적 근대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이질적인 기호로서 ‘조선’과 ‘전통’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미적 근대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정당화되어왔다. ‘조선’과 ‘전통’에 대해 ‘반근대’나 ‘전통주의’라는 개념을 덧붙이거나 이를 외부의 담론과 직결시키는 방식은 그러한 의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 이론으로 무장한 ‘송고 미학’과 보다 직접적으로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식의 ‘풍경론’을 1920년대 초기 시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1920년대 초기 텍스트 자체에 내재해 있는 특수한 관점에 따라 ‘송고’를 읽어내고자 한다. 그러할 때 1920년대 초기 시에서 ‘자연’은 대상

의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무한’, 대상의 절대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영원’, 대상의 불가해성(不可解性)을 나타내는 ‘신비’의 범주를 동반함에 따라 ‘미적 원근법’으로 환원할 수 없는 지점에 놓이게 된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1920년대 초기 시인들은 ‘자연’에 대한 도달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문학적 지표로서 ‘거리감’을 도입하고 있다. 그들은 ‘미적 원근법’으로 환원할 수 없는 숭고한 영역을 발견함에 따라 자신들의 예술을 ‘진리’의 심급으로 승격시킬 수 있었으며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거리감’을 도입함에 따라 다다를 수 없는 위치에 두었던 세계는 현실의 이념으로 환원되기보다 끊임없이 현실에 도래해야할 ‘이상향’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글의 2장에서는 1920년대 초기 조선의 문단에서 숭고에 대한 인식이 파생하게 된 내·외부적인 사정을 검토하고 1920년대 초기 시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숭고시학’의 체계를 해명하고 있다. 1920년대 초기 시에서 숭고시학은 ‘무한’, ‘영원’, ‘신비’의 범주를 가진 대상에 대한 다다를 수 없는 ‘거리감’을 도입하면서도 그러한 대상에 대한 만남의 지향성을 창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숭고시학의 장치는 김소월이 영원성과 찰나를 매개하기 위해 도입한 ‘영혼’의 ‘거울’과 ‘악기’, 김억이 찰나와 표박을 결합시킨 산물인 ‘해파리’, 그리고 황석우와 박종화가 각각 신비주의와 결합된 미지의 세계를 ‘표상’하기 위해 도입한 ‘기분’과 ‘정조상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숭고시학의 장치를 통해 숭고한 영역에 있는 대상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생명’은 자아의 정신적 상승을 나타내는 표지로 등장한다. 나아가 이 글의 3장에서는 2장에서 세운 방법론을 토대로 1920년대 초기 텍스트에서 숭고를 유발하는 계기들을 유형화하고 숭고시학의 관점에서 거기에 담긴 시적 특성과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1920년대 초기 시에서 ‘자연’과 함께 다다를 수 없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애인’, ‘고향’, ‘어머니’ 등으로 나타난다. 1920년대 초기 시인들에게 ‘애인’, ‘고향’,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감싸는 토대나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들이 ‘애인’, ‘고향’, ‘어머니’의 대상에 ‘조선’이나 ‘전통’의 기호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점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조선’

이나 ‘전통’은 상상이나 관념에 의해 구성된 산물이라기보다 당대의 공동체적 현실을 구성하는 의미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그들에게 ‘애인’, ‘고향’, ‘어머니’는 당대의 현실에서 ‘부재’하고 있을 뿐 존재하지 않았던 대상은 아니다. 그들이 그러한 대상과 결부시킨 ‘조선’이나 ‘전통’이 여전히 오랜 세월을 거쳐 ‘혈액’, ‘노래’, 그리고 ‘언어’ 등을 매개로 전해오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920년대 초기 조선에서 ‘조선’이나 ‘전통’은 국민국가 이상의 역사적 지평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송고시학은 당대의 담론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공동체’의 논의와 필연적으로 만난다.

이 글의 4장에서는 1920년대 초기 시에서의 송고시학이 당대의 현실에서 공동체의 논의로 심화되고 있는 지점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첫 번째로, 송고시학에서 ‘조선’이나 ‘전통’의 기호를 통해 ‘애인’, ‘고향’, ‘어머니’를 ‘생명’의 근원으로 두려는 방식은 당대의 현실에서 ‘단군’으로 표상되는 선조들의 문명을 ‘생명’의 궁극적 기원으로 두려는 움직임으로 구체화된다. 즉, 1920년대 초기 조선에서 형성되고 있던 공동체는 이득한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기원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정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송고시학에서 나타난 ‘생명’은 당대 조선에서 이상적 공동체를 창출하려는 원리로 구체화된다. 말하자면, 1920년대 초기 지식인들은 ‘생명’의 개념을 매개로 공동체의 두 축을 담당하는 ‘개체’와 ‘전체’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의 원리인 ‘공동(共同)’의 원리를 활성화시키는 윤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의 4장에서 논의하는 공동체의 개념은 단체나 조직과 같은 실체로 환원되거나 소위 전통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과 같이 외부 담론이나 정치적 이념으로 규정되는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 1920년대 초기 조선에서 공동체는 전통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의 사상들이 당대의 현실에서 공유한 특이성(singularity)을 가지고 혼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단군’으로 표상되는 정신적 토대 아래 ‘생명’을 매개로 하는 ‘공동(共同)’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 ‘생명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 ‘숭고시학’과 ‘생명공동체’라는 개념으로 1920년대 초기 시와 담론의 성과를 살펴려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먼저, 이 글에서는 1920년대 초기 시에 나타난 ‘숭고’에 대한 인식을 서구의 미학 이론과 일본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1920년대 초기 텍스트 자체에 내재한 생산적인 가능성에 따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숭고시학은 종래의 연구들에서 그 자체로 대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던 근대와 전통, 미학과 정치 등이 어떠한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간 단절되어 있던 1920년대 초기와 중기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숭고시학이 ‘생명공동체’의 이념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심화되고 있다고 봄에 따라 1920년대 초기 조선에서 근본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동체의 미세한 의미망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생명공동체’의 개념이 국민국가나 민족주의 이상의 지평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앞으로도 조선의 특수한 현실에 기반하는 공동체의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박사학위 논문

중세한국어 감동법 연구:

‘깨달음’과 ‘복수성’

河崎啓剛(가와사키 케이고)

2016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본고는 주로 중세한국어 한글자료 및 음독구결자료를 대상으로 삼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많이 품고 있는 “감동법”에 초점을 맞추어 그 統辭的, 形態的, 意味的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제2장에서는 感動法과 섞여 있었던 “복수표지”를 석출한다. 高永根(1980) 이래로 感動法은 ‘-웃, -dot’ 계열 및 ‘-ㅅ-’ 계열의 두 계열로 파악하는 것이 一般的이었으나, 본고는 이 중 모든 ‘-ㅅ-’ 및 뒤에 1人稱 ‘-오-’가 오는 모든 ‘-웃’(-웃² -오-)은, 실은 感動法이 아니라 主語가 複數임을 隨意的으로(optionally) 表示하는 “복수표지”임을 밝힌다. 現代語에서는 ‘-들’ 浮動(floating) 현상이 발달되었지만, 역시 動詞句 안에서 主語의 複數性を 隨意的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표현적으로 거의 等價物이다. 결국 기존의 感動法 선어말어미들은, 이제 진정한 感動法 ‘-dot/웃’ -’과 복수표지 ‘-ㅅ/웃² -’의 두 가지로 새로 인식되어야 하는 셈이다.

이 성과에 의해, 제3장에서는 이제 “순수한 感動法” ‘-dot/웃’ -’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본고는 그 핵심을 “깨달음 표지”(mirativity marker)로 파악함으로써 그 多岐한 用法을 분류·정리한다. “깨달음”(mirativity)이란 “증거성”(evidentiality)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도 서로 독립적인 문법범주로서, 그 핵심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닌, 그 자리에서 새로 얻게 된(의식화된) 신정보임”을 표시한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感動法

을 ‘구나’라는 현대어 mirativity 표현에 의지하여 이해·해석해 왔지만, 실은 그 외에도 ‘네’, ‘쟤’, ‘ㄴ/르 것 같’, ‘ㄴ 셈아’, ‘ㄴ 터아’ 등의 다양한 mirativity 표현들을 구사함으로써 이해·해석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中世韓國語의 感動法 體系는 본래적이고 짝 짜인 mirativity system이라는 점에서 유형론적으로도 드문 귀중한 사례이며, 이 체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술하는 일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中世韓國語 研究가 세계 언어유형론에 크게 이바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래 mirativity marker인 感動法 ‘dot/ot’-’의 다양한 用法 중에는, 證據性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할 수 있는 用法이 많다. 이는 기존에 흔히 보고되었던 증거성 표지들의 “깨달음 확장(mirative extension)” 현상과는 반대로, 말하자면 mirativity의 “증거성 확장(evidential extension)” 정도로 부를 만한 현상인데, 이는 두 가지 범주의 독립성과 쌍방향적인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또한 제3장 10절에서는 “1人稱 主語의 感動法”에 주목함으로써, 感動法 ‘dot/ot’-’과 1人稱 ‘o’가 실은 統辭的으로도 意味的으로도 서로 排他的인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먼저 統辭的으로는, 종래 一般의이었던 믿음과는 달리 비록 主語가 1人稱이라도 感動法 ‘dot/ot’-’ 뒤에 “1人稱” ‘o’가 결합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또한 意味的으로는 종래 현대어 mirativity 표현 ‘더라’에 대해 알려졌던 “人稱制約과 그 例外”, 즉 “원칙적으로 1인칭 主語와 배타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자신을 마치 제3자처럼 客觀化, 對象化할 경우에는 공기가 가능해진다”라는 현상이 사실은 mirativity의 一般的 特徵으로서 中世語 感動法에도 널리 적용되는 현상임을 확인한다. 이는 Aikhenvald(2004)의 증거성에 대한 논의에서 “1人稱 效果”(first person effect)라 명명되어 一般화된 현상과 통한다.

이처럼 感動法의 핵심적 의미와 다양한 用法을 확인한 다음, 제4장에서는 주로 그 用法의 체계적 부합에 근거하여, 종래 잘 파악되지 않았던 ‘가’계 감동법 체계 [-것다[-가-ot’-대], -거시네[-가-ot’-네], -거시이다[-가-ot’-아-대]의 존재를 지적하고 증명한다. 이 ‘것다’는 종래 [-가-시]처럼 분석되었

던 대상이며, ‘-거시니’, ‘-거시이다’는 소위 非尊稱의 ‘-거시니’, ‘-거시이다’로서 그 正體가 不分明하였던 것인데, 이들을 하나의 활용체계로 파악하는 것은, 일련의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가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中世韓國語 자료 중에서는 ‘-샤소니’, ‘-샤소이다’나 ‘-돛도다’, ‘-느쫘다’ 등, 우리가 아는 中世語 文法을 벗어나는 感動法의 예들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제5장에서 이들에 대해서도 정리와 설명을 시도함으로써 中世韓國語 感動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어 결과구문 연구:

한·중 대조 및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심 지 영

2016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진호

본고는 한국어 ‘결과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의 다양한 형식 및 그 특징들을 관찰 기술함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되, ‘결과’의 의미를 중심으로 각 형식들의 내적인 연관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아울러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하여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결과구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과구문’에 접근하는 본고의 기본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통합을 결과구문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간주한다. 둘째, ‘결과’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표시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표현론적 접근법을 채택한다. 셋째, 구문문법적 시각을 채용하여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의 결과구문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교차언어적 관찰을 통하여 결과구문의 본질적 공통점과 개별 언어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을 고찰한다.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밝히고 주요 선행연구들을 제시하였다. 2장 기본논의에서는 일반언어학적 관점에서 ‘결과구문’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본 후, 중국어 결과구문을 통해 개별 언어적 특수성을 보였다. 이어서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결과표시 요소의 문법범주에 따라 각 유형의 대표형을 지정하였다.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AP계 V’, ‘NP로 V’, ‘V1어 V2’ 등 대표형 결과구문에 대한 기술이 된다.

3장에서는 ‘-게 V’ 형식 중 어떤 것을 결과구문 논의에서 다룰지를 결정하고, 그 중 대표적인 상태변화 결과구문인 ‘AP게 V’에 대하여 세부 유형별로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때 ‘AP게’는 논항의 객관적인 상태 변화를 표시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개념화자의 평가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집중적으로 논하였다. 이어서 ‘방식(manner)’보다는 ‘결과(result)’의 의미 표시가 ‘AP게’의 보다 근본적인 기능임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와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NP로 V’ 구문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동사연결형과 결합할 때 도착점 도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NP로 V’의 경우 어떠한 동사부류와 결합하는지를 목록으로 밝히고 그 경향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목적어+산출동사’ 구성의 산출구문이 ‘NP로 V’형 결과구문과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5장의 목표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한 종류로서 ‘V1어 V2’의 위상을 확실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지금까지 결과구문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타동사+타동사’ 구성 역시 동사의 결과 함축에 기대어 결과를 표시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V1어 V2’ 형식은 결과구문을 구성하는 외에도 V2 자리에 보조동사가 쓰여 동사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결과상태상을 표시하는 등 한국어 결과범주의 여러 층위와 관계되는 형식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V1어 V2’는 한국어에서 사건통합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형식이라는 점에서 그 구문적 성격이 확인됨을 말하였다.

6장은 결과구문에 대한 한·중 대조 분석적 고찰을 담고 있다. 우선 한·중 결과구문의 결과 부호화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한·중 결과 표현의 대응양상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7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의 결과범주가 매우 현저하므로 결과구문 교육의 필요성이 특별히 대두된다. 이들을 위한 결과구문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본고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학습자 모국어 변인을 고려한 교수요목 마련. 둘째, 의미중심의 문법 교육

보강. 그리고 관련 문법항목의 위계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교수.

마지막 8장은 결론으로, 앞선 내용과 주장에 대한 요약과 남은 문제를 제시한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어 명사와 부사의 중복 범주 연구

유 영 영(劉榮榮)

2016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본 연구는 명사와 부사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명부 중복 범주를 명부 통용어, 부사성 명사, 명사성 부사로 구분하고, 각 부류의 의미적·통사적 특성을 사전과 말뭉치에 기반하여 논의하였다. 이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의미적으로 시간, 분량이나 정도, 행위의 양식, 양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통사적으로는 단어마다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며 명사성과 부사성을 모두 갖고 있지만 정도 차이를 보인다.

2장에서는 품사 간의 중복, 명사와 부사의 전형성, 명사의 부사화 등 기본적 논의를 하였다. 전형적인 명사와 전형적인 부사가 가지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명사와 부사의 판별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기준에 따라서 명부 중복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이 명사 전형성과 부사 전형성을 어느 정도 가지는지,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판정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명사로서의 쓰임과 부사로서의 쓰임을 모두 가지는 명사-부사 통용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명부 통용어들은 명사 전형성과 부사 전형성에서 차이가 난다. 결합 가능한 격조사의 수, ‘이다’의 결합 기능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명부 통용어를 명사성이 강한 것, 부사성이 강한 것, 명사성과 부사성이 거의 대등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명사적 용법에 있어서 격조사가 두루 결합할 수 있으면 명사성이 강하고 제한된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명사성이 약하다고 보았다. 한편, 명부 통용어는 기원이 명사인지 부사인지에 따라 부사에서 명사로 용법이 확대된 것과, 명사에서 부

사로 확대된 것으로 나뉘었다.

4장에서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부사성 명사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부사성 명사는 조사 없이 부사어로 쓰일 때 관형어의 결합 가능 여부에 따라서 관형어의 수식이 수의적인 경우, 불가능한 경우, 필수적인 경우로 구분되었다. 명사성과 부사성에 있어서 부사성 명사는 명부 통용어보다 부사성이 약하며, 부사성 명사마다 정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관형어의 수식이 수의적인 부사성 명사는 필수적인 것보다 부사성이 강하고, 뒤에 조사 ‘에’나 ‘로’를 상징할 수 없는 부사성 명사는 ‘에’, ‘로’를 상징할 수 있는 것보다 부사성이 강하다.

5장에서는 보충어를 취할 수 있거나 계사 ‘이다’ 혹은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성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보충어를 취하는 부사는 명사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부사와, 명부 통용어로 쓰이는 부사로 나뉜다. 보충어에는 관형사, 명사, 관형절이 포함되는데 명사성 부사마다 취하는 보충어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부 명사성 부사는 보충어를 취할 수 있는 동시에 ‘이다’와 결합할 수도 있다.

6장은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송영 문학에 나타난 ‘체험’과 현실인식의 관련 양상 연구

임 혁

2016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이 논문은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송영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그의 작가의식이 계급의 문제를 포함하여 식민지와 제국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층위의 문제들을 포괄해 가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송영이 노동현장의 구체성을 묘사한 소설과 풍자적 기법이 빛나는 희곡으로 계급의식의 문학적 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식민지 속국으로서의 조선의 문제들을 예리한 시선으로 간파하면서 식민지 대중들과 공유하려 했던 작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송영 문학의 특징은 ‘체험’이 텍스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배재고보에 재학하던 송영은 3·1운동에 참여한 뒤 학업은 그만두고 여러 직업 현장에서 노동을 시작한다. 이 같은 노동의 체험은 1922년 초반을 전후한 시기 일본 동경으로 건너간 뒤 더욱 본격화된다. 그리고 이 동경에서의 생활은 송영 문학 초기부터 자양분이 되는 노동체험과 함께 이념을 공유하는 인적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송영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등단할 무렵 송영의 텍스트들은 무엇보다 이와 같은 자신의 강렬한 체험과의 관련성 아래 산출된 것이었다. 기존의 연구 경향은 염군사에서 카프로 이어지는 계급적 이념이 송영의 노동체험을 매개로 문학적 질감을 얻었다는 전제 아래, 송영의 초기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몇

몇 노동소설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이 송영 문학의 일부만을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만드는 한편 여러 층위로 존재하는 다수의 텍스트들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게 만들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송영의 텍스트들은 단일한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거나 몇몇 범주들로 분류하기에는 애매할 정도로 다양한 창작상의 깊이와 폭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송영의 텍스트들을 포괄하여 검토함으로써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송영의 본격적인 작가론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송영의 노동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들을 참조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던 텍스트들의 문학적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았다. 요컨대, 송영은 1920년대 활동을 통해 등단 이전부터 형성되었던 사회적이고 이념적인 의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하는 가운데 일정한 성공과 실패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송영의 문학적 지형도는 전반적인 소설의 우세 속에서 계급의식의 문학화라는 큰 목적 아래 산출된 다양한 결과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주로 투쟁적인 노동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남성을 주요 인물로 설정하고 그들의 활동공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계급적 대립을 극복해가려는 움직임에 주된 서사의 특성으로 삼고 있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20년대 송영의 텍스트들은 이 같은 노동소설의 특성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비균질적인 지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송영 문학의 독특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즉 송영은 계급문학의 실천이라는 궤도 위를 달리면서도 ‘식민지-제국’의 구도에서 파생되는 현실적 모순과 민족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사랑이나 연애와 같은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 이념적 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 긍정적인 국면을 제시하고자 했다. 송영은 또한 신념에 투철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도 그 역시 평범한 사람으로서 맺고 있는 인간적 관계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텍스트 속에 녹여냄으로써 송영 자신이 늘 경계해왔던 관념적인 인물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III장에서는 1930년대 들어 변화를 겪는 송영의 텍스트들을 검토하였다.

이 시기 송영은 II장에서 검토했던 문제의식과 문학적 자산들을 여전히 다듬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심화·확대해 나아갔다. 비록 그러한 경향이 1920년대의 텍스트들에 비해 뚜렷하게 문면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송영은 보다 교묘하고 치밀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이어나간다. 기존의 연구들이 1930년대 송영의 문학에 대해서 계급문학의 긴장감을 잃고 통속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텍스트 행간에 숨어 있는 문제의식에 다가서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30년대는 송영의 문학적 여정에 있어서 가장 의욕적인 활동을 보인 시기로서 소설과 희곡 뿐만 아니라 벽소설, 강좌, 상식 등 전 방위적 글쓰기 형식을 실천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여기서는 송영의 1930년대 텍스트들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적 지점들을 교차하여 읽음으로써 그가 자신의 문제의식을 192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송영은 이 시기 텍스트에서 일상의 시공간을 전면화하면서도 보조적 인물을 통해 이념의 지속성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이는 부재하는 주의자인 남성을 기다리면서 생활을 지키는 아내와 어머니 등의 여성인물 또는 민중들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지식인의 형상 등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다. 송영의 1930년대 문학 활동이 대중과 영합하는 통속적 문학의 길로 하강했다는 기존의 인식을 수정하고 나아가 계급과 민족의 문제에 더욱더 천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문학적 형식에 대한 송영의 이 같은 고민 때문이다.

IV장에서는 송영의 1940년대 이후 활동을 검토하였다. 송영은 1940년대 들어 그 창작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진다. 1939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 송영은 소설 집필을 중단한 채 희곡만을 창작하고 무대 위에 올린다. 그리고 이 희곡 중심의 활동은 연극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일부 국민연극 텍스트들과 대중극 계열로 추측되는 다수의 공연대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40년대 송영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 방위적으로 집필한 텍스트들을 교차해 읽음으로써 생산적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은 유효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어 가고 있던 전시동원체제라는 외부적 여건은 작가의 자유로운 집필과 공연활동을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객관적 정세는 일본 제국주의가 신체제의 슬로건으로

내건 내선일체, 충후봉공 등의 주제를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형상화해내기를 강요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송영 역시 일제 말기에 국민연극 텍스트를 창작하고 연극경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송영의 일제 말기 희곡 텍스트들을 그의 전체 문학 활동과의 관련성 아래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1930년대까지 송영의 문학에서 발견되었던 내용과 형식적 특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일제 말기 희곡 텍스트들에 접근함으로써 친일과 저항의 이분법에 얽매어 있던 국민연극의 연구 경향으로부터 일정 부분 탈피하고자 하였다. 일제 말기 송영의 희곡들은 국민연극으로서의 체제 협력적인 면모를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이전의 희곡들이 보여준 극작술이 지속·진전되는 경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송영이 등단에서부터 계급의 문제를 포함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식을 문학적으로 심화·발전시켜 왔던 흐름이, 비록 국민연극과 대중극이라는 희곡 장르로 축소되긴 했으나 1940년대 송영의 텍스트들에서는 어떠한 형태와 수준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요컨대 송영의 일제 말기 희곡 텍스트에서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인물의 형상화 방식과 그 극적 효과에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송영이 일제 당국을 향해 협력적인 포즈를 취하면서도 일제의 담론과는 갈라지는 지점들을 무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방 이후 송영이 다시 소설과 희곡을 함께 창작함으로써 일제 말기에 외적 여건으로 인해 문학적으로 최소한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날카롭게 포착해내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이제까지 희곡과 소설로 나누어져 진행된 송영 문학에 대한 연구들을 지양하고 그가 남긴 텍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온전한 작가론을 시도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송영의 텍스트가 초기에 계급의식을 형상화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이후, 급격히 일상의 통속적인 차원으로 하강했으며 결국은 일제 말기의 체제 협력적 논리 안으로 포섭되어갔다는 흐름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송영의 문학을 계급의식의 형상화라는 단일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했고, 송영이 여타 카프작가들과는 달리 식민지적 특수

성에 대한 관심을 초기부터 문면에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이 유효하게 판단되었다. 요컨대 송영의 텍스트는 계급의식을 중요한 주제로 삼으면서도, 당대 현실적 규정력을 갖고 있던 식민지라는 여건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모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석사학위 논문

김교제 번역소설 연구:

‘역술(譯述)’, ‘저(著)’, ‘찬(纂)’의 의미를 중심으로

차 용

2016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종욱

본 연구는 김교제의 기존에 번역소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그동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던 당시의 작가 표기에 대해서 주목해보았으며 각각 ‘역술(譯述)’, ‘저(著)’, ‘찬(纂)’으로 분류해서 보았다. 본고의 목적은 김교제 소설에 나타난 제반 번역양상을 검토해봄으로써 그의 자의식적인 번역태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역술작’인 『비행선』과 『지장보살』은 외국지명과 인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이 서양 작품의 번역임을 알게 하지만 내용과 주제가 신소설에 접근한다. 『일만구천방』과 『삼춘설』(상)도 역시 ‘역술작’이다. 작품은 중국역본의 주제와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 따라서 역술에는 두 가지 다른 양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역술은 직역과 의역이라는 두 가지 번역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현미경』과 『난봉기합』은 원작을 은폐함으로써 지명과 인명은 모두 현지화 되어 있고 대폭의 개작을 통해 원작 및 대본의 주제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번역방식을 김교제는 ‘저’라고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는 번역자의 능동적인 창작이 많이 첨가되어 있으며, 현대적인 변안개념에 접근하는 개념이다.

또한 ‘찬’이라고 표기된 『쌍봉쟁화』의 분석을 통해 ‘찬’도 ‘저’와 마찬가지로 변안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저’와는 달리 서사의 변용정도에 있어서 원작의 줄거리에 비교적 충실 한다.

본고는 번역소설가로서의 자의식을 가진 김교제의 문학사적 위상을 재고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의는 근대문학 형성기의 번역소설 및 신소설의 발전과 관련하여 일본 혹은 서구로부터의 계보에서 나아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용이라는 계보를 더함으로써 당대의 한국문학을 보다 풍성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아울러 김교제의 ‘역술’, ‘저’, ‘찬’의 개념에 대한 고찰이 당대 다른 작가의 번역태도와 근대적인 번역 및 변안, 저작권 개념의 탄생과 정착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기를 기대한다.

석사학위 논문

근대 계몽기 단군신화 연구

박 성 혜

2016년 8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현설

본 연구는 『신단실기(神檀實記)』, 『신단민사(神檀民史)』, 『규원사화(揆園史話)』, 『단기고사(檀奇古史)』에 수록된 단군신화를 대상으로 하여, 근대 계몽기에 향유된 단군신화의 전승양상과 재편 방식을 규명하고, 그 신화사적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수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순차적 서사단락을 재구성하여 단군신화에 나타난 화소들을 살펴보고, 건국신화의 구성 원리인 신격기능체계를 끌어와서 단군신화의 재편방식을 고찰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예비적 검토로 『신단실기』, 『신단민사』, 『규원사화』, 『단기고사』의 서지 사항을 살피고, 단군신화의 서사단락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문헌을 『신단실기』, 『신단민사』와 『규원사화』, 『단기고사』로 계열화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화소들 근거로 네 텍스트를 ‘단군신앙 관련문헌’으로 통칭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3장에서는 앞 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근대 계몽기 단군신화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단군신화에 나타난 화소들을 고찰하여 기존에 전승되던 화소들과 새롭게 추가된 화소를 구분하였다. 기존의 화소를 검토하여 단군신앙 관련문헌의 단군신화는 허목, 이익, 안정복과 같은 기호남인계의 단군 인식과 『운학선생사적』, 『오계일지집』과 같은 도교계 문헌들이 수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하게 변용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기자 화소와 현원과 치우의 전쟁담,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 몽고족, 중국의 신화적 인물

등이 단군의 후예라는 화소를 살피보았다. 다음으로 단군신앙 관련문헌에서 환인, 환웅, 단군의 신격이 각각 확장형 재편, 대체형 재편, 통합형 재편으로 구성되었음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근대 계몽기라는 시대적 배경 안에서 단군신화가 가지는 신화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1절에서는 단군신화가 신화를 향유하는 집단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호명되어 재구성되었던 신화사적 맥락이 있었음을 지적함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단군신화가 주목되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설명하였다.

2절과 3절에서는 근대 계몽기라는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단군신앙 관련문헌에 나타난 단군신화가 지닌 의미를 밝혔다. 근대 계몽기의 단군신화는 현원과 치우의 전쟁담이나 기자 화소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단군을 탈중화의 표상으로 만들었으며, 환인, 환웅, 단군, 부루와 같은 인물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을 정비하는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문명화의 표상으로 만들었다. 나아가 『신단실기』와 『신단민사』는 일제의 간섭으로부터 단군을 신으로 모시는 대종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적 신관을 흡수하고 일본의 국체론을 배제하면서 단군신화를 경전화하였다. 그리고 『규원사화』와 『단기고사』에서는 역대 단군의 이름과 역년, 단군의 계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과정들을 통해 단군신화를 역사화하려는 의도가 간취된다. 이처럼 신화가 경전화되거나 역사화된 것은 민족주의라는 당대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단군신화가 종교화된 것을 의미한다.

석사학위 논문

西坡 吳道一의 辭職疏 연구

남 윤 혜

2016년 8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종묵

본고는 肅宗代 少論系 문인 西坡 吳道一(1645~1703)의 사직소 중 사직에 겸하여 별도의 의견을 개진한 ‘辭職兼陳疏’를 분석하여, 설득을 위한 疏의 글쓰기 전략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辭職疏는 왕으로부터 제수 받은 관직을 사양하거나 체직 혹은 면직을 요청하는 글이다. 그런데 사직소를 올리는 행위에는 단순한 겸양의 미덕 차원을 넘어 최고 권력자인 군주에 대하여 국가와 조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현실적인 의미가 있었다. 특히 당쟁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17세기 肅宗代에는 사직소의 수와 편폭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직에 겸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형태의 ‘辭職兼陳疏’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소를 올려 당대 사대부들은 사직을 기회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는 가운데 공론을 형성해나갔다.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여 본고는 숙종대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서 오도일이 작성한 사직겸진소의 글쓰기를 ‘설득 전략’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西坡集』에 수록된 오도일의 사직겸진소는 그 양과 표현, 내용 면에서 당대 사직겸진소의 작성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며, 당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기에 문인들이 글쓰기를 통해 왕을 설득하여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간 양상을 잘 보여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근대와 현대의 산문 비평과 분석방법, 서구의 수사학 등을 참고하여 오도일의 사직겸진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가 사직소의 문체적 규범과 격식을 준수하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글의 설득력을 높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의 제Ⅱ장에서는 사직소 양식의 전통과 문체적 규범을 살핀 다음, 17세기 東人과 西人이 분당되는 상황에서 ‘사직점진소’가 대두되어 숙종대에 그 수가 증폭되는 점을 포착하고, 이후 사직점진소의 전범이 되는 李珥의 작품을 통해 그 대체적인 구성 방식과 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직점진소는 당쟁이라는 조선의 특수한 정치상황에서 본래의 사직소 양식이 변모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오도일의 사직점진소가 유독 많이 작성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숙종대 정치적 배경과 그의 정치적·문학적 위상을 살피고, 『서파집』에 수록된 사직점진소를 개관하였다. 여기서는 오도일의 정치적 생애와 실천적 태도가 그의 사직점진소에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문학적 전통과 정치적 배경을 토대로 제Ⅳ장에서는 오도일의 사직점진소 27편 중 그의 글쓰기 전략과 정치현실 양자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높은 문학성을 성취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직점진소가 起頭部, 立論部, 論證部, 結尾部의 네 단락으로 구성된다는 전제 하에 각 단락에서 구사한 수사 전략이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17세기 사직소에 자주 사용된 어휘를 통해 시대적 특수성을 살폈다. 오도일은 전형적인 사직명분을 제시함으로써 신뢰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의견개진의 場을 마련하였고, 적재적소에 비유와 用事 등의 수사기법을 사용하여 민감한 문제를 완곡하게 제기하였으며, 논리를 전개하는 중에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文勢의 완급을 조절하고 글의 首尾를 연결하면서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처럼 오도일은 사직점진소에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왕 숙종을 설득해나갔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그의 사직소의 문학적 성취를 높여주는 동시에 그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는 현실적인 효용이 있었다.

석사학위 논문

기능동사 ‘하다’에 대응하는 ‘받다’의 구문과 구성 연구

이 형 주

2016년 8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본고의 목적은 기능동사 ‘하다’에 대응하는 ‘받다’와 관련된 구문과 구성을 바탕으로 ‘받다’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기능동사론에서 ‘받다’는 ‘되다’, ‘시키다’ 등과 함께 문장 성분들의 문법적 관계를 전환시키는 기능을 가진 전환기능동사로 명명되고 있다. 본고는 기능동사론의 논리에 따를 때 ‘받다’가 전환기능동사로서의 기능을 가지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받다’를 어떤 형태·통사적인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기능동사론 이전의 ‘받다’ 연구는 선행하는 명사와의 관계 및 그 명사와 이루는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선행하는 술어명사(N)와 ‘받다’가 이루는 구성을 형태론적 단위인 단어로 보는 입장, 통사론적 단위인 일반동사구로 보는 입장의 연구가 있었고, 최근에는 그 중간적인 성격의 형태·통사론적 단위인 기능동사구 또는 복합서술어로 보는 입장의 연구가 등장했다. 본고의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견해가 모두 타당하며 각 논의에서 제시한 구성들이 ‘받다’의 구문에 따라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장에서는 ‘받다’와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여 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구문 간의 대응 관계라는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문법 관계 전환의 기능과 피동의 유사성을 보였다. 또한 기능동사론의 기본 개념인 기능동사, 술어명사,

그리고 이 둘로 구성된 형태·통사론적 구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확정하였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받다’가 문법 관계를 전환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능동사 ‘하다’ 및 ‘받다’ 구문의 대응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로써 두 구문의 대응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받다’ 구문은 네 가지 유형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받다’ 구문에서 ‘받다’ 혹은 N+‘받다’가 어떠한 형태·통사론적 특성을 가진 단위인지를 검토하였다. 논의에 앞서 N+‘받다’가 어떠한 형태·통사론적 단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단어나 구(句)가 아닌 그 중간적 성격의 기능동사구와 복합서술어의 판별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판별 기준에 따를 때 N+‘받다’는 기능동사구로 보기가 어렵고, 네 가지 유형의 ‘받다’ 구문에서 N+‘받다’가 크게 세 가지 단위로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N+‘받다’는 구문에 따라 일반동사구 ‘N을 받다’, 복합서술어 ‘[N(을)받다]’, 복합동사 ‘N받다’로 모두 실현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받다’를 기능동사가 아니라 일반동사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 본고는 어휘적 의미를 가진 동사 ‘받다’의 기능동사로서의 설정 가능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받다’의 구문을 유형화하고 ‘받다’의 구성을 판별 기준을 가지고 확인함으로써 ‘받다’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기존에 다양한 입장에서 해석되었던 N+‘받다’가 구문에 따라 일반동사구, 복합서술어, 복합동사라는 다양한 형태·통사론적 구성들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사학위 논문

긴밀한 절 공기를 형성하는 부사적 표현

최 종 원

2016년 8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진호

한국어에서 특정 부사적 표현이 쓰일 때, 특정 절과 특정 절의 긴밀한 의미론적 공기 관계 양상이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과정에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부사적 표현들이 나타나는 구문의 전반적인 문법을 기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0개의 부사적 표현들을 분석하여 문법 사항들을 기술하고 개별 부사적 표현들이 형성할 수 있는 절 공기 패턴을 분석하였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10개의 부사들은 의미적으로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절 공기 관계의 개념을 소개하고, 부사적 표현이 절과 절 간의 공기 관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절 공기(clause collocation) 관계는 관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절과 특정 절의 일종의 의미적 패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절과 절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대표적 요소는 연결어미이다. 그러나 부사적 표현도 절과 절 간의 의미론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의미 운율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의미 운율은 어떤 어휘가 문맥에 의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현상인데, 절 공기 관계나 구문의 특징을 나타내는 데에 유용한 개념이다.

3장에서는 중첩되는 사태를 나타내는 부사적 표현들에 대하여 다루었다. ‘가뜩이나’와 ‘안 그래도’의 경우 의미적인 패턴이 유사한데, 이는 통사적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서로의 구문 패턴이 닮아 있음이 확인된다. 접속부사에 속하는 ‘더욱이’에 대해서는, 선행절의 내용에 한층 더한 사태를 부가한

다는 기능과 후행절과의 관련성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척도 판단과 관련된 부사적 표현들인 ‘차라리’, ‘오히려’, ‘하다 못해’, ‘하물며’를 다루었다. 이들은 의미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와 ‘오히려’가 의미적 전염에 의해 용법이 서로 확장되며, ‘하다 못해’와 ‘하물며’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들의 전반적인 문법 사항들을 기술하고, 절 공기 관계를 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화자가 판단하는 바의 근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사적 표현들인 ‘어쩐지’, ‘아니나 다를까’, ‘어차피’를 다루었다. ‘어쩐지’와 ‘아니나 다를까’는 특히 용법이 유사한데, 구문의 패턴 역시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어차피’는 문맥에 따라 그 기능이 다양하였다. 대체로 어떤 결정에 대해 이유, 근거 등의 내용이 ‘어차피’에 후행하여 절 공기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ㄹ까’의 의향 용법에 대한 연구

姜 詠 里(강영리)

2016년 8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진호

이 논문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 종결어미 ‘-ㄹ까’가 가지는 의향 용법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ㄹ까’의 의향 용법이 직접의문문에서 출현하는 경우와 내포절에 실현되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를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ㄹ까’ 의향 용법의 출현 조건을 ‘-ㄹ까’가 가지는 추측·의심 용법과의 상관성에 기대어 살펴보았다. 또한 다른 의향 용법을 가지는 문법요소와의 대조를 통해 ‘-ㄹ까’ 의향 용법이 의문문에서 실현되는 의향 용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본고는 제3장에서 직접의문문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우선 기존 연구와 각종 사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의문문에서의 의향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많음을 보였다. 본고는 이에 대해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화자의 의향이 반영되는 정도가 다름을 논하고,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선택의문문으로 나누어 화자의 의향이나 이미 화자의 머릿속에서 전제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ㄹ까’ 의향 용법의 확장된 예로 ‘-라고나 할까’ 형과 요청 화행에 쓰이는 ‘-ㄹ까’에 대한 고찰을 통해 ‘-ㄹ까’가 유사한 환경에서 대체 가능한 다른 어미들에 비하여 간접성이 상당히 높고 공손성을 표시하기 위해 선호되는 어미임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ㄹ까’가 내포절의 어미로 나타나고, 상위동사로 사유동사와 포괄적인 용법을 가지는 ‘하다’가 쓰인 경우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로서 구문의 유형과 사유동사의 목록을 확인하여 ‘-ㄹ까’ 절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4장 후반에서는 사유동사 구문과 ‘하다’ 구문에 대해 내포절의 유형별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내포절이 어떤 유형의 의문문인지에 따라 상위동사 중 ‘생각하다’와 ‘하다’에 쓰임에 제약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것이 다의성에서 오는 것임을 논하였다.

제5장에서는 ‘-ㄴ까’ 절이 보조용언에 내포된 구문을 살펴보았다. 먼저 ‘싶다’ 구문에서 드러나는 통사적 제약을 확인하였는데 의향 용법에서는 ‘싶다’ 자체를 부정문으로 쓸 수 없는 등 기존의 추측 용법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제약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 ‘-ㄴ까’ 절이 설명의문절, 선택의문절인 경우, 모어화자마다 수용성에 차이가 보여 고민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어휘적 의미가 약해지는 단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다’ 구문에 대해서 그 제약과 문법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다’ 구문은 ‘싶다’ 구문에 비하여 제약도 많고 구문의 유형도 많지 않아 상당히 문법화가 진행된 상태임을 나타내는데,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확’과 같은 요소와의 공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화자의 충동적인 의향을 나타낼 때 선호됨을 밝혔다.

석사학위 논문

고유어와 한자어의 음절 구조 비교 연구:

2음절어를 중심으로

마야 아타예바

2016년 8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성규

본고는 고유어 2음절어와 한자어 2음절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고유어와 한자어 2음절어의 음절 구조 유형, 음소 배열, 제1·2음절, 제1음절 종성과 제2음절 초성의 연쇄를 살피고 이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한국어 모어화자가 모르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는, 직관적으로 그 단어에 대해 고유어일 가능성과 한자어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러한 직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였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고유어 2음절어와 한자어 2음절어서 CVCCVC, CVCVC, CVCV, CVCCV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런데 한자어에서는 CVCCVC처럼 자음과 자음이 연결되는 2음절어가 일반적인데 비해 고유어 2음절어에서는 CVCVC이나 CVCV처럼 자음과 모음이 연결되는 2음절어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 확인되었다.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고유어 2음절어에서도 자음과 모음이 연결되는 VCVC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한자어 2음절어에서는 자음과 자음이 연결되는 VCCVC가 가장 일반적이다. 활음으로 시작하는 고유어 2음절어에서는 자음과 자음이 연결되는 GVCCV가 가장 일반적이고 한자어 2음절어에서도 자음과 자음이 연결되는 GVCCVC가 가장 일반적이다. 즉, 자음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고유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연결되는 2음절어가 일반적이지만 한자어에서는 자음과 자음이 연결되는 2음절어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 고유어와 한자어 2음절어의 차이점이다. 한편, 활용으로 시작하는 고유어와 한자어 모두에서 자음과 자음이 연결되는 2음절어가 일반적인 것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한자어 2음절어에서 제1음절 초성과 제2음절 초성에 장애음(‘ㄱ’, ‘ㅅ’)만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제1음절 종성과 제2음절 종성에서도 공명음(‘ㅇ(ŋ)’, ‘ㄴ’)만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고유어 2음절어에서는 제1음절 초성과 제2음절 초성에 장애음(‘ㄱ’, ‘ㅅ’, ‘ㄲ’)만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공명음(‘ㄹ’)도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제1음절 종성과 제2음절 종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음(‘ㄱ’)과 함께 공명음(‘ㄴ’, ‘ㄹ’)도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한자어와 다른 점이다.

한국어 모어화자가 모르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는 고유어를 한자어로 인식할 수도 있고 한자어를 고유어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 과정이 잘못 되는 이유를 본 연구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 인식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았다. 설문 조사 결과로는 음절 구조 유형의 비율이 고유어에서 높은 한자어가 고유어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고유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제1음절이나 제2음절을 가진 한자어가 고유어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한자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제1음절이나 제2음절을 가진 고유어가 한자어로 인식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절 구조 유형의 비율이 고유어에서 높은 한국어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고유어로 인식되는 것과 음절 구조 유형의 비율이 한자어에서 높은 한국어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한자어로 인식되는 것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

황석영 문학의 언어와 양식

유 승 환

2016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손유경

이 논문은 황석영 문학의 의미를 모국어 문학어의 재편과 그 양식화라는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황석영 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리얼리즘에 기초한 반영론적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이 과정에서 황석영 문학이 지니는 고유한 언어와 양식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소 간과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활발히 수행되기 시작한 모국어 문학어의 재편과 그 문학적 양식화라는 기획을 고려할 때, 황석영만큼 다양한 실험과 모색을 통해 이와 같은 한국문학의 기획을 구체화한 작가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황석영 문학 전반에 걸쳐 수행되는 언어와 양식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는 것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문학의 존재 조건으로 설정된 모국어 문학어와 이에 부응하는 양식화라는 과제가 구체화되는 양상을 규명하는 작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논문의 2장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비평담론에서 제기되었던 언어론과 양식론을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 시기 활발히 전개된 리얼리즘 논쟁, 민족문학론 등의 비평담론은 공통적으로 서구중심적 문학담론에 대한 탈식민적 폐기와 전유의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비평담론을 토대로 하여 한국 문학의 양식적 모색이 그 문학어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에는 구체적으로 방언, 속언, 은어, 고어 등 모국어의 특정한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언어들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언어들에 대한 대규모의 수

집과 정리 작업 역시 이루어진다. 이 논문은 모국어의 특정 범주들이 강조되고, 수집되고, 정리되어 문학어로 활용되는 이러한 양상을 ‘언어의 아카이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포착하려고 한다. 이 시기의 많은 다른 작가와 같이 황석영은 다양한 담화 장르 및 문학 장르를 양식화하여 모국어의 다양한 층위를 아카이빙함으로써 모국어 문학어의 외연을 확장시킨 작가이다. 그러나 동시에 황석영은 언어의 아카이빙이 지니는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독특한 문학 양식들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가로 평가될 수 있다.

2장에서의 예비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3장에서는 황석영의 초기 중단편 소설과 장편역사소설 『張吉山』을 중심으로 1970년대 황석영이 수행한 언어의 아카이빙과 이를 토대로 시도한 모국어 문학의 양식화의 방법을 고찰하였다. 황석영은 「韓氏 年代記」 등의 작품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폐제된 존재의 언어를 복원할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실제로 이는 「이웃 사람」과 「돼지꿈」 등의 작품을 통해 언어의 아카이빙을 위한 독특한 소설 양식의 모색과 함께 수행된다. 주목되는 것은 황석영의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아카이빙이 세계체제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의 사회과학 및 역사과학의 보편적 개념들을 전유하기 위한 유력한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客地」가 보여주는 바, 서구적 의미의 ‘노동자’에 엄밀하게 들어맞지 않는 존재를 당대 한국적 맥락에서 재구성하여 새로운 ‘노동자’로 호명하려는 기획은 주목할 만하다. 『張吉山』의 경우 언어의 아카이빙을 통한 모국어 문학어 범주의 재구성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역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대 국학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매우 광범위한 언어적 아카이빙을 수행하고 있는 이 작품은, 시간축의 미분을 통한 모국어의 가상적 총체의 창출을 통해 역사적 연속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동일성의 감각을 아울러 창출하며, 상이한 시대를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 아래 묶어낸다.

이어 4장에서는 아카이빙의 극단화를 통해 모국어라는 범주로 통합되지 않는 언어적 이질성이 발현되는 양상 및 이에 대한 황석영의 문화적 대응 방식을 고찰하였다. 구술에 대한 공동 편집이라는 일종의 공동 창작을 통해

제작된 『어둠의 자식들』에서는 아카이비스트와 아카이브의 대상 사이의 관계가 역전되며, 이로 인해 아카이비스트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언어적 이질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언어적 이질성의 발현이 곧 문학과 소설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나아간다는 점은 흥미롭다. 한편 『무기의 그늘』에서는 세계체제 속에서의 언어적 위계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진다. 이 작품은 베트남전쟁의 언어적 상황에 대한 재현을 통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영어 및 베트남어 등 다른 언어와 지니는 관계에 대한 정치한 인식을 보여주며, 특히 언어적 위계의 하위에 놓인 언어가 상위의 언어로 번역될 때 생길 수 있는 오역의 가능성을 통해 언어의 위계질서를 해체하려는 전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같이 『무기의 그늘』이 모국어를 민족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사유하며, 모국어를 그 외부적 조건인 다른 민족어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사유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오래된 정원』은 모국어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드러내면서도 이를 다시 대화적 관계로 통합할 수 있는 고유한 소설 양식의 모색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오래된 정원』은 이질적인 언어들을 대화적 관계 속에 배치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탈냉전 시대의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확보로 발전한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5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황석영 문학의 두드러진 특징인 전통 구비서사 장르의 변용과 그 의미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의 구비서사 장르의 양식적 특성에 대한 천착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2000년대 이후 작품에서 나타나는 구비서사 장르의 양식화 작업이 단순히 기법적인 층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양식적 구조 속에 배어있는 장기 지속적인 역사의식의 발견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언어와 실제 사이의 동일성이라는 리얼리즘적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손님』은 진오귀굿 양식을 차용하여 냉전적 분단체제가 생산한 역사를 상대화하며, 나아가 국민국가의 서사에 맞서는 복수의 리얼리티를 제시하는 매개로서의 소설 양식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발전한 작품이다. 『심청, 연꽃의 길』과 『바리테기』는 전통 구비서사 양식의 변용을 통해 근대성 일반을 반성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작가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심청, 연꽃의 길』은 폭력적 근대에 비자발적으로 편입된 혼종적 주체로서의 이산자가 지니는 분열적 정체성이 근대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이를 통한 근대성 일반의 주체적 재구성을 통해 통합되는 서사를 다루며, 이 과정에서 모국어 개념 역시 민족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의 환기라는 측면으로 국한되지 않는 혼종적이면서도 고유한 개별자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된다. 『바리데기』는 서사무가인 「바리데기」의 변용을 바탕으로 하여, 모국어 문학을 통한 세계적 보편성의 차원에 대한 사유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같이 황석영은 1960년대 후반 이후 한국문학장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모국어 문학어의 재편 및 그 양식화를 위한 구체적인 문학적 실천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이다. 그는 당대 모국어 문학어의 재편에 있어 핵심적 방법론이었던 언어의 아카이빙을 가장 충실히 수행한 작가 중 한 명이자, 동시에 아카이빙의 한계지점을 가장 잘 보여준 작가이며, 또한 언어의 아카이빙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전통 구비서사 양식의 변용을 비롯한 다채로운 양식적 실험을 통해 모국어 및 이를 문학어로 활용하는 문학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려는 시도를 보여준 작가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황석영의 문학은 모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탐구와 사유, 그리고 그 문학적 양식화를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의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하며 탈식민적 전망을 창출하려고 시도했던 한국문학의 복잡하고도 특수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어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연구

오 규 환

2016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기존의 한국어 단어 형성론에서는 화자가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형성한 단위가 언제나 단어라는 점을 전제로 삼아 단어 형성 과정을 연구하여 온 듯하다. 그러나 단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어렵다는 점, 화자가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형성한 단위가 단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단어 형성 부분과 문장 형성 부분이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왕의 단어 형성론에서 다루었던 여러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임시 표현, 복합 구성, 관용 표현 등처럼 실질 의미를 가지는 다단어 구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어휘적 구성’이라는 범주를 제안하고 ‘어휘적 단어’와 ‘어휘적 구성’을 한데 묶는 범주인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망라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 단위는 ‘혼성어’, ‘두음절어’, ‘어기 변동어’, ‘파생어’, ‘합성어’, ‘임시 표현’, ‘복합 구성’, ‘관용 표현’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혼성어와 두음절어는 각각 ‘절단 후 결합 과정’과 ‘결합 후 절단 과정’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하지만 유형 빈도가 높은 혼성어와 두음절어는 대치 과정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복합어는 주로 대치 과정에 의하여 형성되지만 결합 과정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하고 어휘적 구성은 주로 결합 과정에 의하여 형성된다.

둘째, 어휘 단위는 특정한 요인들에 의하여 형태 변화, 의미 변화, 범주

변화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어휘 단위의 형태 변화 요인을 ‘음운 과정의 특성 변화’, ‘특정 변이형의 선택’, ‘형식의 축소 및 융합’ 등으로, 어휘 단위의 의미 변화 요인을 ‘은유’, ‘환유’ 등으로, 어휘 단위의 범주 변화 요인을 ‘결합 패턴의 변화’, ‘재분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어휘 단위가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를 경험할 때에 그 단어성이 증가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크게 어휘화와 탈문법화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어휘화는 둘 이상의 단위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위가 이리저리한 변화를 경험하여 그 단어성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탈문법화는 어휘 단위의 일부나 접사가 재분석을 통하여 단일어가 형성되는 현상이다. 어휘화와 탈문법화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는 변화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어휘화는 점진적인 변화이지만 탈문법화는 다소 급진적인 변화라는 점, 어휘화는 어휘적 구성의 경계 소실을 이끄는 변화이지만 탈문법화는 단순어나 복합어의 경계를 새로 만드는 변화라는 점에서 어휘화와 탈문법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어 반복구성 연구

이 수 연

2016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장소원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에 반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독립적인 체계를 가지는 반복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들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반복은 더 복잡한 언어 단위를 만들어 내는 방식의 일종으로 음운 단위부터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 그러나 본고의 반복구성은 반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반복을 통해 구성 성분의 의미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추가 의미를 획득하게 된 복합적인 구성을 말한다. 따라서 수의적인 반복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어(복합어)와 구문 단위에서의 반복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본고의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획득된다고 할 때, 그러한 의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반복구성 설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반복이라는 방식이 언어 단위의 형성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한다. 화자들은 새로운 의미의 표현을 위해 반복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때의 반복은 수의적이거나 잉여적인 반복 표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둘째, 반복구성에서 무엇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살펴 반복구성의 체계를 세운다. 한 문장 안에서 동일한 어휘가 반복되는 구성,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 형태가 반복되는 구성, 단어나 형태소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 반복어로 그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어휘 형태 반복구성은 어휘를 변항으로 하여 이를 반복시키는 구성이다. 반복되는 요소의 품사에 따라 명사구 반복구성과 동사구 반복구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NP1은/는 NP1, NP1도 NP1, VP1-기는 VP1, VP1-(으)면 VP1-(어/아)까지’ 등의 예가 있다. 이 구성에서 반복되는 요소들은 형태적·의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휘 내부의 의미를 분석하였을 때 각각 단어의 속성적인 면과 지시적인 면으로 분리되어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전형성의 확인, 화자의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 표현, 전칭 양화의 사례 나열, 부정 함축, 부정 판단의 강화 등의 의미가 획득된다.

문법 형태 반복구성은 한 문장 안에서 조사나 어미의 반복이 필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단독으로 사용될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구성을 의미한다. 문법 형태의 반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예로는 ‘(이)고, (이)다, (이)니’ 등이 있다. 이들은 나열되는 모든 항목 뒤에 조사가 붙음으로써 ‘나열되는 항목 이상의 수의 항목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문법 형태의 반복을 통해 의미가 변하는 예로는 ‘(이)나, -다가, -(아/어)도’ 등이 있는데 이들은 행위 뒤에 결합하여 반복성을 나타내거나 각 항목의 동일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반복어 역시 형태소나 단어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 단어를 가리키므로 복합적인 단위로서의 ‘반복구성’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 반복어 중에서도 반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거나, 원 단어가 반복을 통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들을 선별하여 반복구성어로 명명하였다. 이후 반복구성어의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로 새롭게 생성되는 의미들을 고찰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콩쥐팍쥐〉 설화 연구: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자 자 와

2016년 8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현설

본 논문은 〈콩쥐팍쥐〉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의 비교를 통해 〈콩쥐팍쥐〉 설화의 특수성과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콩쥐팍쥐〉 설화 연구사에서 쟁점이었던 〈콩쥐팍쥐〉 설화의 독자성을 규명하고 〈신데렐라〉 유형 설화 내에서 그 위상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신데렐라 설화군’의 유형을 재정리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를 확정하였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서사는 불행한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신발 분실과 신발 시험을 통해, 귀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기본화소와 기본서사에 더하여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와 결혼후일담인 〈검은 신부와 흰 신부 이야기〉를 포함하는 〈콩쥐팍쥐〉 설화도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해당된다. 덧붙여 ‘신데렐라 설화군’ 자료집과 민담 자료집 등에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찾아내 자료 목록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각편을 제시한 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였다. 본고는 처음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를 기준으로 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두 가지 하위 유형이 확인되었다. 첫째는 「처벌형」이고 둘째는 「비처벌형」이다. 이 두 가지 유형에서 각각 적

극적인 「처벌형」, 소극적인 「처벌형」, 소극적인 「비처벌형」과 적극적인 「비처벌형」의 처벌 방식이 확인된다. 이 중 한국의 〈콩쥐팍쥐〉 설화는 「처벌형」에 속하며 소극적인 「처벌형」과 적극적인 「처벌형」이 확인된다.

이어서 〈콩쥐팍쥐〉 설화의 화소와 서사를 살펴보았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속한 〈콩쥐팍쥐〉 설화의 화소를 검토한 결과,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핵심화소 가운데 〈콩쥐팍쥐〉 설화에서는 특히 소와 짓갈이 주목된다. 또한, 〈콩쥐팍쥐〉 설화에는 특이화소로 금기·위반, 꽃·구슬이 나타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팍쥐〉 설화의 서사와 화소를 살펴본 결과, 〈콩쥐팍쥐〉 설화는 결혼후일담 즉 재생 서사와 처벌 화소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화소와 서사적 측면에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콩쥐팍쥐〉 설화의 위상을 보여준다.

제Ⅲ장에서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핵심화소인 소, 물고기 조력자가 〈콩쥐팍쥐〉 설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 사회와 설화에서 소와 두꺼비의 상징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소는 농경사회, 두꺼비는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확인되는 조력자의 피살, 죽음 등의 설화적 기능을 밝혀 〈콩쥐팍쥐〉 설화에서 소로 변한 생모의 죽음은 낮은 가치(인간)가 높은 가치(초월적 조력자)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어서 처벌 방식이 되는 짓갈 화소를 검토하였다. 〈콩쥐팍쥐〉 설화에서 짓갈은 식인 문화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설화에서 흔히 확인되는 강제적인 식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콩쥐팍쥐〉 설화의 특이화소인 금기·위반과 꽃·구슬을 다루었다. 〈콩쥐팍쥐〉 설화에서 금기는 과거와 현재의 삶을 경계 짓는 역할을 한다. 주인공은 신랑이 부여한 금기를 위반하였다가 죽음을 당한다. 살해를 당한 주인공은 나중에 꽃과 구슬로 변했다가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꽃은 생명의 상징물이며 약한 존재물이다. 그런데 꽃에서 구슬로 변하면서 아궁이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조왕신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콩쥐팍쥐〉 설화의 주인공은 집안일 및 농경사회와 관련된 노동을 해본 여성이기에 조왕신을 모시는 공간인 아궁이에서 살아남고 재생될 수 있

었다. 이처럼 〈콩쥐팍쥐〉 설화에 등장하는 재생담을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팍쥐〉 설화의 핵심화소 및 특이화소와 관련된 서사를 논의하였다. 우선 가부장제 문화와의 관련성이다. 다른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비교해 볼 때 〈콩쥐팍쥐〉 설화의 계모는 주인공을 학대하면서도 주변 사람과 남편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콩쥐팍쥐〉 설화의 학대담은 특히 한국의 가부장제를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콩쥐팍쥐〉 설화의 조력자 서사와 처벌 서사에 농업사회와 어업사회의 영향이 반영된 양상을 확인하였다. 〈콩쥐팍쥐〉 설화에서 조력자 소는 어머니의 뉘트로 나타난다. 소로 변한 어머니는 〈콩쥐팍쥐〉의 각편 대부분에 나타나면서 농사와 관련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는 다른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소와 물고기가 나타나는 지역을 살펴보면, 소의 도살을 기피하여 물고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가까운 전승 지역에서 조력자가 물과 관련 있는 동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콩쥐팍쥐〉 설화의 경우 소는 물고기로 변형되지 않고 소와 동시에 두꺼비가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팍쥐〉 설화의 처벌 화소인 젓갈에 대해 고찰하였다. 〈콩쥐팍쥐〉 설화의 처벌 방식으로 젓갈이 등장하는 각편이 있는데 신랑은 의붓자매를 난도질하여 젓갈로 담아 계모에게 보내고, 계모는 그 젓갈을 다 먹은 다음 사실을 알게 되는 형식이다. 이런 복수담은 한국을 비롯하여 아이슬란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서도 확인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의붓자매를 젓갈로 만드는 처벌은 전승 지역의 음식 문화와 관계있다고 본다.

〈신데렐라〉 설화의 주요 화소를 전승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살핀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신데렐라〉 설화의 조력자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였다. 〈신데렐라〉 설화의 소가 물고기로 변형되는 것은 인도의 문화적 영향보다 〈신데렐라〉 설화가 전승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 인도의 〈신데렐라〉 설화 중 물고기가 조력자로 나타나는 각편들의

전승 지역을 살펴본 결과 해당 전승 지역에 바다나 강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조력자인 소가 물고기로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인도의 문화적 영향 때문이 아니라 〈신데렐라〉 설화가 전승되는 지리적 특징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 내에서 〈콩쥐팍쥐〉 설화의 특수성을 규명했다. 다른 나라의 〈신데렐라〉 설화에서는 소와 젓갈 중 하나만 확인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 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물과 관련된 동물인 두꺼비가 소와 동시에 조력자로 나타나는 점, 대륙에서 나타나는 소와 해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젓갈이 모두 나타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양상은 한국의 지형, 음식 문화와 농경·어업 사회의 공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콩쥐팍쥐〉 설화 주인공의 재생 과정에서 확인되는 금가위반과 꽃, 구슬에 대해 다루었다. 본고는 〈콩쥐팍쥐〉 설화의 특이한 재생 과정을 세계 〈신데렐라〉 설화 자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확인하였다. 〈콩쥐팍쥐〉 설화에서는 신랑의 금기가 특정한 상황을 촉발시킨다는 점이 주목된다. 금기를 비롯하여 주인공이 의붓자매를 쫓아내려는 노력과 의붓자매가 주인공을 속이려는 노력 등이 자세히 이야기되고 있다.

이어서 〈콩쥐팍쥐〉 설화의 조력자 서사와 재생 서사를 살펴보았다. 〈콩쥐팍쥐〉 설화에서 신랑은 부인에게 금기를 부여하는데 주인공은 그 금기를 어겨 살해당한다. 신랑과 주인공은 의붓자매와 계모가 충분히 주인공을 해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인공은 의붓자매의 속임에 넘어가 살해당한다. 금가위반으로 부부가 이별한 뒤 주인공이 시련을 겪고 나서야 재결합하게 되는 이야기는 〈나무꾼과 선녀〉, 〈구렁덩덩신선비〉 등 한국의 다른 설화에서도 흔히 확인되는 서사구조이다.

나아가 〈콩쥐팍쥐〉 설화의 재생 서사가 한국 설화와 고전작품과 상호텍스트성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콩쥐팍쥐〉 설화와 마찬가지로 계모학대 서사와 재생 서사를 가지고 있는 〈장화홍련전〉의 재생 서사를 검토하였다. 〈장화홍련전〉과 유사하게 〈콩쥐팍쥐〉 설화에서도 재생서사 즉 결혼 후일담이 전승 집단의 보상 심리에 기반하여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비교 연구 결과 〈콩쥐팥쥐〉 설화의 독자성은 다음과 같다. 〈콩쥐팥쥐〉 설화는 한국의 가부장제와 젓갈 음식 문화, 생업 수단(농업·어업의 공존), 지역적 조건과 더불어 한국 고전작품과 상호텍스트성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다른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비교연구의 의의를 규명하였다. 본고의 연구 모델은 향후 〈신데렐라〉처럼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전승을 보여주는 설화의 비교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박사학위 논문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불안의 기제 연구

김 경 은

2016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중욱

본 연구는 이광수의 소설에 나타난 불안의 기제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본고는 이광수가 근대적인 사상과 제도에 대해 품었던 가능성과 기대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형되어 불안의 기제가 되었다고 본다. 이광수가 서사에 남긴 불안의 기제를 분석하는 작업은 조선의 근대와 계몽을 구축했던 주체들의 불안을 이해하고, 그들의 불안이 근대적인 것을 수용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부정적인 기제로서의 불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광수 뿐 아니라 한국근대소설을 통해 인간에 대한 정치한 이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핵심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불안은 현실을 부정하고 은폐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실을 돌파해내기 위한 불가결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광수가 감지하고 경험했던 불안이 당대 조선의 현실과 연동되어 그의 소설에 다양한 충위를 구축했다고 보았다. 불안이 내포된 이광수의 서사는 변형과 왜곡의 형태로 전개된 근대와 계몽의 양상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해준다. 불안은 개체적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욕망에 대한 지향이 있어야 감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광수가 자신의 소설에 드러낸 불안의 기제는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로 표층에 드러내지 않았던 당대에 대한 작가 자신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광수는 계몽사상을 통해 개별적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고, 그것을 바탕

으로 자율적인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계몽은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에 대한 우월성을 토대로 구축된 것으로, 현실과의 일정한 거리를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냉소주의와도 긴밀하다. 계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통속적인 차원에서 타자를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주체)의 현재를 확인 하는 것, 현재와 자신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광수가 계몽사상(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문명조선’을 만들겠다는 동기뿐 아니라, 이광수 개인의 공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과 ‘계몽주의’가 내포한 사상의 간극은 확연했다. 국가나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론(이념)이 실행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광수가 가졌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는 조선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광수 특유의 낭만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향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1919년 이전의 이광수는 주로 계몽적이고 교육에 대한 사명이 높은 인물들을 작품의 주요한 인물로 삼아, 그들의 기대와 좌절 등을 서사화 했다. 주인공들은 조선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변화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들의 노력이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어서, 청년지식인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노를 드러내거나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동시에 자신들이 가졌던 계몽과 교육에 대한 생각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도 했다. 단편 「소년의 비애」(1917)와 「방황」(1918)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상해에서 돌아 온 이광수는 ‘조선’이 아니라 인간의 ‘정념’을 그의 작품의 주요한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다. 물론 그가 소설에서 사용하는 계몽적이거나 대의명분을 앞세운 인물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22년 이전의 작품과 달리, 다수의 작품에서 ‘조선’이 아니라 인간의 정념을 서사의 주요한 기제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작품화했다. 이념이나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던 상태에서 인간 그 자체의 내면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1922년 이후의 이광수는 정치의 영역에서 조선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자신에 대

한 자기 비하가 인간의 내면, 특히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에 따라 이광수의 소설에는 불안의 기제가 다르게 드러났다. 이광수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의 성과와 본 연구의 문제 제기 그리고 불안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첫째, 변화의 가능성이 높고 기대가 클 때는 불안을 숨겼고, 둘째, 변화의 가능성이 사라져 좌절한 경우에는 불안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으며, 마지막으로 어떠한 가능성이나 기대도 사라지고 고착되어 개인의 삶을 압박하는 현실의 위력을 감지한 후의 경우, 불안은 은폐되거나 억압되어 나타났음을 고찰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각각 유보되는 불안, 상승하는 불안, 억압되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조선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청년지식인들이 공적(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지위 확보)하기 위해 불안을 숨기거나 은폐하여 유보시키고 있음을 설명했고, 3장에서는 현실에 대한 모든 가능성과 기대가 사라진 후, 돈과 육체에 대한 탐욕만 남은 인물들의 분노, 저주, 광기 등을 상승된 불안으로 설명했으며 마지막 4장에서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현실을 자족적으로 이해하여, 불안을 억압하고 협소한 세계에 안주하는 인물들을 포착하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이광수와 이광수 문학을 구축한 핵심적인 기제를 불안으로 간주했는데, 이는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불안이 우연적이며 감상적이고, 충동적인 이광수 개인의 기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광수가 감지한 ‘불안’은 조선을 새로운 문명국가로 만들려는 당대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정념이다.

이처럼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불안의 기제 분석을 통해 조선의 근대와 계몽을 구축했던 주체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들의 불안이 근대적인 것을 수용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것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이광수 소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근대문학이 인간에 대한 정치한 이해의 영역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

『三韓義烈女傳』의 창작방법 연구

김 유 진

2016년 8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희병

이 논문은 金紹行이 1814년에 창작한 『三韓義烈女傳』의 창작방법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설의 창작방법은 소설가가 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자신만의 사유를 통해 구체화시킨 방법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삼한의열녀전』의 창작방법을 사실의 활용 방식과 허구의 구축 방식, 그리고 창작의 내적 원리와 방법의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삼한의열녀전』은 선행서사와 밀접한 연맥 관계를 통해 창작되었다. 김소행은 향랑고사, 한중사서, 중국소설, 몽유서사 등 선행서사를 활용하여 서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선행서사의 텍스트는 전제와 혼성, 그리고 점화의 방법을 통해 작품에引入되었다. 그는 선행서사의 텍스트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獨見과 獨知를 제시하였다.

‘연의적 원리’는 기록된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서사의 결합 방식을 가리킨다.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서사의 결합 비중이 ‘七實三虛’에서 ‘三實七虛’에 이르게 된다. 김소행은 역사적 사실 속 인물과 사건을 포치하여 서사의 골격을 구축하였다. 그는 여기에 역사적 사실을 假裝한 허구적 서사를 결합시켜 서사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허구적 서사에 환상성이 더해짐에 따라 신마연의적 특징을 보여준다.

김소행은 향랑의 운명을 소설로 변개하면서 새로운 운명의 형식을 창조하였다. 그는 속물성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로 인해 희생당한 향랑을 ‘托胎換身’하도록 만들어 그녀의 운명을 전변시키는 한편, 향랑의 욕망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그것을 소설적으로 실현하게 해주었다. 또한 김소행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형식을 창조하였다. 향량의 존재를 삼한으로 이전시키는 한편, 역사적 시간을 중첩시킴으로써 허구적 시간을 창조했다. 또한 공간적 배경을 일리천으로 집약시켜 天界・魔界・人界의 인물들이 한 공간에 모이게 만들고 천상과 지상의 어우러짐을 보여주었다.

김소행은 동아시아의 전통서사를 적극 활용하여 소설을 창작하였다. 그는 전계소설, 전기소설, 몽유소설의 양식을 활용하였으며, 환원구조와 예연구도를 변개하여 서사구조를 만들었다. 아울러 그는 연의적 원리를 통해 三韓을 배경으로 한 연의소설을 성립시켜 조선적 연의소설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예언과 숙명이 만들어 낸 향량의 운명을 전변시켜 향량의 욕망을 실현하도록 해줌으로써 解冤의 서사를 만들었다. 이로써 人情과 慾望을 긍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계보 연구:

김수영과 김춘수를 중심으로

안 지 영

2016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신범순

본 연구는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계보학을 니체적 허무주의의 관점 아래 살펴봄으로써, 김수영과 김춘수의 시에 나타난 허무 인식이 불모성을 지닌 역사문명을 비판하며 자기 초극을 통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기 위한 목표를 지닌 것임을 해명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허무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던 전후에 허무주의를 운명론적 비관주의로 보는 관점이 형성된 이래 허무주의는 철저히 극복해야 할 패배적, 수동적 세계관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전통 미학으로 설명되는 ‘한(限)’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한’이 현실에 대한 강력한 비판정신과 이를 넘어서려는 강렬도를 지닌 슬픔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허무주의가 목적론적 시간관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끊임없이 창조, 생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생의 본질을 일깨운다는 니체의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시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의미를 새롭게 고찰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각이다.

2장에서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시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계보를 검토한다. 1920년대에는 『개벽(開闢)』과 『폐허(廢墟)』를 중심으로 니체적 허무주의의 두 흐름이 형성되었다. 『개벽』과 논자들이 니체적 허무주의를 인간 해방의 실천적 측면에서 수용하였다면, 『폐허』에는 묵시록적 상상력으로 기존의 역사문명을 종결짓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하는 미학적 기획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두 흐름이 3장과 4장에서 논의한 김수영과 김춘수에게로

각각 이어졌다. 1920년대 시인들 가운데에는 오상순(吳相淳), 김억(金億), 김소월(金素月)의 시와 시론에 주목하여 이들이 세계에 대한 허무인식에 의해 발생하는 우울, 비애, 슬픔 등의 감정의 의미를 살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온 1920년대의 데카당스적 주체의 슬픔을 재해석함으로써, 이것이 사랑에 대한 강렬한 추구하고 관련된 것으로 개체적 자아가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됨을 검토한다. 폐허적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통해 이를 초극하려는 움직임은 1930년대 구인회(九人會) 동인에게로 이어진다. 김기림(金起林)과 이상(李箱)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태양 기호는 니체의 정오의 사상과 관련되어 황무지적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력에 대한 회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오장환, 서정주, 유치환 등 ‘생명파’ 시인들은 ‘카인’ 모티프를 통해 전대의 문체의식을 전개하였다. 이들 시에 두드러진 육체성에 대한 탐구, 역사에 대한 비애의식, 영원회귀에 대한 지향 등은 이들이 니체적 허무주의의 계보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후(戰後), 고석규(高錫珪), 박인환(朴寅煥), 전봉건(全鳳健)에게로 이어진다. 이들은 역사가 전쟁의 반복일 뿐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비관적 허무주의를 넘어 니체의 창조적 허무의 정신을 탐색하였다. 이들의 시에 나타난 ‘꽃’ 기호는 폐허의 현실을 초극할 수 있는 생명력을 담지한 존재로 형상화된다.

3장에서는 김수영이 예술을 통해 낡은 가치와의 싸움을 강조한 『개벽』과의 흐름을 잇고 있다고 보고 그의 시 세계의 변모를 살펴본다. 김수영의 초기시에 두드러지는 ‘설움’은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기 위해 낡은 가치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서 발생한다. 가상과 허위에서 벗어나 현실을 ‘바로’ 보는 과정에서 ‘설움’이 발생하는 데, 이러한 점에서 김수영의 설움은 니체가 말한 ‘비극의 정신’과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김수영의 ‘꽃’, ‘꽃잎’ 연작은 생성을 위해서는 파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긍정함으로써 삶에 대한 사랑의 자세로 나아가려는 ‘긍정의 연습’이라는 기획과 관련된다. ‘긍정의 연습’은 ‘더 큰 나’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차라투스트라타의 자기 초극적 명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관점을 통해 김수영의 ‘온몸의 시학’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모더니티에 대한 김수영의 관점이 집약되

어 있는 온몸의 시학은 대극적인 것의 긴장을 통해 더 높은 ‘자기’를 창조하기 위한 존재의 상승운동을 지향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와 같이 더 높은 ‘자기’에 이르고자 하는 주체의 욕망은 4·19혁명에 대한 체험을 통해 공동체를 완성하면서 동시에 이를 초극하고자 하는 혁명예의 지향으로 나타난다. 김수영의 유고작인 「풀」은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이 도래할 때까지 운명과의 관계를 긍정하며 우주적 우연과 대결하는 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온몸의 시학의 주체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4장에서는 김춘수의 역사허무주의에 주목하여 김춘수가 역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폐허』와의 기획을 이어받고 있음을 다룬다. 김춘수의 초기시에 나타나는 ‘비애’ 의식은,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설움’이 그러하듯, 인간의 운명에 대한 비극적 인식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비극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폭력적인 역사를 철저히 부정하는 한편, 사물을 대상성으로부터 구해내어 병든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초월적 시선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릴케(Rilke)의 시학을 탐구해나간 김춘수는 ‘꽃’ 연작에서 심연에 잠겨 있는 존재의 의미를 구해내는 시인의 사명을 천착한다. 릴케가 「두이노의 비가」에서 노래한 ‘천사’와 김춘수가 자신의 페르소나로서 설정한 ‘처용’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존재론적 상승을 이뤄내는 신화적 존재들로, 김춘수는 예술적, 정치적, 종교적 영웅들에게서 ‘처용-천사’의 얼굴을 발견한다. 김춘수의 시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언어의 불완전함에 대한 문제의식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기된다는 데 있다. ‘역사’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김춘수의 역사허무주의는 이와 같은 언어 인식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인류가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책임을 각자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김춘수의 시를 현실도피적인 것으로 평가해온 관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김춘수의 시는 삶의 근원적 위태로움을 아름다움으로 변용시키는 존재론적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

김수영과 베이다오의 참여의식 비교연구

이 미 옥

2016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성창

이 논문은 한국에서 1960년대 참여시의 대표시인으로 불리는 김수영과, 중국에서 1980년대 뭉롱시의 대표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베이다오(北島)의 시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질로서 참여의식을 이후 사회적 변화의 양상에 따라 추적 비교한 연구이다. 양자는 한중 양국의 상이한 사회·문화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성장, 발전의 양상을 보였고 상호 간의 직접적 영향관계의 존재 또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비슷한 시대적 배경 아래 시인이 역사적 주체로서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 즉 시의 미학적 실천과 그 속에 내재된 하나의 경향적 특질로서 참여의식에 있어 긴밀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김수영과 베이다오의 참여의식은 크게 봤을 때 현대성이라는 큰 범주를 포섭하고 있지만 이들은 또한 각자가 처한 문화권과 생활 안에서 각각 다른 주체로서의 체험이라는 현실(리얼리티) 상황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참여의식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마음의 현상을 가리키는 것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리얼리티라는 현실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반영된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 체험에는 거시적인 역사 체험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경험하는 미시적인 일상체험 및 타자체험까지 포괄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참여의식이 배태된 시대배경과 문단상황을 비교한다. 김수영과 베이다오가 겪은 4·19 혁명과 4·5천안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진압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혁명은 해방 이후의 첫 민주주의 혁명으로, 현대사와 문학사에 하나의 상징적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4·19는 새로운 주체가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놓아 다양한 미적 주체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중국의 4·5 천안문 사태는 80년대 유행된 ‘개인’의 맹아가 발아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문단에도 이어져서 ‘참여시’와 ‘몽롱시’라는 각각 다른 사조를 탄생시켰다.

3장에서는 이런 사회적 배경 아래 김수영과 베이다오가 호출된 문단 계기적 상황을 살핀다. 1960년대 활발하게 전개된 순수·참여 논쟁을 살펴보고 특히 그 가운데서 김수영과 이어령의 논쟁에 주목하여 김수영의 예술가적 정체성과 불온성에서 부정성으로의 도정을 구체적으로 해명한다. 김수영의 ‘불온성’은 초기 시에서부터 말기 시에 이르기까지 김수영의 시 전체를 관통하고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예술창작의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며 참여시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는 또한 죽음과도 연결되는데 김수영은 ‘죽음의 연습’을 참여시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보았다. 이 죽음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허무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획득하기 위한’ ‘생성’으로서의 죽음이다. 한국 문단에서 순수·참여 논쟁이 벌어졌던 것처럼 중국에서 또한 몽롱시가 가진 전통과 기존체계에 대한 부정 때문에 문예계에서는 몽롱시 논쟁이 벌어진다. 베이다오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여타 몽롱시인들 중에서 주체적 측면에서나 기법적 측면에서 부정성을 가장 강하게 드러낸 시인이다. 베이다오의 부정성은 단순히 체제의 모더니즘 기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깊은 반영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부정의 대상은 ‘문혁’에 대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정의식을 확대시켜 김수영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회의하는 철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김수영이 혁명의 실패 이후, 부정에서 긍정으로 선회하듯이 베이다오 또한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연대할 수밖에 없는 타자성을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한다.

4장에서는 구체적인 시 분석을 통해 김수영과 베이다오 시에서 드러난 참여의식의 양상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를 추적해 보고자 하였

다. 우선 김수영과 베이다오의 내적 부정의 양상 즉 지식의 의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김수영이 자신의 속물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보여줬다면 베이다오는 ‘영웅이 없는 시대’에 병든 시인의 모습을 다양한 상징을 통해 보여주었다. 기존 사회의 잘못된 힘의 체계나 가치관을 부정하고 그 배후에는 억압되어 있는 ‘자유’에 대한 열망이 무엇보다 응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공통점을 지향하고 있지만 김수영의 자기부정이 위악적인 것으로 ‘자기희생’을 통한 공동의 윤리를 역설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베이다오의 ‘자기부정’은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없음을 부정함으로 영웅만 있고 개인이 없는 시대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개인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을 비교함에 있어 흥미로운 지점은 모두 독재에 대항했지만 완전히 다른 국가 체제와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저항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김수영을 비롯한 한국의 시인들은 기존의 개인지향성 담론에서 민중 지향성 담론으로 바뀌었으며 베이다오를 비롯한 중국의 저항시인들은 ‘인민’ 중심의 사회주의 공동체 담론에서 그에 반(反)한 개인 지향성 담론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김수영과 베이다오는 모두 당시의 정치적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시 작품으로 공론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이 추구한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혁명이 실패하고 나서 여전히 억압되어있는 현실은 이들로 하여금 국가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대신,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고, 개인의 선택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소극적 자유를 추구하게 한다. 혁명 이후 일상을 자기 풍자 등을 통해 사회를 고발한, 김수영의 일련의 시들은 자기반성을 통해 공동체적 윤리를 찌르는 내면적 자유로 나아가고 있고 반면 추방이후 고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된 베이다오는 디아스포라로서 관조적 자유에 접근한다.

혁명 혹은 정치적 변혁의 이상이 구현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지속적 투쟁과 거듭되는 후퇴와 전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4·19와 4·5 천안문사건의 정치적 실패가 갖는 의미는 실패로만 확정지을 수

없는, 긴 순환과 변화의 변증법적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그때와 다른없는 작금의 정치적 현실, 한국에서는 후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좌절된 개혁의 장기적 후과로서 빈부격차, 지역격차 등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반세기 전의 김수영이나 베이다오를 꾸준히 현재로 소환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참여시의 독자적인 행로를 개척해온 김수영을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새롭게 의미부여하는 작업은 한국과 중국이 당면한 정치적 문제들을 재조정하여 공생해 나갈 비판적 전망의 단초를 그 속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현대 한국어 방위명사 연구

곽 휘

2016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진호

이 연구는 현대 한국어에서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방위명사를 대상으로 하여, 방위명사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더 나아가 고유어 방위명사와 한자어 방위명사의 의미 차이를 밝히며 중국어 방위명사와 대조하여 한·중 방위명사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찾아낼 것이다.

방위명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인지언어학을 바탕으로 방위명사의 의미를 논의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 고유어 방위명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만 한자어 방위명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한자어 방위명사의 통사적 특징, 단어결합의 양상, 의미 기능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미흡하다. 한자어 ‘상’, ‘하’, ‘전’과 ‘후’ 등 방위명사도 고유어 ‘위’, ‘아래’, ‘앞’과 ‘뒤’처럼 공간적 의미,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고유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고유어 방위명사의 의미 기능, 한자어 방위명사의 통사적 특징, 형태적 구조와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 고유어 방위명사와 한자어 방위명사를 사용하는 데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냈다. 아울러, 한국어 방위명사와 중국어 방위명사의 비교연구도 시도하였다. 한국어는 영어 등 서구어와 달리 공간적 위치 개념이 명사를 통하여만 실현된다. 이 점은 중국어와 비슷하지만 한국어에는 공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방위명사가 ‘위, 아래, 앞, 뒤’ 등 고유어와 함께, ‘상, 하, 전, 후’ 등 한자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방위명사의 기본적 의미, 즉 원형의미는 공간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꽃병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에서는 방위명사 ‘위’가 ‘어떤 기준보다 더 높은 쪽, 또는 사물의 중간 부분보다 더 높은 쪽’의 의미로 나타나 ‘꽃병’의 위치가 ‘책상’보다 ‘높다’를 말한다. 하지만, 방위명사의 의미는 공간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역사는 위로 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에서 ‘위’는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고, ‘위로는 회장에서, 아래로는 평사원까지 모두 수련회에 참석하였다’에서 ‘위’와 ‘아래’는 각각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추상적 의미이다. 한자어 방위명사도 마찬가지이다. ‘진흙 중에서 나온 연꽃’에서 ‘중’은 ‘안이나 속’의 공간적 의미로 나타나지만, ‘그는 내일 중으로 출국할 예정이다’에서의 ‘중’은 ‘어떤 시간의 한계를 넘지 않는 동안’의 시간적 의미로 나타나고, 문법화 과정을 거쳐 ‘여행하던 중에 만난 사람’에서처럼 ‘중’이 ‘무엇을 하는 동안’과 같은 시제의 의미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처럼 고유어 방위명사와 한자어 방위명사는 모두 공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본고는 방위명사의 이러한 의미적 특징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실린 뜻풀이를 바탕으로 하여 방위명사의 공간적 의미,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특히 시간적 의미를 살펴볼 때 시간어와 공간어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방위명사의 추상적 의미가 대부분 은유 및 문법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추상적 의미가 공간적 의미에서 어떻게 전이해왔는지도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을 제시하고 연구대상을 선정한 다음 방위명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위명사의 기본적 이론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이 부분에서 먼저 공간 개념을 소개한 다음에 그간 사용하던 공간 개념에서 나타나는 용어를 정리하고, 공간어에 새로운 정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한국어 방위명사의 양상을 검토하기 전에, 유형론 관점에서 세계 다른 언어에서 공간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영어, 러시아 등 서구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에서 공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방위명사의

양상을 보면서 방위명사의 의미와 관련된 은유 및 문법화 개념도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고유어 방위명사의 의미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뜻풀이에 따라 ‘위/아래(밑)’, ‘앞/뒤’, ‘안(속)/밖’과 ‘가운데’의 공간적 의미,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는 지향은유와 존재은유를 도입하여 자세히 논의하였고, ‘밖’의 추상적 의미는 문법화에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 부분의 내용은 주로 자립명사로서의 방위명사를 고찰할 것이지만, 논의의 필요에 따라 고유어 방위명사로 만든 복합어도 언급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자어 방위명사의 의미기능, 형태적 구조와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뜻풀이에 따라 ‘상/하’, ‘전/후’, ‘내’/‘외’, ‘중’의 공간적 의미,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부분의 내용은 자립명사로서의 방위명사를 고찰할 뿐만 아니라, 방위명사로 만든 복합어도 의미에 따라 자세히 논의하였다. 특히 ‘상’과 ‘하’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문법화 과정을 거쳐 추상적 의미로 나타나는데 ‘상’과 ‘하’는 문장에서 주로 관형어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뒤에 ‘에’, ‘에서’, ‘로’ 등 다양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상’과 ‘하’가 조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밝혔고, 또한 ‘상’과 ‘하’의 의미에 따라 앞에 오는 명사를 분류하는 작업도 하였다.

고유어 방위명사와 한자어 방위명사는 모두 공간적 의미,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여럿 나타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공간적 의미 및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에서 나타나는 고유어 방위명사와 한자어 방위명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으며, 또한 중국어 방위명사와 대조하여 한-중 방위명사의 비교 연구도 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며 남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어 명령문의 문법과 화행 연구

이 지 수

2016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문숙영

본 연구는 한국어의 주요 문장 유형 가운데 하나인 명령문의 본질과 범위를 밝히고, 세부 유형별 특징과 다른 문법 범주와의 상관관계, 지시 화행과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의 명령문 전반에 대한 정밀한 고찰을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가장 먼저 서법(mood), 문장 유형, 문장종결법 등 여러 관점에서 기술되어 온 명령문의 지위를 명령형 종결어미와 지시 화행의 관습적인 연관성으로 규정되는 문장 유형의 하나로서 정립하였다. 형식과 화행이 관습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이 문장 유형이라는 정의에도 불구하고, 명령형 종결어미와 지시 화행이 명령문 범주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고전적인 범주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명령문 범주는 본질적으로 범주 경계가 불명확하고, 구성원들 간의 지위도 동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원형적 관점에서 명령문의 범주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명령문은 ‘그 원형적 기능이 지시 화행을 수행하며 형태·통사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는 문장 유형’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명령문의 정의는 본 연구의 여러 장에 걸쳐 면밀히 검토되었다. 먼저 명령문의 형태적인 특징으로 명령형 종결어미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명령형 전용의 종결어미, 통용 종결어미, 명령 기능을 가지는 유사 어미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사적인 특징으로 주어의 출현 여부, 주어 인칭과 의미역, 시제와 상, 결합 술어 제약 등의 문제를 다룸

으로써 명령문을 하나의 구분되는 문장 유형으로 성립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어 명령문의 특징이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명령법의 주어 인칭이 2인칭으로부터 3인칭이나 1인칭 복수, 1인칭 단수 순으로 전형성이 떨어지는 위계를 형성한다는 유형론적 연구는 한국어의 청유문을 광의의 명령문에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 준다.

이어서 명령문의 원형적 기능인 지시 화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명령문이라는 문장 유형의 원형적 기능이 지시 화행의 수행이라는 것은 비원형적 기능, 즉 비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문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간 비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명령문의 존재는 명령문과 지시 화행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지시 화행의 개념과 범위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에 지시 화행의 개념을 ‘청자에게 행위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 부합하는 하위 화행을 검토함으로써 지시 화행의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의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의 범위가 대체로 지시 화행의 범위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부 명령문의 화행은 지시 화행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문도 모두 동일한 지시의 강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령문 범주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원형적 관점에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명령문의 발화는 각각 다른 지시의 강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명령문 발화가 가지는 지시의 강도를 ‘지시의 힘’이라 명명한다. 그리고 Takahashi(2012)의 방법을 원용해 여러 명령문에 대한 지시의 힘을 산술적으로 계량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명령문 범주가 지시의 힘이 강한 원형적 명령문으로부터 지시의 힘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비원형적 명령문까지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명령문의 특징은 ‘-지 말-’로 형성되는 한국어의 부정 명령문을 대상으로 검토되었다. 부정 명령문은 금지문이라고도 불려왔는데, 금지문보다는 부정 명령문이라는 술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부정 명령문에서 사용되는 부정소 ‘말-’이 비현실법(irrealis)과 관련된 형태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부정 명령문 범주가 흥미로운 것은 문장의 의미와 다른 문법 범주와의 상호 관계 등에서 긍정문과는 상당 부분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 때문인데,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과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긍정문과 마찬가지로 부정 명령문에 대해서도 그것이 가지는 지시의 힘을 평가하였다. 부정 명령문 역시 지시의 힘이 강한 것으로부터 약한 것까지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금지, 제언, 충고, 권고, 기원, 양보, 허락 등의 다양한 화행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명령문의 비지시 용법을 살펴보았다. 지시의 힘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부류로는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가지는 조건 명령문, 인사나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명령문, 진술이나 질문 등의 간접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문이 포함된다. 명령문이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고는 한국어 조건 명령문의 유형을 분석하고 명령에서 조건이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인사나 담화표지로 기능하는 명령문은 언어 생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언어간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간접 화행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문은 평서문이나 의문문이 간접 화행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그 빈도가 현저히 낮는데, 이는 명령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면위협행위로서의 성격이 간접 화행을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